

박사학위논문

한국어 성취도 평가의 문항 분석 및 실제 연구

- 지필 평가를 중심으로 -

2017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허 유 경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한국어 성취도 평가의 문항 분석 및 실제 연구

- 지필 평가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actual research of the test items for evaluation
of Korean learning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written test items -

2017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허 유 경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한국어 성취도 평가의 문항 분석 및 실제 연구

- 지필 평가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actual research of the test items for evaluation
of Korean learning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written test items -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허 유 경

허유경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한국어 성취도 평가의 문항 분석 및 실제 연구
-지필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허 유 경

성취도 평가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평가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퀴즈, 수시, 요약, 중간, 기말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중간, 기말 평가는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수료 점수에서 비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진급 혹은 대학 진학, 회사 입사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취도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 도구로서의 문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필 평가에서 평가 문항은 결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교육 기관에서 성취도 평가 관련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타 기관과 자료를 공유할 수 없어 문항 출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제와 관련한 지침이 있다면 교사의 출제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평가 도구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해 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출제 지침으로 영역별로 어떠한 유형이 출제될 수 있는가, 그 유형이 어느 등급에서 평가될 수 있는가를 정리해 제시하였다. 이때 근거는 교육 기관의 성취도 평가 문항이었다. 이 문

항은 교육 경력과 대내외적으로 출제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만든 것이며 오랜 시간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인 것이다. 이에 유형별, 등급별 평가 문항 지침 제작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하고자 분석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자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하였다. 또한 1급부터 6급까지의 교육을 모두 실시하고 급별 학급 수가 3개 이상인 곳으로 하였다. 이는 다른 기관과의 교류, 문항의 질, 출제자의 전문성, 등급별 문항 유형 및 출제 비율, 출제자 수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교육 기관 8곳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8곳의 지필 문항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로 나눠 문항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특징, 출제 비율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기관의 실제 평가 문항을 예로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이를 통해 5장의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의 실제’를 완성하였다.

성취도 평가는 특성 상 기관의 문항을 공개하기가 어렵다.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가 특정 대학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성취도 평가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관의 실제 문항 분석을 통한 결과물 제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현직 교사들에게는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이해 및 문항 점검 자료로, 신입 교사들에게는 출제의 지침서로, 예비 교사들에게는 성취도 평가 및 지필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성취도 평가, 지필 평가, 평가 도구, 평가 문항, 문항 유형, 평가 영역, 평가 등급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5
1.3. 연구 내용 및 절차	9
II.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에 대한 이론적 배경	11
2.1. 성취도 평가	12
2.1.1. 성취도 평가의 정의	12
2.1.2. 의사소통 능력과 평가	17
2.2. 지필 평가	23
2.2.1. 지필 평가의 정의	23
2.2.2. 지필 평가 문항	25
2.3. 평가 도구로서의 문항	37
2.3.1. 문항의 정의	37
2.3.2. 문항의 요건	38
2.3.3. 문항 개발 절차	43
III. 기관별 성취도 평가 현황	54
3.1. 기관 선정 기준	55
3.2. 기관별 성취도 평가 실태	57
3.2.1. 가 기관	57
3.2.2. 나 기관	59
3.2.3. 다 기관	60
3.2.4. 라 기관	62

3.2.5. 마 기관	63
3.2.6. 바 기관	65
3.2.7. 사 기관	66
3.2.8. 아 기관	67
 IV.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 분석	 72
4.1. 문항 분석 기준	72
4.2. 분석 결과	76
4.2.1. 어휘·문법	79
4.2.2. 쓰기	107
4.2.3. 듣기	136
4.2.4. 읽기	191
 V.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의 실제	 260
5.1. 어휘·문법	260
5.2. 쓰기	274
5.3. 듣기	279
5.4. 읽기	291
 VI. 결론	 307
 참고문헌	 311
 ABSTRACT	 317

표 목 차

〈표1〉 연구의 근거	9
〈표2〉 평가 방법에 따른 성취도 평가	14
〈표3〉 Canale & Swain의 의사소통 능력 능력의 구성 요소	19
〈표4〉 담화적 능력의 용어 수정	20
〈표5〉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20
〈표6〉 구성 요소의 세부 내용	21
〈표7〉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특징	22
〈표8〉 지필 평가 문항의 형태	36
〈표9〉 문항(問項)의 의미	37
〈표10〉 문제(問題)의 의미	38
〈표11〉 어휘·문법의 출제 계획표	46
〈표12〉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지문 내적 검토 항목	49
〈표13〉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지문 외적 검토 항목	50
〈표14〉 성취도 평가의 검토 항목	51
〈표15〉 성취도 평가의 편집 지침	53
〈표16〉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 기준	54
〈표17〉 가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58
〈표18〉 나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59
〈표19〉 다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61
〈표20〉 라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62
〈표21〉 마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64
〈표22〉 바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65
〈표23〉 사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67
〈표24〉 아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68
〈표25〉 기관별 성취도 평가 실태	69
〈표26〉 기관별 성취도 평가 출제 방법	70
〈표27〉 본고의 문항 유형의 정의	73

〈표28〉 지필 평가 문항 분석 기준	75
〈표29〉 영역별 평균 문항 수	76
〈표30〉 어휘·문법을 제외한 문항 수	77
〈표31〉 문항 형태별 문항 수	78
〈표32〉 어휘·문법의 등급별 평가 기준	81
〈표33〉 어휘의 사전적 의미	83
〈표34〉 어휘·문법의 문항 형태	84
〈표35〉 어휘·문법의 등급별 문항 형태	85
〈표36〉 어휘·문법의 선다형 문항 유형	86
〈표37〉 어휘의 선다형 문항 유형	87
〈표38〉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문항 유형	88
〈표39〉 기관별 관용 표현 고르기의 문항 수	89
〈표40〉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등급별 내용	92
〈표41〉 유의어 고르기의 등급별 문항 수	93
〈표42〉 다의어 고르기에서 출제된 어휘	95
〈표43〉 문법의 선다형 문항 유형	97
〈표44〉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의 내용	98
〈표45〉 틀린/맞는 문장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101
〈표46〉 기타의 문항 유형	103
〈표47〉 나 기관의 어휘·문법 문항 형태	106
〈표48〉 완결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107
〈표49〉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채점 기준	108
〈표50〉 쓰기의 등급별 평가 기준	109
〈표51〉 쓰기의 문항 형태	110
〈표52〉 쓰기의 평가 내용	110
〈표53〉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문항 유형	111
〈표54〉 쓰기의 선택형 문항 형태	112
〈표55〉 쓰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113
〈표56〉 대화 완성하기의 답 구성 방법	114

〈표57〉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의 등급별 문항 수	117
〈표58〉 쓰기의 서답형 문항 형태	122
〈표59〉 완결형 문항 유형	124
〈표60〉 완결형의 출제 비율	125
〈표61〉 옮겨 쓰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126
〈표62〉 바꿔 쓰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128
〈표63〉 일부 쓰기의 평가 방법	128
〈표64〉 논술형 완결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131
〈표65〉 논술형의 출제 비율	131
〈표66〉 기관별 작문형 논술형의 출제 비율	135
〈표67〉 작문형 논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136
〈표68〉 듣기의 등급별 평가 기준	136
〈표69〉 듣기의 문항 형태	138
〈표70〉 듣기의 선택형 문항 형태	139
〈표71〉 듣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140
〈표72〉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142
〈표73〉 사실적 이해 문항 유형	143
〈표74〉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144
〈표75〉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146
〈표76〉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와 다른 것 고르기의 문항 수	147
〈표77〉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의 지시문	148
〈표78〉 어휘의 사전적 의미	149
〈표79〉 정보 고르기의 세부 목적	151
〈표80〉 소재/화제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153
〈표81〉 추론적 이해 문항 유형	157
〈표82〉 청자의 반응을 묻는 문항 유형	158
〈표83〉 초급의 선다형 문항 유형	160
〈표84〉 시각 자료의 종류와 평가 방법	161
〈표85〉 내용과 같은 그림/도표/그래프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165

〈표86〉 목적별 대화의 종류	169
〈표87〉 ②-1과 ②-8과 ②-9의 비교	172
〈표88〉 ②-9와 ②-11의 등급별 문항 수	175
〈표89〉 ②-8과 ②-12의 비교	176
〈표90〉 대화와 관련된 표현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180
〈표91〉 평가적 이해 문항 유형	183
〈표92〉 평가적 이해 문항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184
〈표93〉 듣기의 서답형 문항 유형	190
〈표94〉 단답형의 채점 기준	191
〈표95〉 읽기의 등급별 평가 기준	192
〈표96〉 읽기의 문항 형태	194
〈표97〉 읽기의 선택형 문항 형태	195
〈표98〉 읽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196
〈표99〉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199
〈표100〉 사실적 이해 문항 유형	200
〈표101〉 사실적 이해 문항의 등급별 출제 비율	201
〈표102〉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유형의 지시문	203
〈표103〉 정보 고르기의 세부 목적	205
〈표104〉 사실적 이해 문항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211
〈표105〉 소재/화제 고르기의 등급별 내용	212
〈표106〉 추론적 이해 문항 유형	214
〈표107〉 추론적 이해 문항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215
〈표108〉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평가 내용	216
〈표109〉 접속사의 분류	219
〈표110〉 접속사의 등급별 내용	220
〈표111〉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227
〈표112〉 ②-6과 ②-7의 등급별 출제 비율	231
〈표113〉 글의 종류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236

〈표114〉 글의 종류와 읽기 방법	237
〈표115〉 글의 전개 방법	239
〈표116〉 앞과 뒤에 올 내용 고르기 유형의 문항 수	242
〈표117〉 평가적 이해 문항 유형	243
〈표118〉 평가적 이해 문항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244
〈표119〉 어휘의 사전적 의미	245
〈표120〉 기분과 심정을 나타내는 어휘	245
〈표121〉 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	250
〈표122〉 읽기의 서답형 문항 형태	256
〈표123〉 단답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256
〈표124〉 연결형 유형의 세부 내용	262
〈표125〉 어휘의 선다형 문항 유형	264
〈표126〉 문법의 선다형 문항 유형	265
〈표127〉 어휘·문법의 서답형 문항 유형	268
〈표128〉 어휘의 등급별 문항 유형	271
〈표129〉 문법의 등급별 문항 유형	272
〈표130〉 어휘·문법의 출제 비율	273
〈표131〉 쓰기 선다형 문항 유형	275
〈표132〉 쓰기의 서답형 문항 유형	276
〈표133〉 쓰기의 등급별 문항 유형	278
〈표134〉 듣기의 진위형 문항 유형	280
〈표135〉 듣기의 배열형 문항 유형	280
〈표136〉 듣기의 연결형 문항 유형	281
〈표137〉 듣기의 담화 종류	282
〈표138〉 듣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283
〈표139〉 듣기의 서답형 문항 유형	285
〈표140〉 듣기의 등급별 문항 유형	287
〈표141〉 성취도와 숙달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289
〈표142〉 성취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290

〈표143〉 숙달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290
〈표144〉 성취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지침	290
〈표145〉 읽기의 진위형 문항 유형	291
〈표146〉 읽기의 배열형 문항 유형	291
〈표147〉 읽기의 연결형 문항 유형	292
〈표148〉 읽기의 텍스트 유형	293
〈표149〉 읽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294
〈표150〉 읽기의 서답형 문항 유형	299
〈표151〉 읽기의 등급별 문항 유형	301
〈표152〉 성취도와 숙달도 읽기 평가의 출제 비율	305
〈표153〉 성취도 읽기 평가 출제 비율	305
〈표154〉 숙달도 읽기 평가 출제 비율	305
〈표155〉 성취도 읽기 평가의 출제 비율 지침	306
〈표156〉 쓰기의 서답형 세부 유형	308
〈표157〉 성취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지침	309
〈표158〉 성취도 읽기 평가의 출제 비율 지침	309

그림 목 차

〈그림1〉 문항 형태별 평가자의 주관 개입 정도	36
〈그림2〉 문항 개발 절차	44
〈그림3〉 교재의 연결형 연습 문항①	253
〈그림4〉 교재의 연결형 연습 문항②	254
〈그림5〉 교재의 연결형 연습 문항③	254

자 료 목 차

〈자료1〉 완성형의 예	26
〈자료2〉 괄호형의 예	26
〈자료3〉 제한 반응 논술형의 예①	27
〈자료4〉 제한 반응 논술형의 예②	28
〈자료5〉 정답형의 예	29
〈자료6〉 최선다형의 예	30
〈자료7〉 다답형의 예	31
〈자료8〉 합당형의 예	31
〈자료9〉 불완전한 문항형의 예	32
〈자료10〉 부정형 지시문의 예	32
〈자료11〉 답지 구성의 예	33
〈자료12〉 진위형의 예	34
〈자료13〉 연결형의 예	35
〈자료14〉 완결형 논술형의 예	74
〈자료15〉 완결형 논술형의 여백	74
〈자료16〉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의 예	88
〈자료17〉 관용 표현 고르기의 예	90
〈자료18〉 속담 고르기의 예	90
〈자료19〉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의 예	91
〈자료20〉 문맥에 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의 예	92
〈자료21〉 유의어 고르기의 예	93
〈자료22〉 다의어 고르기의 예	94
〈자료23〉 동음어 고르기의 예	95
〈자료24〉 반의어 고르기의 예①	96
〈자료25〉 반의어 고르기의 예②	96
〈자료26〉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예①	98
〈자료27〉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예②	99
〈자료28〉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 고르기의 예	99

〈자료29〉 문맥에 알맞은 조사 고르기의 예	100
〈자료30〉 틀린 문장 고르기의 예	101
〈자료31〉 밑줄과 비슷한 것 고르기의 예	102
〈자료32〉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쌍 고르기의 예	104
〈자료33〉 표현 영역에서 잘못 출제된 속담 고르기의 예	104
〈자료34〉 표현 영역에서의 속담 고르기의 예	105
〈자료35〉 대화 완성하기 유형의 예①	114
〈자료36〉 대화 완성하기 유형의 예②	115
〈자료37〉 대화 완성하기 유형의 예③	115
〈자료38〉 연결 어미 평가의 예①	116
〈자료39〉 연결 어미 평가의 예②	116
〈자료40〉 밑줄과 비슷한 것 고르기의 예	118
〈자료41〉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의 예	118
〈자료42〉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예	119
〈자료43〉 맥락에 알맞지 않은 문장 고르기의 예	120
〈자료44〉 초급의 예	120
〈자료45〉 중급의 예	121
〈자료46〉 단답형의 예	123
〈자료47〉 선다형 단답형의 예	123
〈자료48〉 옮겨 쓰기의 예	126
〈자료49〉 일부 쓰기의 예	127
〈자료50〉 전체 쓰기의 예	127
〈자료51〉 일부 쓰기의 예①	129
〈자료52〉 일부 쓰기의 예②	129
〈자료53〉 일부 쓰기의 예③	130
〈자료54〉 전체 쓰기의 예	130
〈자료55〉 주어진 표현으로 문장 완성하기의 예①	132
〈자료56〉 주어진 표현으로 문장 완성하기의 예②	132
〈자료57〉 완결형 논술형의 예	133

〈자료58〉 선다형 완결형 논술형의 예	133
〈자료59〉 작문형 논술형의 예	134
〈자료60〉 제한 반응 작문형 논술형의 예	134
〈자료61〉 글의 종류를 밝힌 작문형 논술형의 예	135
〈자료62〉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예①	144
〈자료63〉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예②	145
〈자료64〉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예③	145
〈자료65〉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나쁜 예	146
〈자료66〉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의 예	147
〈자료67〉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의 예	148
〈자료68〉 정보 고르기의 예	152
〈자료69〉 소재/화제 고르기의 예	154
〈자료70〉 의미가 비슷한 것 고르기의 예	154
〈자료71〉 자연스러운 대화 고르기의 예	155
〈자료72〉 잘못된 대화 고르기의 예	156
〈자료73〉 알맞은 대답 고르기의 예	159
〈자료74〉 장소 고르기의 예	161
〈자료75〉 대화 상황에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	162
〈자료76〉 질문에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①	162
〈자료77〉 질문에 맞는 그림 고르기 유형의 예②	163
〈자료78〉 도표/그래프 고르기의 예	164
〈자료79〉 그림 보고 맞는 대화 고르기의 예	166
〈자료80〉 대화 참여자 고르기의 예	167
〈자료81〉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고르기의 예	168
〈자료82〉 대화의 종류 고르기의 예	169
〈자료83〉 이어질 말 고르기의 예	170
〈자료84〉 이어질 말 고르기의 나쁜 예	171
〈자료85〉 이어질 내용 고르기의 나쁜 예	173
〈자료86〉 이어질 내용 고르기의 예	173

〈자료87〉 이어질 행동 고르기의 예	174
〈자료88〉 앞에 올 내용 고르기 유형의 예	175
〈자료89〉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의 예	177
〈자료90〉 중심 생각 고르기의 예	178
〈자료91〉 제목 고르기의 예	179
〈자료92〉 대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 고르기의 예	180
〈자료93〉 주장의 근거 고르기의 예	181
〈자료94〉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의 예	182
〈자료95〉 화자의 기분 고르기의 예	185
〈자료96〉 화자의 태도 고르기의 예①	185
〈자료97〉 화자의 태도 고르기의 예②	186
〈자료98〉 화자의 생각 고르기의 예	187
〈자료99〉 진위형의 예	188
〈자료100〉 배열형의 예	189
〈자료101〉 단답형의 예	190
〈자료102〉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의 예	202
〈자료103〉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의 예	202
〈자료104〉 어휘 읽고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	206
〈자료105〉 문장을 읽고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	206
〈자료106〉 글을 읽고 질문에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	207
〈자료107〉 그림/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의 예	209
〈자료108〉 지시어의 내용 고르기 유형의 예	210
〈자료109〉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의 예	211
〈자료110〉 소재/화제 고르기의 예①	212
〈자료111〉 소재/화제 고르기의 예②	213
〈자료112〉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의 예①	217
〈자료113〉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의 예②	217
〈자료114〉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의 예	218
〈자료115〉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의 예	218

〈자료116〉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 고르기의 예①	220
〈자료117〉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 고르기의 예②	221
〈자료118〉 문맥에 알맞은 속담 고르기의 예	222
〈자료119〉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고르기의 예	222
〈자료120〉 문맥에 알맞은 어휘와 접속사 고르기의 예	223
〈자료121〉 밑줄의 의미 고르기의 예①	224
〈자료122〉 밑줄의 의미 고르기의 예②	224
〈자료123〉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고르기의 예	225
〈자료124〉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의 예①	226
〈자료125〉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의 예②	227
〈자료126〉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의 예	228
〈자료127〉 중심 생각 고르기의 나쁜 예	229
〈자료128〉 중심 생각 고르기의 예	230
〈자료129〉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의 예	231
〈자료130〉 요약 문장 고르기의 예	232
〈자료131〉 제목 고르기의 예	233
〈자료132〉 글을 쓴 목적 고르기의 예	234
〈자료133〉 글을 쓴 목적이 담긴 단락 고르기의 예	235
〈자료134〉 글의 종류 고르기의 예	236
〈자료135〉 주장의 근거 고르기의 예	238
〈자료136〉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의 예	240
〈자료137〉 앞에 올 내용 고르기의 예	241
〈자료138〉 이어질 내용 고르기의 예	242
〈자료139〉 필자의 기분 고르기의 예	246
〈자료140〉 필자의 심정 고르기의 예	247
〈자료141〉 필자의 생각 고르기의 예	248
〈자료142〉 필자의 태도 고르기의 예	249
〈자료143〉 필자의 주장 고르기의 예	251
〈자료144〉 진위형의 예	252

〈자료145〉 배열형의 예	253
〈자료146〉 사실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연결형의 예	255
〈자료147〉 추론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연결형의 예	255
〈자료148〉 단답형의 예①	257
〈자료149〉 단답형의 예②	258
〈자료150〉 완결형의 예	259
〈자료151〉 연결형의 예①	261
〈자료152〉 연결형의 예②	261
〈자료153〉 틀린 문장 고르기의 예	263
〈자료154〉 사용이 틀린 것을 고르고 맞게 고쳐 쓰기의 예	266
〈자료155〉 주어진 것과 결합하여 불규칙 활용해 쓰기의 예	267
〈자료156〉 맥락에 맞게 불규칙 활용해 쓰기의 예	267
〈자료157〉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의 예①	270
〈자료158〉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의 예②	270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 평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외국어 평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익(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나 토플(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라고 대답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수학과 과학 같은 평가가 있는 데도 말이다. 그만큼 언어가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만나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언어 교육과 그에 따른 평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시안 게임, 올림픽, 엑스포,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한국 노래,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韓流烈風)¹⁾을 불러 일으켰다. 그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도 다양해졌다.²⁾ 이에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교재, 교수 방법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평가의 중요성도 커졌다. 단순히 흥미와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입사, 입학 등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

1) 중국에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가요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중국 언론은 이것을 한류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열풍은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이어졌다.

2) 권순희(2000)에서는 국내외 다중언어 사회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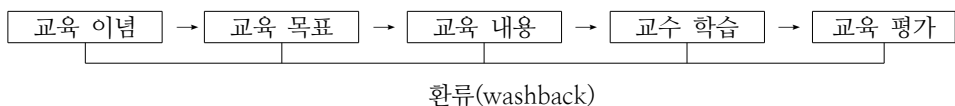
구분	한국어 유형	비고
국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방언으로서의 한국어	분단 문제와 연결된 한국어, 통일을 염두에 둔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국어
국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유학생, 이민 1세대, 1.5세대 한국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고려어, 조선어, 교민 한국어 등

습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회사나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그들의 입사 혹은 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에게는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어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교육 내용 및 교수 방법 등의 수정·보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한다.³⁾

한국어 평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평가는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 전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반을 배정하기 위해, 학습 중간 중간 학습 정도를 파악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개선된 교수 방법과 교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학습 후에는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즉, 학습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course book progress test)를 측정하는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Valette(1997)는 이러한 교실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실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향후 학습 방향 설정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실 평가 중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취도 평가는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며 그 결과는 다음 단계의 학습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성취도 평가를 통해 어느 단계까지 도달하였는가를 보면 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은 성취도 평가의 결과가 누적되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평가의 내용이 수업 중에 다루어진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바탕이 되어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숙달도를 위한 중요한 단계임은 틀림없다. 이렇듯 성취도 평가는 교실 안

3) McNamara(2000)은 평가가 교수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역류 혹은 환류 효과라고 하였다.



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과 교실 밖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에 각 교육기관에서도 성취도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도 높은 문항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각 교육기관에서 평가 문항 출제 및 채점 등의 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평가 문항을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일도 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문식성(assessment literacy)은 한국어 교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이것의 가장 첫 단계는 평가 도구 즉, 좋은 문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문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Nitko(1983)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교사의 문항 제작 능력을 강조하였다.

첫째, 문항 제작은 수업 후에 학생이 습득해야 할 것, 수행해야 할 행동 특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교수 목표를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문항 제작을 하며 익힌 기술은 수업이나 교육과정 설계에도 도움을 준다. 교사는 문항을 제작하며 수업 목표에 제시된 행동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제시하는 능력, 행동을 이끌어 내는 능력, 관찰 능력 등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교수 개발이나 교육과정 설계에도 필요한 능력이다.

셋째, 문항 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평가의 질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상업적으로 만든 평가는 양질의 문항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은 평가는 비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며 학습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 이때 교사가 문항 제작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평가에 대한 질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을 수정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잘 구성된 문항은 학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에 객관적이며 교사로부터 하여금 공정한 태도를 갖게 한다.

다섯째, 문항 제작에 대한 지식은 평가의 남용 및 오용을 막고 평가 결과의

적절한 활용에도 도움을 준다.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사의 문항 제작 능력이 강조되면서 출제와 관련한 지침서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각 기관의 출제는 교육과 평가 경험에 많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타 기관과 자료를 공유할 수 없어 출제 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출제를 교사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익힌 교사의 경험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제작한 문항은 성취도 평가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들의 교육과 평가의 경험이 문항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취도 평가 문항이 매학기 새롭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 기간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문항을 분석한다면 그 결과는 성취도 평가 출제 지침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관별로 교육 목표 및 내용이 달라 모든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성취도 평가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등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동일하며 대부분의 기관이 평가 목표를 설정할 때 숙달도 평가를 참고하였으므로 초·중·고급의 큰 목표는 매우 유사하다⁴⁾. 따라서 성취도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주요 대학의 성취도 평가 문항을 분석하여 출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침서의 개발은 문항의 질을 높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남명호 외(2000)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이 한국어 교육 기관의 등급을 기술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경희대와 고려대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을 참고하여 기관의 등급을 기술하였으며 연세대는 6등급 체계를 1급부터 6급까지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또한 서강대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유형을 지필 평가에 활용하였다. 이 4곳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을 대표하는 주요 기관으로 다른 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등급별 교육 목표 및 내용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선행 연구 검토

성취도 평가는 일정 기간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평가는 교육 기간 중 평균 2회 중간, 기말의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결과는 유급과 진급을 결정짓는 운영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대부분 성취도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희경 외(2002)에서는 그 이유를 기관마다 교육 목적과 목표가 달라 일괄적으로 평가 모형을 만들기 어렵고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교육 목표와 내용에 따라 평가 내용과 방식 등이 달리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교육하는 내용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져 평가 방식과 유형이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격적인 성취도 평가 연구는 백봉자(1998)와 김유정 외(1999)에 의해 시작되었다. 두 연구는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에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가의 진단 및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효과적인 성취도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백봉자(1998)는 한국어 교육 수준을 알아보고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2급의 평가 체계 및 문항을 점검하고 성취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취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명확한 급별 교수 목표 설정, 적절한 교수요목(syllabus) 설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안 작성, 효율적인 교수법 적용, 교사의 자기 계발,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한 평가 기준 설정을 제안하였다. 또 평가 방법 정립을 위한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실용성을 강조하며 평가 문항의 유형은 영역과 등급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유정 외(1999)는 성취도 평가가 실제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숙달도 지향의 성취도 평가(prochievement test)를 강조한 것이다. 또 이에 적용할 쓰기와 읽기의 평가의 기능 및 요건, 범주, 평가 유형, 채점 등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평가 도구에 대한 연구는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희경 외(2002)에서는 성취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와 한국어능력시험의 비교, 교사 설문 조사, 교

육 목표 점검을 바탕으로 등급별, 영역별 목표와 평가 범주를 제시하며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 최은규(2005)는 교육 현장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울 소재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 4곳의 성취도 평가의 현황 및 영역별 문항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성경(2007)도 성취도 평가 문항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후 박성경·송향근(2008)에서 교육 기관의 성취도 평가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역별 연구에는 말하기가 있다. 강유리(2005)는 말하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별 말하기 평가 실태를 알아보고 의사소통 중심 교수 및 학습을 위한 평가 유형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지현숙(2005)은 구어 능력 평가의 구인을 연구하고자 말하기 평가의 인터뷰 담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의 중요성, 목적에 맞는 구인 설정 등을 언급하며 상호작용 능력 이론(Interaction Competence)을 제시하였다. 강승혜(2005), 전나영(2007), 이진영(2009)도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김성희·오문경(2011)은 외국 대학에서의 말하기 중심의 교육 과정 및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 사용 등을 언급하며 평가를 위한 기준, 자료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특정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에 있는 대학⁵⁾의 성취도 말하기 평가에서 사용할 Can do(Can do statements)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말하기 채점에 대한 연구로는 김경선 외(2010), 이향(2012), 이선영(2013) 등이 있다. 김경선 외(2010)는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초급 말하기 평가 결과를 일반화가능도 이론⁶⁾을 적용하여 신뢰도와 오차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 이향(2012)은 발음 범주의 구인을 선정하여 채점을 통한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선영(2013)은 말하기 평가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적 채점의 평가 범주의 세분화 문제를 다루며 채점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강소산(2015)은 말하기 평가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평가 방식에 대한 인식 및 교사의 평가 효능감⁷⁾을 알아보았다.

5) 독일 베를린 대학교, 보훔 대학교, 체코 찰스 대학교

6) 김성숙(2001)에서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측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오차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여 오차 점수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구분해 준다. 이것은 효율적인 측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7) Tschannen-Moran & Woolfolk-Hoy(2001)는 효능감이란 교사 스스로 올바른 평가를 하

특정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문항에 대한 연구로는 원해영 외(2012), 구민지(2014)가 있다. 원해영 외(2012)에서는 문항의 난이도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하여 둘 사이에 의견차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민지(2014)에서는 교과 내용과 의사소통 능력의 네 가지 범주에 대한 평가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성취도 평가는 숙달도 평가와 연계해 연구되기도 하였다. 방성원(2009)은 숙달도와 성취도의 문법 평가 현황 및 내용, 형식을 분석해 진단을 통한 문법 평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오선영(2014)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체제 개편을 앞두고 숙달도 및 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습자 설문을 실시하여 쓰기 평가를 대비한 학습 방안 개발 및 능력별 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처럼 성취도 평가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평가의 일부만을 공개하는 등 연구 및 분석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성취도 평가와 상대적인 개념인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숙달도 평가는 김하수(1997)의 한국어능력시험의 기본 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평가 체제, 등급 부여 방식, 영역별 연구, 평가 방법, 말하기 평가 도입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항에 대한 것 역시 유형은 물론이고 김유정(2006), 윤인아(2008), 장은아(2014), 함정식 외(2014) 등은 문항의 난이도를 분석하였으며 전은주(2008)는 문항의 타당도를 정진옥(2012)은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도 체제 개선, 영역별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공인된 평가 도구로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용이하며 그 결과가 학교 입학 및 회사 입사와 직결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⁸⁾. 또한 2015년부터는 국적 취득

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자신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8)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을 입학하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성취도 평가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였으나 2010년부터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 요령에 따라 입학 기준을 한국어능력시험 3급으로 하고 있다. 2015년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입학 기준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한국어능력시험의 결과를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현행	개정안(2015.12.09.)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시 면접과 필기시험을 면제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⁹⁾의 일부를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결과의 활용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각 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취도 평가는 현실적인 문제로 공개가 어려워 연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관련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 내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희경(2002)에서도 지적하였듯 성취도 평가는 기관마다 교육 목표, 교과과정이 다르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므로 통일된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교육 대상이 다양하고 교육 기간도 기관마다, 프로그램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관련 연구가 특정 기관의 평가로 국한된 것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취도 평가가 거의 모든 교육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가 학습자의 숙달도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 또 성취도 평가 실시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¹⁰⁾에는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그만큼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효과적인 성취도 평가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 이수 필수
--	--

- 9)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수 시 귀화 시험에서 필기와 면접시험이 면제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2015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1~4급을 취득하면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 10)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출제는 연구진, 평가 위원, 출제 위원, 검토 위원이 정해진 업무를 나눠하지만 성취도 평가는 교사가 평가의 계획부터 문항 출제, 시행,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1.3. 연구 내용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평가 유형 중의 하나인 ‘성취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문항’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는 지필 평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를 대상으로 하며 말하기는 제외한다. 말하기의 경우 문항뿐만 아니라 채점자의 역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며 수행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성취도 평가 지침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문항을 중심으로 한 지필 평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성취도 평가의 역할, 출제의 중요성 등을 살펴 보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때 성취도 평가 연구 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기관별 평가 목표의 상이성(相異性), 문항 출제와 관련한 자료의 부족을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 기준과 교사의 교육 및 출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문항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밝혔다.

〈표1〉 연구의 근거

문제	방안	근거
목표의 상이성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	· 남명호 외(2000)의 설문 조사 결과¹¹⁾ -결과1. 기관의 등급 기술 시 참고 자료 -결과2. 기관의 교육 내용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과 일치 여부 · 2000년 이후 만들어진 기관의 교육 내용과 한국어능력시험 내용 비교
문항 관련 자료 부족	주요 대학의 성취도 평가 문항 분석 결과	· 기관의 출제 및 검토자의 자격 요건 · 기관의 문항 제작 방식

11)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은 등급 기술을 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였다. 기관의 교육 내용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65% 이상이 일치한다고 하였다(매우 일치 2.9%, 일치 62.5%). 이것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초기 결과로 현재의 한국어능력시험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2000년 이후 만들어진 교육 기관의 교육 목표 및 내용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뒷받

둘째,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성취도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어 평가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숙달도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성취도 평가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를 이해하였으며 연구의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였다.

셋째, 연구의 핵심 어휘인 ‘성취도 평가’, ‘지필 평가’, ‘평가 도구’의 개념을 정리하여 연구의 목적 및 결과물 제시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먼저 성취도 평가는 성취도 평가의 정의,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지필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평가 도구로서의 문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도구로서 문항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문항은 어떠한 순서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좋은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항 개발 절차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넷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취도 평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의 대상이 될 기관은 문항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치, 교육 기간, 교재, 등급, 학급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 후에는 각 기관의 평가의 세부 내용, 출제, 운영 등 평가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섯째, 각 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지필 평가 문항을 수집하여 영역별, 유형별로 나눠 분석하였다. 유형의 예는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선택해 최대한 자세히 제시하였다.

여섯째, 분석을 통해 영역별, 유형별로 활용 가능한 문항을 정리하여 교육 현장에서 출제의 지침서로 활용될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참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서울 및 경기도권 교육 기관의 10곳의 교육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기관의 교육 목표 및 내용을 기술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참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몇 기관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목표 및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Ⅱ.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에 대한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성취도 지필 평가의 문항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 어휘인 ‘성취도 평가’, ‘지필 평가’, ‘평가 도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앞서 언어 능력 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일컫는 용어가 평가, 사정, 시험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완기(2012)에서 제시한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assessment)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해석 등의 총칭하는 개념으로 언어 평가는 언어 학습의 성과 측정 및 실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추론이다.

둘째, 사정(evaluation)은 평가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육 목표, 요구 분석, 교수법, 교재, 시험 등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셋째, 시험(test)은 개별 행동의 특정한 표본을 효과적으로 유발해 내기 위해 만든 측정 도구이다. 이것을 명사로 사용할 때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라는 뜻이며 동사로 사용할 때는 정보나 자료의 수집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이와 관련한 것을 ‘평가’라는 말로 통일해 사용할 것이다.

2.1. 성취도 평가

2.1.1. 성취도 평가의 정의

성취도 평가(achievement test)는 교육 과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학습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수업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한다. 다른 평가와의 가장 큰 차이는 명시적인 교수요목(syllabus)이 있다는 것이며 평가의 내용은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제한된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퀴즈, 주간 단위의 요약 및 수시 평가, 중간 및 기말 평가가 여기에 해당된다.¹²⁾ 이 평가는 성취 기준을

- 12) 일반 초중고교의 성취도 평가는 학교 단위로 실시되는 중간, 기말 평가가 있다. 또한 국가 단위로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내에서 실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3년에 한 번씩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성취도 평가는 기관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평가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성취도가 아닌 숙달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 목적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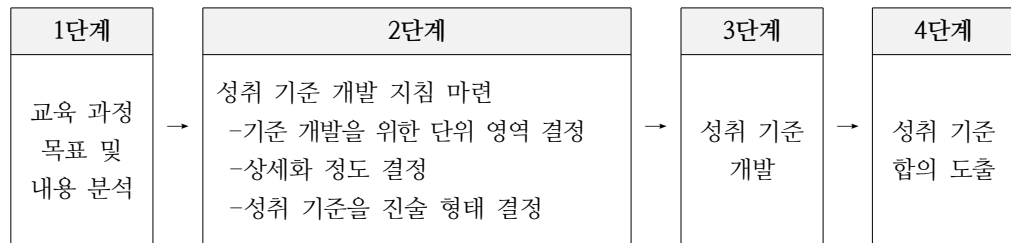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의 예〉

종류	내용
미국의 국가 교육 향상 평가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 Progress)	· 1969년부터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지리 등의 과목에 대해 4, 8,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됨.
영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평가 (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	· 1989년에 국가 교육과정을 도입함과 동시에 평가 체계가 도입되었음. · 7, 11, 14세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점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 공하기 위해 실시됨. · 성취 수준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성취 추이를 분석함.
한국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 1998년부터 매년 6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됨 · 개인별 성취 수준 파악, 기초 학력 보정 및 교육 과정 개선, 학교 향상도 파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함. · 국어, 영어, 수학을 평가하며 성취도 수준은 4단계(우수 학력, 보통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로 나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 3년 단위로 국제비교 연구, 각국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됨.

정해 놓고 학습자가 그 기준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에 따라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성취 기준¹³⁾ 즉, 준거(criterion)는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며 목표 도달 여부가 성취 수준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성취도 평가는 결과를 서열화하여 다른 학생에 비해 얼마나 잘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준거에 도달하였는가에 중점이 있다.¹⁴⁾ 따라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하며 평가 문항은 이러한 학습 목표를 골고루 충분히 잘

Assessment)	·국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만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함. ·순위는 각 국가별로 영역별 평균 점수가 95% 신뢰 수준에서 해당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한 범위임.
-------------	--

13) 성취 기준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된다.



14) Brown(2004)은 준거지향평가와 규준지향평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characteristic	norm-referenced test	criterion-referenced test
Type of Interpretation	Relative(A student's Performance is compared to those of all other students in percentile terms.)	Absolute(A student's performance is compared only to the amount, or percentage, of material learned)
Type of Measurement	To measure general language abilities	To measure specific objectives
Purpose of Testing	Spread students out along a continuum of general abilities	Assess the amount of material known, or learned, by each student
Distribution of Scores	Normal distribution of scores	Varies, usually nonnormal(students who know all of the material should all score 100%)
Test Structure	A few relatively long subtests with a variety of question contents	A series of short, well-defined subtests with similar question contents
Knowledge of Question	Student have little or no idea what content to expect in questions	Student know exactly what content to expect in test questions

다루어야 한다.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취도 평가를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평가 방법에 따른 성취도 평가

표현 능력 평가(production test)	이해 능력 평가(recognition)
직접 평가(direct test)	간접 평가(indirect test)
통합 평가(integrative test)	분리 평가(discrete point test)
주관식 평가(subject tests)	객관식 평가(objective test)
형성 평가(formative test)	총괄 평가(summative test)
준거지향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	규준지향평가(Norm-referenced test)
속도 평가(speed test)	역량평가(power test)

한국어 성취도 평가는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표현 능력을, 듣기와 읽기를 통해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 표현과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고 있다. 표현 능력의 경우 인터뷰, 발표, 작문 등을 통한 직접 평가 및 통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관식 문항으로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하는 주관식 평가로 진행된다. 이와 반대로 이해 영역의 경우 선다형, 진위형과 같은 객관식 문항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객관식의 경우 이미 만들어진 정답지가 있어 그에 비추어 채점을 하게 되므로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다. 즉, 객관식 문항을 포함한 분리 평가¹⁵⁾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성취도 평가는 학습 단계에서 실시하여 학습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형성 평가와 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총괄 평가가 모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퀴즈, 수시 및 요약, 중간 평가¹⁶⁾는 학습 중간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능력을 측정하여 이를 다음 교수 활동을 계획하고 수정할 때

15) 분리 평가가 항상 객관식 문항은 아니다. 분리 평가는 과제(task)가 분리적인 언어 지식을 측정하고 있는가, 대답이 분리적인 응답(discrete point response)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16) 중간 평가의 경우 학습의 중간이 아닌 정해진 일정 단계에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말 평가와 같이 총괄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용하므로 형성 평가에 해당하며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해진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기말 평가는 총괄 평가에 해당한다.¹⁷⁾ 이 평가는 성취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였는가에 따라 성취 여부가 결정하는 절대 평가이다. 또 영역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속도 평가에, 문항별로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역량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¹⁸⁾ 이렇듯 성취도 평가는 성취 기준을 정해 놓은 절대 평가 방법을 제외하고는 구분되는 두 개의 평가 방법을 양자택일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김유정 외(1998)에서는 이러한 성취도 평가의 기능을 학습 결과의 진단, 교육 과정과 교수법 개선, 학습자 동기 유발을 통한 자신감 부여로 정리하였다. 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과 과정 목표, 교수 방법 등을 개선하게 되는 수업 파급 효과(washback)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평가 문항을 통해 수업 목표를 인식하게 되면 수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받을 수 있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 평가가 의사소통 중심의 접근법으로 실시된다면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와 같은 지식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Hymes(1972)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언어의 사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김영아(1996)에서도 ‘의사소통 성취 시험’을 언급하였으며 원해영 외(2012)에서도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제적 언어 사용 능력을 이야기하며 성취도 평가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립된 어휘나 문법 단위에 대한 지식의 평가보다는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 문맥과 실제 자료를 사용해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을 Canale(1985)은 'Proficiency-oriented

17) 이완기(2012)는 형성 평가는 학습을 위한 학습자와 교사(assessment for learning)를 위한 평가이고 총괄 평가는 학습의 자체(assessment of learning) 학습 결과에 초점을 둔 평가라고 하였다.

18) 속도 평가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문항을 풀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간이 충분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역량 평가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풀 수 없는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두 평가에서 핵심 어휘인 ‘시간’과 ‘문항의 난이도’ 측면만을 고려하여 이 둘의 중간 단계로 보았다.

achievement'라고 하였으며 이 평가가 갖는 성격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배운 것을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수행을 위한 훈련을 통해 전이가 된다.

둘째, 형태(form)뿐만 아니라 메시지(message)와 기능(function)에 초점이 있다.

셋째, 개인적 활동뿐만 아니라 그룹 활동도 있다.

넷째, 수험자들은 각 언어 지식 층위에서 고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성에 치중하지 않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가 학습한 것과 비슷할수록 수험자는 평가에 더 잘 관련될 수 있다.¹⁹⁾

숙달도 평가는 등급별 목표를 정하고 이것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반면에 성취도 평가는 기관마다 목표와 교과 내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숙달도 지향의 성취도 평가는 이 둘을 모두 고려하여 교육 목표에 따라 학습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야 하며 이것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 즉, 의사소통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언어의 지식과 사용 능력이 모두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등급별 평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닌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배운 것이 다음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⁰⁾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같다. 따라서 교재 개발과 교수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취도 평가도 수험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19) 김유정 외(1998:7).

20) 익숙한 소재와 주제로 학습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임경순(2005)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시 익숙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은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2.1.2 의사소통 능력과 평가

2.1.2.1. 의사소통 능력

위에서 언급하였듯 성취도 평가는 의사소통 능력 안에서 측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어 평가는 수험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능력은 해당 언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에 각 교육 기관에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정하여 교재를 구성하고 교수, 평가한다. 교육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은 Hymes(1972)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초기에 언어 능력은 다른 차원의 하위 요소로 보았으나 Chomsky(1965)로 인해 단일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여겨졌다. 그러다가 Hymes 이후 단일 요인이 아닌 다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신 다수 요인설’이 주장되어 현재에는 지배적인 견해로 인정되고 있다.

Chomsky(1965)는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과 언어 수행(language performance)을 구별하였다. 언어 능력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며 언어 수행은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생산과 이해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주 불완전하다고 하였다. 이에 언어 수행보다는 언어 능력을 초점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Campbell & Wales(1970)와 Hymes(1972)는 이러한 Chomsky의 주장을 비판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하였다.

Hymes(1972)는 의사소통 능력은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상호간의 의미를 타협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법적인 규칙만으로는 언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Chomsky의 문법적 능력을 심리 언어학적, 사회 문화적, 개연성 등의 상호 작용 능력으로 개념을 확대하였다. 언어적 요소와 사회 언어학적 요소를 함께 인식하고 언어 지식(knowledge)보다는 언어의 사용(ability of use)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요소는

이후 학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논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항목이다.

Canale & Swain(1980)은 이러한 사회 언어학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문법적 능력과 사회 언어학적 능력이 관련 이론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에 문법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하여 이론을 정립하였다.

Bachman(1991)은 보편적으로 사람에게는 의사소통 언어 능력(communucative language ability)이 있고 이것은 언어 지식을 의미하는 언어 능력,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 물리적으로 언어 사용에 관여하는 생리학적 기제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 하위 요소로 언어 능력에는 언어 조직 능력과 화용적 능력이, 언어 조직에는 문법적 능력과 텍스트 구성 능력이, 화용적 능력에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과 발화 수반 능력²¹⁾이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Hymes(1972)의 의사소통 능력 모델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장되고 정교화 되었다.

본고에서는 Canale & Swain의 구성 개념을 따라 의사소통 능력을 정의하였다. Bachman의 개념이 더 정교하나 기본 개념은 Canale & Swain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소통 능력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강승혜 외(2006)에서는 Canale & Swain의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제시하였다.

21) 예를 들어 ‘토요일이 제 생일인데 시간 있어요?’는 단순 질문이 아니라 ‘초대’의 의미를 가진다.

〈표3〉 Canale & Swain의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어휘에 대한 지식과 형태론적(어근, 어미, 형태소, 단어, 품사 등) 통사론적(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문장 성분), 의미론적(sentence-grammar semantics), 음운론적 규칙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말한다. 즉, 어휘, 발음, 규칙, 철자법, 단어 형성 문장 구조 등의 언어학적 기호를 정확히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담화적 능력 (discourse competence)	여러 측면으로 문법적 능력을 보충해 주는 능력이다. 형태적인 응집성과 내용상의 일관성을 이루기 위해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능력이다. 문법적 능력이 문장 단위의 문법을 다루는 것이라면 담화적 능력은 문장 사이의 상호 관계와 연관된 것이다.
전략적 능력 (strategic competence)	언어 수행상의 변인이나 불완전한 언어 능력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이다. 의역하기, 우회적 화법, 반복, 머뭇거림, 회피, 추측 등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e)	언어와 담화의 사회 문화적 규칙에 관한 지식으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사회적 상황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다.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위의 네 가지 능력은 성취도 평가의 모든 영역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담화와 관련한 능력은 〈표4〉와 같이 표현 영역이나 이해 영역이나에 따라 용어를 달리해야 한다. 표현 영역은 담화 구성 능력으로 이해 영역은 담화 이해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담화 구성 능력의 경우 평가 방법에 따라 내용을 세분화하여 글 구성 능력과 대화 구성 능력으로 용어를 달리할 수 있다.

〈표4〉 담화적 능력의 용어 수정

영역		용어	기타
표현 영역	말하기	담화 구성 능력	글 구성 능력 대화 구성 능력
	어휘·문법		
	쓰기		
이해 영역	듣기	담화 이해 능력	
	읽기		

위의 내용을 반영한 영역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영역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 구성		담화 이해		
			글	대화			
말 하 기	낭독	○					
	질문과 대답	○		○		○	○
	역할극	○		○		○	○
	발표	○	○			○	○
어휘·문법		○	○	○		○	○
쓰기		○	○	○		○	○
듣기		○			○	○	○
읽기		○			○	○	○

이 중 지필 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이다. 이것의 영역별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은 강승혜 외(2006)에서 제시한 영역별 구성 요소이다. 말하기를 삭제하고 어휘·문법을 추가하였다.

출제자는 다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표6〉 구성 요소의 세부 내용

영역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구성, 이해)	전략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어휘 · 문법	어휘, 문법, 표현의 적절한 사용 능력 어휘, 문법, 표현의 활용 능력 어휘, 문법, 표현의 의미 파악 능력	문장, 대화에서 내용의 연관성 및 긴밀성 유지 능력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 활용 능력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어법 사용 능력
쓰기	맞춤법의 정확성 어휘, 문법, 표현의 적절한 사용 능력 어휘, 문법, 표현의 활용 능력	문장, 대화에서 내용의 연관성 및 긴밀성 유지 능력 글의 유형에 따른 내용 조직 능력 수사적 능력 특수 담화 장치의 적절한 활용 능력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 활용 능력	경어법의 사용 능력 사회 문화적 기능 의 활용 능력
듣기	음운 식별 능력 발음 규칙에 대한 이해 능력 문법적 형태와 통 사적 장치에 대한 이해 능력 어휘, 문법, 표현의 의미 이해 능력 어휘, 문법, 표현의 사용 이해 능력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능력	접속어 사용을 통한 문맥의 의미 이해 능력 인용문, 생략, 도 치문 이해 능력 담화 상황, 주제, 기능 이해 능력 중심 생각, 예시, 가정 등을 이해하 는 능력	대상에 대한 지식 정보 활용 능력 추론 및 유추 능력	높임법 체계에 대한 이해 능력 휴지나 억양 등에 대한 이해 능력 특수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 문화적 내용 및 의사소통의 기능에 대한 이해 능력
읽기	철자의 정확성 문법 규칙에 대한 이해 능력	담화 표지에 대한 이해 능력 문장 간의 관계	유추 및 추론을 통한 텍스트 이해 능력	문장 종결형의 기능에 대한 이해 능력

	어휘의 쓰임에 대한 이해 능력 문맥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파악 능력 담화 구성 방법과 전개에 대한 이해 능력 맥락에 대한 이해 능력 주제, 기능, 전체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	경험 및 배경 지식 활용 능력	높임법 체계에 대한 이해 능력 상황과 기능에 대한 이해 능력 텍스트 유형에 대한 능력
--	--	---	------------------	---

2.1.2.2. 의사소통 능력 평가

Wesche(1981), Canale(1985), Bachman(1991)은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한 평가는 과제 중심이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 기능이 평가된다고 하였다.

〈표7〉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특징

학자	특징
Wesche(1981)	다양한 언어 기능 평가 신뢰성, 실용성을 고려한 평가 표준 지향적 평가
Canale(1985)	과제 중심의 평가 문항의 진정성(authenticity) 학습과 연계된 평가
Bachman(1991)	정보차(information gap) 평가 과제 중심의 평가 과제와 내용의 통합 평가 다양한 언어 능력 평가

이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기반의 성취도 평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첫째, 배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
- 둘째,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
- 셋째, 다양한 언어 능력을 평가 한다.
- 넷째, 개별 능력이 아닌 통합 평가를 한다.
- 다섯째, (언어의 사용, 의미가 아닌) 기능에 초점을 둔다.
- 여섯째, 상황(언어적인 상황, 담화적인 상황, 사회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묻고 답한다.
- 일곱째, 대표성을 가진 표본으로 구성한다.
- 여덟째, 과제의 실제성(authenticity of tasks)과 텍스트의 진정성(genuineness of texts)을 함께 고려한다.
- 아홉째, 단순 암기가 아닌 수험자의 과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2.2. 지필 평가

한국어 성취도 평가는 말하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지필 평가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2.2.에서는 지필 평가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2.1. 지필 평가의 정의

지필 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종이에 인쇄하여 펜이나 연필로 답을 쓰게 하는 평가 방식이다.

수험자는 주어진 평가 문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것이 아닌 종이에 써서 표현하게 된다. 이때 종이에 쓴다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쓰여 있는 것을 읽고

답을 고르거나 직접 답을 쓰는 것까지를 포함한 평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쓰기 활동을 의미한다.

‘지필’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 시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교육학에서는 심리 검사의 한 유형을 ‘지필 검사’라고 부르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때의 지필 검사는 도구 검사(apparatus test)와 상대되는 말로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문항에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종지와 연필만 있으면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것을 ‘지필 검사’라고 불렀다. 이것이 학교의 평가 상황에서 쓰이면서 ‘지필 평가’²²⁾라는 말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실시되었다. 과거(過去)에 관리를 채용하고자 실시하였던 과거(科擧)시험²³⁾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주어진 시제(試題)에 대해 붓으로 종지에 글을 짓거나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방식²⁴⁾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교육 기관인 서당에서는 배운 것을 소리 내어 읽거나 말하기를 통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科擧)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동일한 형태의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교육 중에는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훈장(訓長)의 물음에 대한 답을 종지에 쓰게 하는 지필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렇듯 지필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종지와 펜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이러한 지필 평가는 컴퓨터로도 실시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운전면허의 필기시험이다. 이 시험은 정해진 장소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수험자가 문항을 읽고 화면에 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 역시 지필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평가의 환경이 바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두(口頭)로 진행되는 평가를 제외한 모든 평가를 ‘지필 평가’라고 보았다. 즉, 지필 평가란 구두(口頭)가 아닌 형태로 진행되는 평가를 뜻한다. 이러한 지필 평가는 학교 평가에 적극 활용되며 문항에도 변화가 있었다. 평가의 목적, 상

22) 지필 평가는 수행 평가의 상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23) 과거(科擧)는 시험 과목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거용한다는 뜻으로 신라 원성왕 4년(788년)에 실시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시초이다.

24) 올바른 신하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호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하라, 교학(敎學)을 갖추고 밝혀서 인재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등 주어진 주제에 대해 쓰도록 하였다.

황,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어진 문제에 대해 서술하게 하는 하나의 유형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2.2. 지필 평가 문항

지필 평가 문항은 크게 서답형(supply type)과 선택형(selection type)으로 나뉜다. 이것은 문항에 대해 수험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다른 말로는 자유반응유형(free answer-type), 구조반응유형(structured answer-type)이라고 한다.

서답형이란 주어진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 답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작성은 어휘 단위 이상의 것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의 답을 보기에서 골라 단순히 번호를 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답형은 질문 및 작성한 답의 구성 형태에 따라 단답형(short answer type), 완결형(completion type), 논술형(essay type)으로 나뉜다.

첫째, 단답형은 어휘나 문장 및 기호 등의 비교적 간단하고 제한된 형태의 답을 수험자가 직접 답안에 쓰게 하는 것으로 단순 재생형(simply recall)이라고도 한다.

둘째, 완결형은 한 문장 또는 여러 문장을 나열한 뒤 여백을 두고 적합한 단어나 구를 쓰게 하는 형식이다. 이때 여백은 괄호, 빈칸, 상자, 밑줄 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문장 혹은 문단의 중요한 부분을 비워 놓고 평가하는 것으로 여백 혹은 빈칸 채우기(fill-in-the back)라고도 한다. 이때 여백을 문장의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성형과 괄호형으로 나뉜다. 완성형은 질문의 답을 위해 문장의 끝에 여백을 두어 문장을 완결하는 것을 말한다. Taylor(1973)는 이 완성형 문항을 활용해 독해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여백을 문장의 중간에 두어 앞뒤 문맥을 파악하도록 하는 괄호형을 만들었다. 이 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1〉 완성형의 예²⁵⁾

※ 그림을 보고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

〈자료2〉 괄호형의 예²⁶⁾

다음 글을 읽고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는 행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과 분명하게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반면에 상대방과 ()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무엇인가를 숨기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다. 적절한 눈 맞춤은 대화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셋째, 논술형 문항은 질문 혹은 지시에 따라 수험자의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를 위해 사용된 최초의 문항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수험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하는 것으로 주로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구성하여 글을 쓰게 된다. 이것은 정답의 범위에 따라 제한 반응 논술형(restricted response essay type)과 확장 반응 논술형(extended response essay type)으로 나뉜다. 제한 반응 문항은 필수 어휘 및 문법 등을 제시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지시문을 통

25) 28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쓰기 41번.

26) 24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쓰기 43번.

해 내용 및 문장 수 등을 제한하나 확대 반응 문항은 사용하는 어휘 및 문법, 내용, 길이 등을 수험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쓰게 한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쓰기의 논술형은 과제의 범위 및 글자 수를 제한한 제한 반응 논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가 단위로 치러지는 대규모의 평가로써 학습자들의 평가 준비 및 평가 이후의 채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3>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논술형 문항이다. 이것은 중급 문항으로 표를 제시하여 과제의 범위를 ‘1인 가구 증가의 원인과 현황’으로 제한하였으며 글자 수는 300자 내외로 쓰도록 하고 있다. <자료4>는 고급 문항으로 주제를 짧은 서술문으로 제시하고 ‘동기’가 일에 시작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700자로 쓰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료3〉 제한 반응 논술형의 예①²⁷⁾

※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1인 가구 증가의 원인과 현황을 설명하는 글을 200~300자로 쓰십시오.

1인 가구 증가의 원인	1인 가구의 현황
1 결혼관의 변화와 독신의 증가 2 노인 인구 증가 3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 2000년 전체 가구 수의 16% ↓ ● 2012년 전체 가구 수의 26%

27) 41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쓰기 53번.

〈자료4〉 제한 반응 논술형의 예②²⁸⁾

※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 ~ 700자로 글을 쓰십시오.

우리가 공부나 일을 할 때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더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는 흥미, 만족감, 자부심과 같은 내적 동기도 있고 칭찬이나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도 있습니다. ‘동기가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 동기는 일의 시작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 동기가 일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서답형 문항은 수험자가 물음이나 지시에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분석력, 비판력, 조직력, 종합력, 문제 해결력 등의 고등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평가를 치르는 학생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문항 제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Hart(1994)는 서답형 평가의 결과는 채점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⁹⁾ 이에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는 대단위 검사가 가능하고 채점의 객관성이 보장된 표준화된 시험의 일종인 MCQ(Multiple Choice Question)가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다.

선택형은 물음의 정답을 제시한 것 중에서 골라 쓰는 것을 말한다. 서답형의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선택형 문항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1945년 광복 이후이다. 미군정기 때 집단용 지능검사가 실시되며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이다. 이 집단용 지능 검사는 선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후 선택형의 선다형, 연결형, 진위형, 배열형 문항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선다형은 제시된 보기 중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쓰는 것이다. 이때 답

28) 41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쓰기 54번

29) 1900년 미국의 한 학교에서 하나의 기하학 평가의 답안을 116명의 교사에게 채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8점에서 92점까지 점수 폭이 컸으며, 2개월 후 교사에게 동일한 답안을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1, 2차 점수가 달랐다.

은 답지에 부여된 번호로 쓰게 된다. 이 선다형은 선택형 유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선다형 문항은 질문 방법에 따라 정답형, 최선답형, 다답형, 합당형, 불완전 문장형, 부정형으로 나뉜다. 정답형은 <자료5>와 같이 질문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며 최선답형은 <자료6>과 같이 여러 답지 중에서 ‘가장 알맞은 답’, ‘정답의 정도가 가장 큰 답’을 고르는 것이다. 이 문항은 가능한 것으로 오답항을 구성하여 수험자에게 혼동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므로 정답형보다 난이도가 높다.

〈자료5〉 정답형의 예³⁰⁾

※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는데 이 세포는 매우 작아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 세포가 이렇게 작은 크기로 존재하는 것은 세포의 사멸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세포가 주먹만큼 크다면 우리 신체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세포 하나가 죽을 경우 주먹만 한 부위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럴 경우 세포 한두 개를 잃는 것만으로도 생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① 세포 크기와 세포의 생존은 상관관계가 없다.
- ②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강하다.
- ③ 세포를 한두 개 잃는 것으로도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다.
- ④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은 생물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0) 2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읽기 42번.

〈자료6〉 최선다형의 예³¹⁾

※ 다음을 읽고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상품의 가격이 20,000원이 아니라 19,900원 혹은 19,000원으로 제시하면 단지 백 원, 천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소비자들은 20,000원짜리에 비해 많이 싸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숫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숫자를 볼 때 좌측에 놓인 숫자에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 20,000원짜리 상품이 19,000원으로 바뀌면 천 원의 차이가 아니라 첫 자리인 만 원의 변화로 인식해 마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 ① 왼쪽 자리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 ② 반복되는 숫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 ③ 끊임없이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
- ④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변화에 집중하는

다답형은 답이 되는 것을 여러 개 고르는 형식이다. 이 경우 질문에서 ‘모두 고르십시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모두’에 볼드체로 진하게 하거나 밑줄을 그어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선다형이므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서 썼을 때 정답으로 인정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합당형이 있다. 맞는 것을 모두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 다답형과 같지만 합당형은 제시된 보기에 그 답이 이미 합해져 있다. 수험자는 합해져 제시된 보기 중에서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골라서 쓰면 된다. 다시 말해 다답형은 수험자가 맞는 것을 모두 골라 여러 개의 번호를 써야 하지만 합당형은 답의 번호를 하나만 쓰면 된다. 동일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시문을 어떻게 제작하느냐, 수험자가 써야 하는 답의 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다답형과 합당형이 될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자료7〉과 〈자료8〉의 예를 통해 다답형과 합당형 문항의 차이를 알 수 있다.

31) 2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읽기 45번.

〈자료7〉 다답형의 예

저는 토요일에 서울타워에 갔습니다. 아직 서울 지리를 잘 모르지만 서울타워까지 쉽게 갔습니다. 먼저 동서울터미널 강변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갔습니다. 신당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내 방송을 잘 들었습니다. 안내 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타워 앞에서 내렸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서울타워까지 50분쯤 걸렸습니다. 서울 타워를 구경한 후에는 청계천에 갔습니다. 다음주에는 KTX나 고속버스로 부산에 갈 겁니다. 휴가에는 제주도에도 가고 싶습니다.

※ 이 사람은 주말에 어디에 갔습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 | | |
|-------|--------|
| ① 부산 | ② 제주도 |
| ③ 청계천 | ④ 서울타워 |

〈자료8〉 합당형의 예

저는 토요일에 서울타워에 갔습니다. 아직 서울 지리를 잘 모르지만 서울타워까지 쉽게 갔습니다. 먼저 동서울터미널 강변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갔습니다. 신당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내 방송을 잘 들었습니다. 안내 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타워 앞에서 내렸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서울타워까지 50분쯤 걸렸습니다. 서울 타워를 구경한 후에는 청계천에 갔습니다. 다음주에는 KTX나 고속버스로 부산에 갈 겁니다. 휴가에는 제주도에도 가고 싶습니다.

※ 이 사람은 주말에 어디에 갔습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 | | | | |
|------|-------|-------|--------|
| ㉠ 부산 | ㉡ 제주도 | ㉢ 청계천 | ㉣ 서울타워 |
|------|-------|-------|--------|

- | | |
|--------|-----------|
| ① ㉠ | ② ㉠, ㉡ |
| ③ ㉡, ㉢ | ④ ㉠, ㉢, ㉣ |

불안전한 문장형은 서답형의 완결형을 선다형 형식으로 바꾼 유형이다. 서답형의 완결형의 경우 문장의 주요 부분에 여백을 두고 수험자가 직접 써야 하나 선택형의 불안전한 문장형은 여백에 들어갈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고르면 된다. 앞에서 서답형의 완성형의 예로 제시한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쓰기의 41번 서답형을 선택형의 불안전 문장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자료9〉 불안전한 문장형의 예

※ 그림을 보고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책을 ().

- ① 읽습니다 ② 읽었습니다 ③ 읽어 줍니다 ④ 읽고 싶습니다

부정형은 제시된 답지 중에서 다른, 틀린, 아닌 것을 고르는 유형이다. 이때 부정 표현인 다음과 같이 다른, 틀린, 아닌은 볼드체로 진하게 하고 밑줄을 그어 수험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10〉 부정형 지시문의 예

위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틀린 문장을 고르십시오.

밑줄 친 부분을 **잘못** 바꿔 쓴 것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이 주말에 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선다형은 위와 같이 지시문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유형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난이도는 오답항을 단순하게 제작하느냐 복합적으로 제작

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전자는 단순기억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후자는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된다. <자료11>의 29번은 화자의 직업을 묻는 것으로 답지가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30번은 들은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하기로 말한 내용을 조합한 문장이 제시되고 있다. 답지의 난이도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자료11〉 답지 구성의 예³²⁾

※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9. 남자는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 | | |
|----------|-----------|
| ① 동양화가 | ② 전통 공예가 |
| ③ 나무 조각가 | ④ 전시회 기획자 |

30.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남자는 실용성보다 예술성을 강조한다.
- ② 한지의 색은 빛에 의해서 다양하게 연출된다.
- ③ 남자가 만든 조각품에 외국인들이 폭 빠져있다.
- ④ 한지의 색깔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선택형의 두 번째 유형인 진위형은 글을 읽거나 듣고 제시된 문장에 대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응답하는 문항이다. 이때 응답은 예, 아니오나 <자료12>와 같이 O, X로 쓰게 한다. 혹은 O, X를 주고 표시하게 한다. 제작이 용이하고

32) 35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듣기 29~30번.

〈대본〉

여자: 선생님, 이번 해외 전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남자: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의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전통 갓 좀 보세요. 10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시 조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지로는 화장대, 서랍장 같은 실용적인 물건부터 아름다운 장식품까지 못 만드는 물건이 없어요. 제 전시회에 오셔서 한지로 만든 서랍장에 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채점이 편리하여 선택형 유형 중 선다형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항이다.

〈자료12〉 진위형의 예³³⁾

※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저는 오늘 명동에 가요. 명동에는 백화점이 있어요. 저는 백화점 앞에서 친구를 만나요. 친구와 저는 백화점에서 구경을 해요. 그리고 옷을 사요.

명동에는 식당과 극장이 있어요. 저는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어요. 식당 옆에 극장이 있어요. 친구와 저는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봐요.

- | | |
|------------------------|------------|
| 1. 명동에서 친구를 만나요. | () |
| 2. 친구는 쇼핑을 안 해요. | () |
| 3. 식당은 극장 옆에 있어요. | () |
| 4. 친구와 나는 명동에서 영화를 봐요. | () |

연결형은 문제군과 답지군을 구성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답지군에서 찾아 연결하는 문항으로 줄긋기형이라고 한다. 이때 문제와 답지는 그림, 어휘, 어구, 문장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문제군과 답지군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을 통해 내용의 연관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형은 문항 형태에 따라 단순 연결형(simple matching type), 복합 연결형(compound matching type), 분류 연결형(classification matching type), 관계 분석형(relation analysis type), 관계 분류형(both-neither classification type), 공변 관계형(variation relationship type)이 있다. 다음은 문제군과 답지군을 구성하여 실제 연결형의 문항을 제작한 예이다.

33) 서울대 한국어 1A workbook.

〈자료13〉 연결형의 예³⁴⁾

문제군	답지군
축구, 게임, 농구	하다
테니스, 피아노, 기타	치다
스키, 자전거, 스케이트	타다

※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1. 축구, 게임, 농구	•	• ① 타다
2. 테니스, 피아노, 기타	•	• ② 하다
3. 스키, 자전거, 스케이트	•	• ③ 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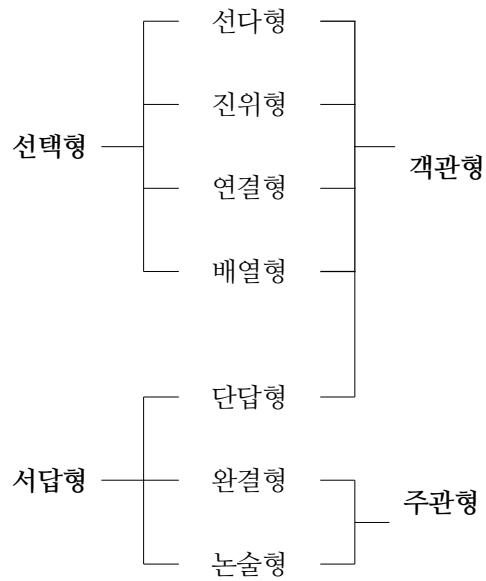
배열형은 제시된 문장을 배열하여 문단을 구성하거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다. 이때 답은 제시된 숫자나 기호로 쓸 수도 있고 제시된 어휘와 문장을 직접 쓰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순서대로 답이 배열된 것 중 고르는 문항이라면 그것은 선다형에 속한다. 배열형은 논리력, 분석력 등을 측정하기에 유용한 유형이다.

이와 같은 선택형은 현재 학교 평가 및 국가고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필 평가의 유형은 수험자의 반응에 따라 위에서 정리한 서답형과 선택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는 다시 채점 방식에 따라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객관형과 주관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유형이 서답형의 경우 주관형으로 선택형의 경우 객관형으로 나뉘지만, 단답형 경우 수험자가 답을 어휘 단위 이상으로 직접 써야 한다는 점에서 서답형에 포함되나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채점자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형에 포함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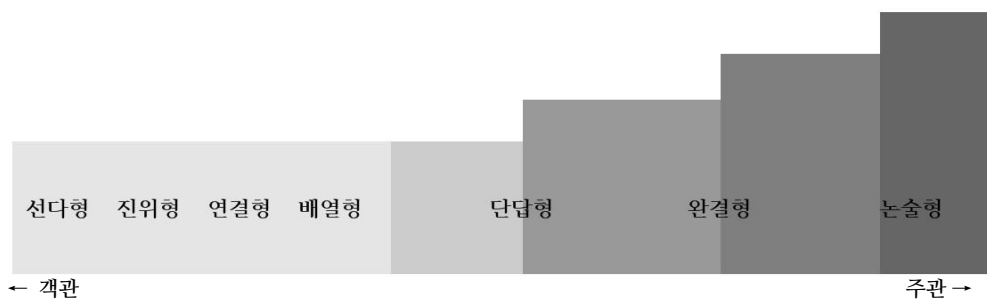
34) 서울대 한국어 1A workbook.

〈표8〉 지필 평가 문항의 형태



각 유형의 평가자의 주관 개입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문항 형태별 평가자의 주관 개입 정도



2.3. 평가 도구로서의 문항

성취도 평가는 수험자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적극적인 기능을 가진다. 잘 만들어진 평가 도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가 도구는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 도구는 넓게는 면접법이나 관찰법 등 측정 방법이나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의 시행 절차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좁게는 시험지 또는 평가 문항 등과 같은 측정 도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협의적 의미로 보아 시험 지어를 구성하는 문항 즉, ‘평가 문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3.1. 문항의 정의

MU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Steven Osterline은 문항(item)을 학업 성취, 능력, 성향 등과 같은 구인을 추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측정 단위 혹은 채점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문항을 시험 문제라고 부른다. 이에 문항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표9〉 문항(問項)의 의미

사전 종류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제의 항목
국어대사전	문제나 질문의 항목
한국어대사전	서면상의 시험이나 설문 등에서 하나하나의 문제
daum 국어사전	서면상의 시험이나 설문 등에서 하나하나의 문제
naver 국어사전	문제의 항목

〈표10〉 문제(問題)의 의미

사전 종류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국어대사전	해답을 필요로 하는 물음
한국어대사전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daum 국어사전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naver 국어사전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위에서 보듯이 문항과 문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가 성취도 평가의 지필 평가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서면상의 시험 문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항’이라는 말로 통일해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서면’은 ‘지면(紙面)’으로 종이의 표면을 가리키나 2.2.1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필 평가는 종이뿐만 아니라 컴퓨터로도 가능하므로 컴퓨터의 ‘화면’도 그 의미에 포함시킨다.

2.3.2. 문항의 요건

평가 도구로서의 문항은 평가의 목적에 맞아야 하며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를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항은 평가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2.3.2.에서는 각 요건의 정의 및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2.3.2.1. 타당도

타당도(validity)란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하였는가 즉, 평가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Underhill(1987)은 평가 도구는 원천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상황 즉, 목적에 맞는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말한 것이다. 이러한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예측 타당도, 공인 타당도, 안면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다.

1)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평가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내용의 대표성과 포괄성이 내용 타당도의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출제 범위 안에서 대표성을 지닌(content relevance) 내용을 선정하여 평가에 포괄적(content coverage)으로 반영해야 한다.

2) 안면 타당도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는 겉으로 보았을 때 평가답게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 이때 평가의 내용도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내용 타당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안면 타당도에는 내용 이외에 지시문, 문항 형태 등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표성을 가진 내용이라도 익숙한 4지 선다형이 아닌 출제의 편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불규칙적으로 3지, 5지 선다형이 등장한다면 안면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3) 예측 타당도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는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른 준거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평가 결과를 통해 수험자가 앞으로 할 특정한 일이나 활동 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를 예측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입학 결정하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치른 성취도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입학 시험은 평가 목적에 대한 예측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공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타당도를 검증받은 평가 도구 A와 그렇지 않은 평가 도구 B를 비교하여 나타난 상관관계를 말한다.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두 평가의 목적이 비슷하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인 받지 못한 평가 도구 B의 타당도가 A와 같이 높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구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타당한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평가 목적에 맞는 구인(構因)과 관련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문항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역할극(役割劇, role paly)을 통해 말하기의 발음의 정확성과 억양의 자연스러움을 주요 구인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할극³⁵⁾은 주어진 과제 즉,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하며 발음과 억양은 평가 구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³⁶⁾ 이것은 소리 내어 읽기인 낭독(read aloud)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35) 역할극은 수험자가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실생활처럼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다.

36) 허유경(2016)에서는 역할극의 평가 구인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개로 보았다. 역할극의 과제는 ‘가게에서 물건 사기’, ‘전화로 약속 변경하기’ 등의 기능으로 주어지므로 이와 관련한 구인을 기능 수행이라 하였다. 이는 독백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주제 말하기의 과제와 구분된다. 다음의 구인은 비중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전달 능력을 제외한 다른 구인은 기능 수행에 종속하여 평가된다. 수행에서 ‘상’을 받은 학생만이 대화 구성, 언어 사용에서 ‘상’의 구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발음, 억양 등을 평가하는 전달 능력은 역할극의 기능 수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미 낭독에서 주요 구인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단독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인	세부 내용
기능 수행	기능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구인이다.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교사의 돌발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한다.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기능 수행 중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한다.)
대화 구성 및 지속	대화의 구성과 지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인이다. 대화를 일관성 있고 자연스럽게 구성하는지를 평가한다.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할극에서 발음과 억양 등을 주요 구인으로 삼는 것은 이론적 바탕이 부족한 것으로 이는 곧 구인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2.3.2.2. 신뢰도

Brown(2001)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는 일관되고(consistent) 의존할(dependable)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평가의 과정과 방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결과가 객관적이어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평가의 신뢰도(reliability)는 다음과 같이 평가 자체 신뢰도와 채점자 신뢰도로 결정된다.

1) 평가 자체 신뢰도

평가 자체 신뢰도(test reliability)는 평가 도구가 가지는 신뢰도로 동일한 평가를 반복하였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말한다. 이때 ‘동일하다’에는 평가의 도구뿐만 아니라 평가의 환경도 포함된다. 복사의 선명도, 듣기 음향의 크기, 교실 조명의 밝기, 기타 소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평가를 반복했을 때 수험자의 점수나 순위가 바뀌지 않거나 변동이 적다면 그 평가는 신뢰도가 높다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평가한다. (기능 수행을 위한 교사의 개입 여부의 횟수로 평가한다.)	
언어 사용	다양성	기능에 필요한 어휘, 문법, 표현 등을 사용하는지를 평가한다.
	정확성	다양성에서 평가한 어휘, 문법, 표현 등의 오류가 없는지를 평가한다.
전달 능력	구어에서 의사 전달 능력을 평가하는 구인이다. 발음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평가한다. 억양과 톤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한다. 전달에 방해가 주는 휴지, 간투사를 평가한다.	

고 할 수 있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문항의 수,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등을 들 수 있다.

2) 채점자 신뢰도

채점자 신뢰도(marker reliability)는 채점의 일관성(一貫性)과 일정성(一定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점자내 신뢰도(intra-marker reliability)가 있고 채점자간 신뢰도(inter-marker reliability)가 있다.

채점자내 신뢰도는 채점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채점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채점자에게 하나의 시험지³⁷⁾를 일정 간격을 두고 다시 채점하게 하여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시 점수의 차이는 적다. 즉, 차이가 적을수록 그 채점자가 한 채점 결과의 신뢰도는 높다. 반면에 채점자간 신뢰도는 여러 명의 채점자가 동일한 시험지를 어떻게 채점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시험지를 여러 명에게 채점하게 하여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채점자들이 준 점수의 정도를 통해 점수의 일정한 범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채점자내, 채점자간 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준에 대한 충분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채점자 역할의 중요성은 채점자 훈련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2.3.2.3. 실용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 도구는 평가를 시행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평가 시행에 필요한 시간, 인력, 경비,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용도(practicality)이다.

좋은 평가 도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듣기 문항을 출제하여 좋은 음질로 녹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실에 음향 시설이 미

37) 본 연구에서는 평가를 위해 문항이 있는 종이를 시험지로 통일해 부를 것이다.

비하거나 주변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듣기 평가를 올바르게 실시할 수 없다. 말하기 평가 시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럿이 함께 평가하는 복수 평가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자격을 갖춘 말하기 평가자와 진행³⁸⁾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제 상황 및 여건이 평가 실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평가의 시행 및 채점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용이한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2.3.2.4. 공정성

평가는 특정 역할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를 시행하는 주관사나 단체, 응시하는 수험자 모두에게 ‘그 평가가 공정한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평가의 목적 수립, 평가 도구 개발, 문항의 타당도 및 내용의 적합성 검토, 채점 과정의 일관성 및 결과의 객관성, 결과의 해석, 평가에 참여한 출제자 및 채점자, 검토자가 전문 교육을 받았느냐 등 평가의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McNamara(2000)는 이러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책무성(accountability), 세환효과(washback effect), 사회적 파급효과(impact)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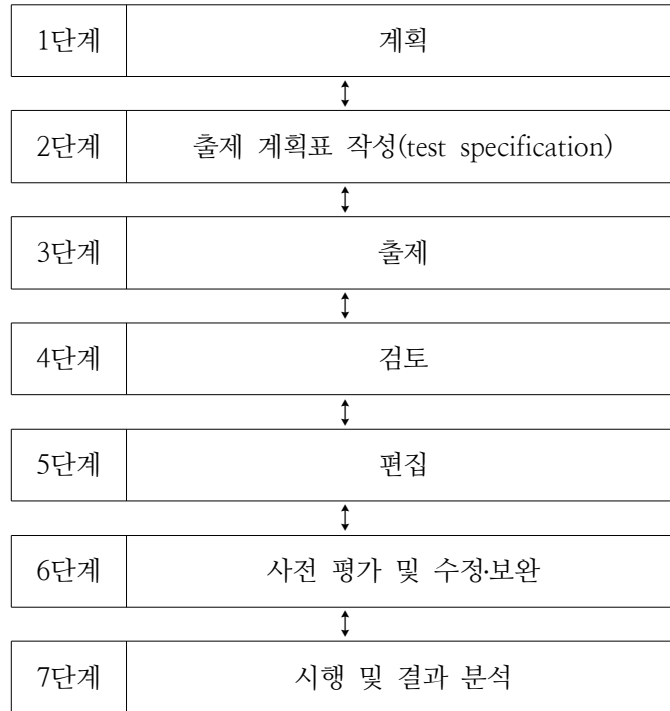
2.2.3. 문항 개발 절차

언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즉, 평가의 일정과 범위, 평가 영역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문항 개발이 시작된다.

평가의 내용과 방법 그 형태를 정해 출제 계획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전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을 하며 최종 문항을 결정한다.

38) 원만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실에서 수험자를 관리하고 평가실로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림2〉 문항 개발 절차



문항 개발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순환적이며 반복적이다. 각 단계에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2.2.3.1. 계획

문항 개발의 계획 단계에서는 평가의 일정, 범위, 내용 등이 결정된다. 또 문항 출제를 위한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 이것은 평가틀(assessment framework)로 구현된다.

평가틀은 평가의 목표와 평가 영역을 상세화한 문서로서 평가 도구 구성을 위한 이원목적 분류표, 문항 수, 문항 유형, 평가 도구의 구성 방법, 평가 시간, 채점 방법, 결과 보고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문항 개발을 위한 ‘출제 계획표’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즉, 평가틀

은 문항 개발의 기본 원리와 핵심 내용을 규정해 줌으로써 문항 개발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영역별로 평가틀을 잘 마련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2.3.2. 출제 계획표 작성

출제 계획표는 문항 출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 표를 말한다. 이는 출제 구상표라고도 하며 문항 하나하나의 출제 정보를 담고 있다. 출제 계획표에는 교사의 출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학습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배운 다양한 범주의 내용이 고르게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이 작업을 통해 출제 의도에 맞는 문항이 만들어졌는가, 평가 주제와 기능, 어휘와 문법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안배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영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영역 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출제 계획표를 작성한 후에는 영역별로 교차 검토를 통하여 주제, 기능, 범주 등의 중복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제 계획표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34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어휘·문법의 문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11〉 어휘·문법의 출제 계획표

대문항	소문항	난이도	배점	출제 의도	평가문항	문항유형	내용(소재/주제)
1-2	1	1급 하	3	기본적인 어휘 지식을 파악한다.(명사)	가방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가방
	2	1급 하	3	기본적인 어휘 지식을 파악한다.(동사)	만들어요		요리/빵
3-5	3	1급 중	3	기본적인 어휘 지식을 파악한다.(부사)	가깝다↔멀지	반의어 고르기	우체국
	4	1급 상	3	기본적인 어휘 지식을 파악한다.(동사)	오전↔오후		출발 시간
	5	2급 하	3	기본적인 어휘 지식을 파악한다.(명사)	받은↔드릴		선물
6-8	6	1급 중	3	기본적인 어휘 지식을 파악한다.(명사)	아래↔밑	유의어 고르기	공
	7	2급 하	4	기본적인 어휘 지식을 파악한다.(동사)	제일↔가장		체격
	8	2급 중	4	기본적인 어휘 지식을 파악한다.(부사)	이해할↔알아요		수업
9-12	9	1급 중	4	간단한 문장 완성 능력을 측정한다.	시간	짧은 문장 완성하기	한국어 공부
	10	1급 중	3		사전		사전
	11	2급 중	4		천천히		운전
	12	2급 중	4		필요해요		여행 준비
13-15	13	1급 하	3	조사 사용에 대한 지식을 파악한다.	을	문맥에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물
	14	1급 중	4		하고		운동
	15	2급 중	3		보다		노래
16-19	16	1급 하	4	자연스러운 대화의 이해 능력을 파악한다.	다닙니다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학교
	17	1급 중	4		보고 싶어요		영화
	18	1급 상	3		도와줄게요		이사
	19	2급 중	3		내리면 좋겠어요		날씨
20-22	20	1급 중	4	중요 연결어미 활용 지식을 파악한다.	자서	문맥에 알맞은 연결어미 고르기	수면 시간
	21	2급 하	3		있는데		가족
	22	2급 중	3		먹으려고		식사
23-24	23	1급 상	3	알맞은 문법 사용 지식을 파악한다.	도착했습니다	틀린 문장 고르기	도착 시간
	24	2급 상	3		있으세요		아버지의 위치
25-26	25	1급 상	3	자연스러운 대화의 이해 능력을 파악한다.	넣지	대화 완성하기(어휘)	신용 카드
	26	2급 하	3		찾아 보세요	대화 완성하기(문법)	
27-28	27	2급 중	4		주기로 했어요	대화 완성하기(문법)	졸업식/상
	28	2급 상	3		즐겁게	대화 완성하기(어휘)	
29-30	29	2급 상	3	자연스러운 담화의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걷는 동안	담화 완성하기(문법)	제주도/꽃꽃길
	30	2급 상	3		바깥니다	담화 완성하기(어휘)	

이러한 출제 계획표의 틀은 영역별, 급별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출제 계획표의 틀이 마련되면 보통 세부 항목인 대문항, 소문항, 난이도, 출제 의도, 평가 유형, 배점은 고정시켜 놓는다. 출제자는 이 외에 평가 문항, 내용, 텍스트만을 결정한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출제 계획표의 기본 틀을 마련해 놓고 출제자가 작업해야 하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이것은 출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여 출제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평가의 통일성, 문제 은행 구축에서도 도움을 준다.

2.2.3.3. 평가 문항 출제

평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모두 작성이 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출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출제자 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출제는 출제 계획표를 작성한 사람이 직접 출제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출제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항 출제는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출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문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문항을 만드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평가 일정이 정해지면 출제 기간을 넉넉히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성태제(1996)는 이러한 출제자의 자격으로 교육 목표, 교과 내용,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문항 작성법의 숙지, 검사 이론의 숙지, 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창의성 등의 고등 정신력, 간결 명확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문장력, 타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성품, 성별·인종·직업·사회 계층 등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 문항의 제작·수정·보완에 관한 풍부한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얼핏 보기에 쉽지는 않은 조건들이다. 그만큼 문항 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2.1.2.에서 제시한 8개의 특징을 가진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한 성취도 평가’의 문항 출제의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문항에 사용된 언어는 명확해야 한다.

둘째, 상황 안에서 답을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능의 목적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넷째, 정답은 상식이 아니라 언어 기술이나 내용을 이해한 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험자는 문항에 대한 답을 고르기 위해 문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문항에 사용된 언어는 문법적이어야 하며 말이 맞아야 한다.

일곱째, 문항의 난이도가 수험자의 등급과 맞아야 한다.

여덟째, 문항의 몸통 혹은 도입부(stem or lead)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문항의 몸통 혹은 도입부와 보기(options)는 서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

열째, 문항은 불필요한 반복(redundancy or repetition)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열한째, 네 개의 보기는 모두 매력이 있어야 한다.

열두째, 네 개의 보기는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열셋째, 네 개의 보기는 길이가 비슷해야 한다.

열넷째, 네 개의 보기는 난이도가 비슷해야 한다.

열다섯째, 텍스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보기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열여섯째, 문항 외적인 암시로 답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2.2.3.4. 평가 문항의 검토

출제된 평가 문항은 반드시 교차 검토를 통해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토는 출제 계획표에 근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점검표를 만들어 평가 문항, 지시문, 주제 및 소재, 답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상근(2010)에서 제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지문의 내적, 외적 검토 항

목은 다음과 같다.

〈표12〉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지문 내적 검토 항목

구분	검토 영역	검토 내용
지문 내적 요소	지문의 난이도 & 변별도	지나치게 쉬운 문제는 없는가?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적절히 출제되었는가?
		지문의 길이는 적절한가?
		지문의 난이도와 변별도에 맞게 적절히 배점되었는가?
	지문 내용	특정 집단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비교육적이거나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지문의 소재가 편중되어 있는가?
	어휘 수준	지문에 사용된 어휘 수준이 적절한가?
		주석을 달아주어야 할 어휘가 더 있는가?
		사용된 대화, 담화 및 읽기 지문은 믿을 만한가?
	실제성	텍스트의 논리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대화, 담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정확성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가?
		철자 오류가 있는가?
	단서	단서가 너무 많이 제시되어 내용을 모르는 수험생도 답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가?
		대화나 담화에서 단서의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예> 대화의 끝부분에 단서를 제공하는 문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읽기 지문에서 단서의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예> 지문의 도입부에 단서를 제공하는 문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표13〉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지문 외적 검토 항목

구분	검토 영역	검토 내용
지문 외적 요소	문두 (발문)	한 가지 사항만 묻고 있는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묻고 있는가?
		정답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가?
		부정적 표현의 어구에 밑줄이 있는가?
	선택지	답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
		선택지에 정답의 단서가 있는가?
		선택지가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는가?
		선택지의 길이가 너무 다른 것은 없는가?
		두 개 이상의 선택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로 인하여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은 없는가?
		오답의 매력도는 적절한가? (오답이라는 단서를 주는 선택지의 경우 매력도가 거의 없다)
		정답의 위치가 특정 선택지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관점에 따라 정답이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이 있는가?
		관점에 따라 정답이 다를 수 있는가?
		관점에 따라 정답이 복수가 될 수 있는가?
	배점	배점별 문항 수가 정확한가?
		문항의 배점 위치는 적절한가?
	편집 체제	문항 순서와 선택지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발문과 답지에 오자, 탈자가 있는가?
		발문과 답지의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취도 평가의 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표14〉에서 정리하였다.

〈표14〉 성취도 평가의 검토 항목

구분	검토 항목
내용	· 배운 어휘, 문법,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 소재, 주제 등이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문항 지시문	· 문항 지시문의 내용이나 표현이 명확한가? · 문항의 지시문이 너무 길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 배점에 비하여 문제 해결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긴 것은 없는가? · 부정문인 경우 긍정문으로 바꾸어 묻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보기항	· 지문에 나온 내용으로 보기를 만들었는가? · 보기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지는 않은가? · 제시된 네 개의 보기의 길이가 서로 비슷한가? · 보기의 문장 표현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것은 없는가? · 보기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 보기는 길이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는가? · 보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 지문을 읽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를 구성하지는 않았는가? · 세트 문항으로 구성된 경우 각각의 답이 서로 답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은가? · 오답의 매력도가 낮은 것은 없는가? · 특정한 어휘(만, 반드시 등)를 사용하여 오답을 구성한 것은 없는가? · 정답지에 비해 지나치게 두드러지는 오답은 없는가? · 관점에 따라 정답 또는 오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정답의 번호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편집	· 오타자 및 띄어쓰기의 오류는 없는가? · 번호 및 배점에는 오류가 없는가? · 글자 모양, 크기 등과 관련한 지침을 따랐는가?

2.2.3.5. 편집

편집은 검토 이후 진행되나 출제 시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편집 시에는 글자체, 글자 크기, 간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글자체의 경우 학생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대지문과 문항을 달리하여 구분을 주어야 한다. 또한 문장 간 간격, 문항 간 간격 등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평가가 가진 역할이 중요한 만큼 편집을 통해 평가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중 80%는 국내 대학 입학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관련 전공의 교환 학생들이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미 경험을 하였다. 또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게 된다. 이에 숙달도 평가와 성취도 평가의 시험지³⁹⁾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성취도 평가의 편집 지침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에게 가장 익숙한 두 시험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⁴⁰⁾.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되 가독성, 문제의 분리⁴¹⁾ 등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9) 숙달도 평가와 성취도 평가의 편집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관의 성취도 평가는 8개 기관의 시험지를 분석한 평균치이다.

내용	숙달도 평가		성취도 평가	
	대지문	문항	대지문	문항
글자 모양	신명조	신명조	바탕, 신명조, 맑은 고딕, 함초롱 바탕 등	
글자 크기	볼드체 13	12.5	볼드체 12	10.5
글자 간격	170%		160%	
장평	95		100	
자간	-5		0	

40) 각 기관의 글자 모양은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숙달도 평가의 기준을 따르며 장평과 자간은 가독성 편집 시 조정되어야 하므로 기본 지침을 100, 0으로 두었다.

41) 하나의 문제는 같은 지면에 구성한다. 예를 들어 편집의 지침 때문에 보기를 ①,②,③은 같은 페이지 ④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표15〉 성취도 평가의 편집 지침

내용	대지문	문항
글자 모양	신명조	신명조
글자 크기	볼드체 12	11
글자 간격	170%	170%
기타	장평 100, 자간0	

2.2.3.6. 사전 검사 수정 보완

문항 출제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사전 검사를 통해 모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평가 전 교사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문항을 풀어보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제를 푸는 시간은 충분한가, 편집은 보기 좋게 되었는가, 듣기 평가의 경우 잡음이 없으며 크기는 적절한가, 문제 간 휴지는 적절한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문항을 완성한다.

2.2.3.7. 시행 및 결과 분석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평가를 적용한다. 평가 이후에는 문항의 적절성, 문항의 난이도, 수험자 반응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해 두었다가 다음 평가 실시 때 참고한다.

Ⅲ. 기관별 성취도 평가 현황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성취도 지필 평가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침 제작 시 근거는 현재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문항의 분석 결과이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전술하였다시피 성취도 평가는 기관별로 평가 목표가 상이하다. 그러나 각 기관의 평가 목표는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초·중·고급의 큰 목표는 매우 비슷하다. 이에 3장에서는 <표16>의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목표 및 내용을 기술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16>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 기준

등급		기준
초급	1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급	3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는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급	5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3.1. 기관 선정 기준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서울에 있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한다.

둘째, 교육 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으로 한다.

셋째, 대학 자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한 곳으로 한다.

넷째, 초·중·고급 교육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한다.

다섯째, 급별 학급 수가 3개 이상인 곳으로 한다.

위 기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기관의 위치는 활발한 교류를 고려하여 서울로 제한하였다.

둘째, 교육 기간은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시간 및 문항의 질을 고려하여 10년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취도 평가 문항은 기존의 문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 기간이 길수록 문항을 수정·보완한 횟수가 많으며 문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길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간과 문항의 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출제자의 전문성은 연구를 고려하여 자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제한하였다. 교재 집필은 대부분 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한다. 따라서 자체 교재가 있다는 것은 교사가 관련 분야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된다. 출제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출제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전문성을 갖춘 출제자가 만든 문항이 연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수업은 분석을 고려하여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였다.

다섯째, 평가는 출제자 수를 고려하여 급별로 학습 수가 3개 이상인 곳으로 제한하였다. 평가의 계획, 문항의 제작, 실시 등의 체계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별로 최소 3개 반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 반을 2명⁴²⁾의 교사가 담당한다고 하였을 때 3개 반인 경우 교사 6명을 확보할 수 있다. 성취도 평가가 기본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의 네 영역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영역당 출제자 1명씩 총 4명, 검토자를 2명으로 했을 때 최소 6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교사가 여러 영역의 출제를 맡거나 검토를 하는 경우 부담감이 커지며 이는 문항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출제 및 검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소 인원을 6명으로 설정하였다.

42)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008년 이후 시간 강사는 14시간 이내의 수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의 정규 과정은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나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의 교사가 한 반을 운영하고 있다.

3.2. 기관별 성취도 평가 실태

3.1.의 기준으로 8곳이 선정되었다. 기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10주, 20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업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육 기간의 기본 과정으로 가장 많은 인력 및 주요 인력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이 수업은 때때로 대학 입학에 위한 기본 이수 과정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관에 따라 정규 과정, 집중 과정 등으로 명칭이 조금씩 달랐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규 과정으로 불렀으며 기관명은 편의상 가, 나, 다 등으로 지칭하였다.

선정된 8곳의 성취도 평가 실태는 다음과 같다. 실태는 평가의 세부 항목 및 내용, 운영, 출제 및 검토에 대한 사항을 조사·정리하였다.

3.2.1. 가 기관

30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 기관으로 정규 과정, 단기 과정, 위탁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정규 과정은 1년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목적 과정과 학문 목적 과정으로 나뉘며 초·중·고급의 6등급 이외에 7급에 해당하는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가 기관의 성취도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의 이름으로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네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영역별 배점⁴³⁾은 각 100점이며 성취 기준은 전 영역 60점 이상, 네 영역 평균 70점 이상이다. 승급 및 수료는 중간, 기말시험과 출석률, 2주 단위로 실시되는 5회의 주간 시험, 수업 태도 및 수행 평가 점수가 합산되어 결정된다. 수업 태도와 문화 수업 및 발표 등과 같은 수행 평가는 담임과 부담임이 정해진 비율로 나눠 평가 후 합산한다. 유급의 경우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43) 여기서 배점은 수료를 위한 점수가 아닌, 지필 평가가 몇 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의미한다.

〈표17〉 가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기타
명칭	중간시험, 기말시험	
횟수	2회(5주차, 10주차 실시)	-1일차(지필), 2일차(말하기)
평가 영역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영역별 각 100점 -중간, 기말 각 100점
승급 및 수료 기준	평균 70점 이상 영역별 과락: 60점 미만	출석 80% 이상
		주간 시험 5회 결과, 수업 태도, 특별 활동 반영
기타	out 제도 운영: 3회	
	출결 60% 이하 재등록 불가	지각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평가 및 출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하는 강사 회의에서 공지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기 내 이루어지는 평가 및 출제 일정, 출제자, 검토자 등에 대해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다. 출제는 급별로 진행되며 영역별로 1명이 담당한다. 이때 경력을 고려하여 신입 강사의 경우 주간 시험을 경력 강사의 경우 중간 및 기말시험을 출제한다. 중간, 기말시험의 경우 전 학기 문항에서 30%를 교체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출제를 한 후에는 1차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검토는 학기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급 내 모든 교사가 검토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역별로 팀을 꾸려 팀 내에서 진행되기도 있다. 이후 검토는 팀장이 한다. 이렇게 완성된 최종본은 난이도 내 문항의 순서 혹은 보기의 순서를 바꿔 A안과 B안으로 만든다. 이 작업은 평가 일주일 전에 끝난다.

3.2.2. 나 기관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 기관으로 집중 과정, 단기 과정, 위탁·특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10주 200시간의 과정을 집중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과정은 1년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고급의 6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관의 성취도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의 이름으로 어휘·구조,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5개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간과 기말시험의 배점이 각각 50점인데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합산하여 영역별 6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승급 및 수료를 위해서는 이 기준과 함께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일 단위, 주 단위로 부여되는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퀴즈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적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이것은 급과 상황에 따라 내용 및 범위, 횟수를 달리하고 있다. 나 기관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동일한 급 내에서 반을 섞어 학생을 재분반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표18〉 나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기타
명칭	중간시험, 기말시험	
횟수	2회(5주차, 10주차 실시)	-1일차(지필) -2일차(지필, 말하기)
평가 영역	어휘·구조,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영역별 50점 -중간, 기말 각 50점
승급 및 수료 기준	영역별 70점 이상 영역별 과락: 60점 미만	출결 80% 이상
		숙제 *퀴즈는 점수에 반영 안 함.
기타	out 제도 운영: 2회	
	출결 50% 이하 재등록 불가	지각, 조퇴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학기 시작 전에 전체적인 평가 및 출제의 일정이 공지되며 평가 2주 전인 3주차, 8주차에 자세한 일정이 교사에게 전달된다. 출제는 기존 문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항의 수정 및 교체 등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특별히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문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출제는 급별로 진행되며 출제자는 영역별로 1명이 배정된다. 이것은 전 학기 혹은 이전 평가의 출제 여부를 반영하여 정해진다. 1차 검토는 급 내 모든 강사들이 참여하며 출제자는 이 내용을 반영하여 2차 수정본을 팀장에게 제출한다. 최종본은 팀장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다.

3.2.3. 다 기관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 기관으로 정규 과정, 단기 과정과 대학 입학 예비 과정 및 기타 위탁 교육 등의 특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규 과정은 1년 4학기제로 초·중·고급의 6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위 단계로 통번역을 위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다 기관의 성취도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의 이름으로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네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평가의 배점은 영역별로 80점이며 퀴즈, 수행 평가, 수업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점수가 20점이 있다. 이때 20점은 영역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쓰기는 퀴즈 시험과 과제를 통한 수행 평가, 숙제 여부 등으로 평가한다. 이때 퀴즈는 두 과 내외의 어휘 평가이며 중간시험을 기준으로 전후 각 4회, 총 8회가 실시된다. 말하기는 수업 참여도 및 발표를 통해 평가하며 듣기와 읽기는 수업 태도로 20점을 평가한다. 승급 및 수료는 이 둘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영역별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표19〉 다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기타
명칭	중간시험, 기말시험	
횟수	2회(5주차, 10주차 실시)	-중간: 1일차(지필, 말하기) 2일차(말하기) -기말: 1일차(말하기) 2일차(지필, 말하기)
평가 영역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영역별 각 80점 -중간, 기말 각 80점
승급 및 수료 기준	평균 70점 이상 영역별 과락: 60점 미만	출석 80% 이상
		퀴즈 8회 결과, 수행 평가, 수업 태도, 숙제 여부 반영
기타	out 제도 운영: 3회	
	출석 60% 이하 재등록 불가	지각, 조퇴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출제는 약 2주 전 공지되며 급별로 진행된다. 기존 문제를 수정·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평균 50% 문항이 새로 출제된다. 이때 출제자는 경력을 고려하여 영역당 1명 혹은 2명이 배정된다. 2명을 배정한 경우는 신입 강사가 출제하는 경우이다. 신입 강사가 출제하는 경우 경력 강사를 공동 출제자로 함께 배정하여 문항을 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급 내 모든 강사들에게 내용이 전달되어 1차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검토는 팀장이 하며 2~3회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한다.

3.2.4. 라 기관

약 15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 기관으로 정규 과정, 단기 과정, 토픽 대비반 등의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과정은 1년 4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문반,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 심화반으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으나 초·중·고급의 6등급 체계로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의 이름으로 어휘·문법,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지필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 및 진급을 할 수 있다. 말하기의 경우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느냐의 여부를 평가할 뿐 점수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Pass, Fail로 1차 평가를 하고 Pass인 경우 A, B, C, D의 4단계로 그 능력을 표시한다. 성적표에는 중간과 기말의 지필 평가의 평균 점수와 말하기의 능력인 A, B, C, D가 표기된다.

〈표20〉 라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기타
명칭	중간시험, 기말시험	
횟수	2회(5주차, 10주차 실시)	-중간시험: 1일차(말하기) 2일차(지필) -기말시험: 1일차(지필) 2일차(말하기)
평가 영역	어휘·문법,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지필: 각 100점 -말하기: Pass A, B, C, D Fail F
승급 및 수료 기준	지필 평균 60점 이상 *과락 제도 없음	출석 80% 이상
		숙제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기타	out 제도 운영: 3회	재시험을 통해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함.
	출석 80% 이하 재등록 불가	지각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출제는 약 2주 전에 공지되며 급별로 진행된다. 기존 문제를 검토하여 7~8 문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는데 지필 평가의 경우 쓰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약 30% 문항을 새롭게 출제해야 한다. 듣기의 경우 큰 오류가 없는 이상 기존 녹음 파일을 사용하도록 텍스트를 고정하고 지문 및 보기 등을 교체한다. 하나의 반은 담임과 부담임 교사가 담당하는데 출제 및 검토는 담임 교사만 참여한다. 담임 교사 간 협의를 통하여 중간, 기말시험을 나눠 한 영역씩을 출제하며 출제에 참여한 사람은 다른 영역의 검토에 참여하지 않는다. 출제 후에는 급 내에서 두 차례의 검토가 진행되며 3차 검토부터는 전임 강사가 참여한다.

3.2.5. 마 기관

약 20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 기관으로 정규 과정, 단기 과정, 특별 과정, 위탁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년 4학기제로 운영 중인 정규 과정은 자모의 맞춤법과 음가, 음절 구조의 특성을 익히는 입문 과정과 초·중·고급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심화반이 개설되기도 한다. 7급은 대학이나 대학원,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모국어 화자 수준의 한국어 숙달을 목표로 한다.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의 이름으로 어휘·문법,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5개 영역으로 하며 배점은 90점 혹은 100점으로 한다.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중 하나에서 숙제, 수업 태도 등을 평가하는 10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취 기준 및 영역별 과락 점수는 70점이다. 즉, 수료 및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평균이 70점이 넘어야 하며 동시에 한 과목이라도 70점 미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 성취 기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21〉 마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기타
명칭	중간시험, 기말시험	
횟수	2회(5주차, 10주차 실시)	-1일차(지필) -2일차(말하기)
평가 영역	어휘·문법,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중간 90, 기말 100이나 중간 100, 기말 90 *급이나 상황에 따라 다름.
승급 및 수료 기준	평균 70점 이상 *영역별 과락: 70점 이하	출석 80% 이상
기타	out 제도 운영: 2회	절차를 거쳐 재입학 가능함.
	출석 60% 이하 재등록 불가	지각, 조퇴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출제는 평가 3주 전에 공지되며 팀장을 중심으로 급별로 출제 및 검토 일정을 정해 진행한다. 최종 마감 일자는 동일하되 급별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출제는 기존 문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시험지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경우 문제 은행을 구축하거나 신입 교사의 출제 교육을 위해 기간 내 다른 과제가 부여되기도 한다. 마 기관의 경우 A안과 B안의 두 종류의 시험지가 마련되어 있어 교사의 출제 부담이 적었다. A안과 B안은 문제틀 및 문항의 난이도가 달라 학기별로 학습자 수준 및 상황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출제 지시 및 검토는 팀장이 한다.

3.2.6. 바 기관

바 기관은 10년 전에 국제교육원에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집중 과정, 단기 과정, 특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집중 과정은 1년 4학기제로 초·중·고급의 6등급과 7급에 해당하는 심화반으로 운영 중이다. 매 학기 평균 30개의 반이 개설되며 심화반의 경우 대학 진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으로 여름과 겨울 학기에 집중 운영되고 있다.

성취도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이름으로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네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100점이며 과락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바 기관의 경우 80점 이상을 받아야 승급 및 수료를 할 수 있다. 이때 80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이 아닌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과제 10%, 수업 참여도 10%, 출석률이 10%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평가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총합인 70점 중에서 최소 50점을 획득하면 진급 및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제, 수업 참여도, 출석률이 100점 중에서 30점이나 되므로 평가의 결과가 낮더라도 만회가 가능한 것이다. 다른 기관이 평가에서 성취 기준을 두고 과제, 수업 태도 등을 반영하는 것과 달리 바 기관의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기타의 과제, 수업 참여도, 출석률을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있다.

〈표22〉 바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기타
명칭	중간고사, 기말고사	
횟수	2회(5주차, 10주차 실시)	-1일차(지필) -2일차(말하기)
평가 영역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영역별 각 100점
승급 및 수료 기준	총점 80점 이상 *과락 제도 없음	출석 80% 이상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40% + 기타 30% (과제, 수업 참여도, 출석)
기타	out 제도 운영: 2회	
	출석 60% 이하 재등록 불가	3회 지각은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출제는 3주 전에 공지되며 급별로 급주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역별로 1명이 출제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급의 강의 시수 및 담당 업무의 비중, 강의 경력, 평가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기존에 있는 A안, B안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히 새로 출제해야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문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바 기관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출제, 평가 관련 책 집필 등 대내외적으로 평가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교사를 급별로 적절하게 배정하여 출제 및 검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출제, 검토, 최종안 선택 등의 업무가 모두 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3.2.7. 사 기관

약 15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 기관으로 정규 과정, 단기 과정, 특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과정은 1년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고급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어휘·어법,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배점은 각 100점이다. 성취 기준은 영역별 4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이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 성취 기준은 높은 편이며 영역별 과락 점수는 낮은 편이다. 특정 과목을 과락하여 유급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진급의 기회를 주고 있고 있었다. 이 평가에서는 50점 이상을 받으면 진급할 수 있다.

〈표23〉 사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기타
명칭	중간고사, 기말고사	
횟수	2회(5주차, 10주차 실시)	-1일차(지필) -2일차(말하기)
평가 영역	어휘·어법,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영역별 각 100점
승급 및 수료 기준	평균 80점 이상 *영역별 과락: 40점 미만	출석 80% 이상
		과락한 과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함.
기타	out 제도 운영: 3회	사정회를 통해 재등록 기회를 부여함.
	출석 60% 이하 재등록 불가	조퇴, 지각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출제는 급별로 약 2주간 진행된다. 영역별로 1명씩이 배정되며 기존 문항을 검토하여 50%의 문항을 교체해야 한다. 급에 신입 강사 및 임시 강사의 수가 많은 학기에는 경력 강사와 팀을 이뤄 공동 출제를 하기도 한다. 또 학생 수가 증가하여 동일한 급에 반이 많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A안과 B안을 만들어 문제 은행을 구축한다. 1,2차 검토는 급 안에서 지정된 검토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종 3차는 전임 강사가 맡는다.

3.2.8. 아 기관

약 15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 기관으로 정규 과정과 여름·겨울 단기 과정, 시험 대비반, 한국 문화 체험 등의 특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정규 과정은 1년 4학기제로 운영되고 초·중·고급의 6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요에 따라 예비 대학생을 위한 연구반이 개설되고 있다.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의 이름으로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네 영역으로 실시되고 있다. 어휘·문법을 독립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2~3과 내외의 복습 평가를 통해 어휘 및 문법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쓰기 평가의 앞부분을 어휘·문법 문항으로 구성하여 관련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별로 일정이 다르다. 이는 말하기 평가 때문이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경력 교사를 중심으로 공동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급별로 일정을 달리하여 말하기 평가에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점은 각 80점이었으며 20점은 영역별로 과제, 수업 참여도, 퀴즈 등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성취 기준은 이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이었으며 과락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표24〉 아 기관의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기타
명칭	중간시험, 기말시험	
시기	2회(5주차, 10주차 실시)	이틀 동안 진행됨. *급별로 일정 다름.
평가 영역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영역별 80점
승급 및 수료 기준	평균 70점 이상 *과락 제도 없음.	출석 80% 이상
		기타 20 *영역별, 등급별로 내용 다름. (받아쓰기, 퀴즈, 과제, 수업 참여도 등)
기타	out 제도 운영: 2회	
	출석 70% 이하 재등록 불가	지각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실시 3주 전에 공지하며 공지 후 바로 출제가 시작

된다. 출제는 급별로 진행되며 기존 문항에서 30%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담임 강사를 중심으로 하며 영역별로 1명을 배정하나 말하기의 경우 공동 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검토는 급 내에서 두세 차례 진행되며 팀장의 최종 검토를 통해 최종 관리자에게 완성본이 제출된다.

지금까지 알아본 기관별 성취도 평가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 배점은 추후 합산되는 과제, 수업 참여도 등을 제외한 지필 평가의 점수를 의미한다. 지필 평가의 점수는 중간시험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25〉 기관별 성취도 평가 실태

내용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명칭		7개 기관: 중간시험, 기말시험 1개 기관: 중간고사, 기말고사							
횟수		2회(5주 단위로 실시)							
영역 및 배점	어휘· 문법	·	50	·	100	90	·	100	·
	쓰기	100	50	80	100	90	100	100	80
	듣기	100	50	80	100	90	100	100	80
	읽기	100	50	80	100	90	100	100	80
	말하기	100	50	80	P/F ₄₄₎	90	100	100	80
	총점	400	250	320	400	450	400	500	320
승급 및 수료 기준	평균	70	70	70	60	70	총점 80 ⁴⁵⁾	80	70
	과락	60	60	60	·	70	·	40	·
출결(%)		80	80	80	80	80	80	80	80
out 제도		3회	2회	3회	3회	2회	2회	3회	2회

조사의 대상인 정규 과정은 1년 4학기제로 1일 4시간, 10주 총 20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규 과정의 성취도 평가는 중간, 기말의 이름으로 5주 단위로 2회 실시되고 있었다.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를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어휘와 문법에 대한 평가는 어휘·문법, 어휘·구조, 어휘·어법의 이름으로 8개 기관 중 4곳에서 분리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성취 기준은 높게는 80점 낮게는 60점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평균 70점이었다. 그리고 5곳이 과락 제도를 두고 있었다. 승급 및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200시간 중 160시간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이것은 비자 발급 및 연장과 직결하는 문제로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기관이 같은 급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횟수를 2~3회로 제한하고 있어⁴⁶⁾ 이 횟수를 초과한 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없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태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취도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표26〉 기관별 성취도 평가 출제 방법

기관	출제		검토	
	방법	출제자	방법	검토자
가	1. 기존 문제 검토 2. 30% 새롭게 출제 3. A안, B안 마련 → 문제 동일, 순서, 보기 교체	영역별 1명	1. 급별 검토 2. 최종 검토	1. 전원 2. 팀장
나	1. 기존 문제 검토 → 필요시 교체	영역별 1명	1. 급별 검토 2. 최종 검토	1. 전원 2. 팀장
다	1. 기존 문제 검토 2. 50% 새롭게 출제	영역별 1명 *(필요 시) 공통 출제	1. 급별 검토 2. 최종 검토	1. 전원 2. 팀장

44) 성취 기준을 정리해 놓고 그것에 도달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을 평가한다.

45) 중간(30)+기말(40)+기타(30)

46) 동일한 급을 몇 번까지 재수강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횟수에 따라 2out, 3out제이라고 부른다.

라	1. 기존 문제 검토 2. 30% 새롭게 출제	영역별 1명 *담임 교사만 참여	1. 급별 검토 2. 최종 검토	1. (출제자를 제외한) 전원 2. 전임 강사
마	1. 기존 문제 검토 → 필요시 교체	영역별 1명	1. 급별 검토 2. 최종 검토	팀장
바	1. 기존 문제 검토 → 필요시 교체 2. A안, B안 마련	영역별 1명	급별 검토	팀장
사	1. 기존 문제 검토 2. 50% 새롭게 출제	영역별 1명 *(필요시) 공통 출제	1. 급별 검토 2. 최종 검토	1. 지정된 인원 2. 전임 강사
아	1. 기존 문제 검토 2. 30% 새롭게 출제	영역별 1명 *(필요시) 공통 출제	1. 급별 검토 2. 최종 검토	1. 전원 2. 팀장

정리하면 출제는 급별로 진행되며 기존 문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거나 정해진 범위 내로 새롭게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역별로 1명이 출제 하되 교육 경력, 출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공동 출제가 이루어지 기도 한다.

출제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는 검토가 이루어진다. 검토는 급 안에서 교사 간의 교차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균 2회가 진행된다. 이후 3차부터는 팀 장 혹은 전임 강사가 담당하여 최종본을 완성하고 있었다.

IV.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 분석

4장에서는 3장에서 선정한 8곳의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관별로 같은 학기⁴⁷⁾에 제작된 것 중에서 급별로 한 세트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문항은 10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가진 교사가 출제한 것으로 매학기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것이다. 이것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침 개발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분석은 영역별, 등급별, 문항의 형태별, 문항의 유형별로 나눠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하였다.

4.1. 문항 분석 기준

문항 분석은 2.2.2.의 지필 평가 문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1차로 선택형과 서답형의 선다형, 진위형, 연결형, 배열형, 단답형, 완결형, 논술형으로 나눠 분석하였고 이후 각각의 형태가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8개 기관의 6등급을 분석하다 보니 다양한 문항이 나왔다. 따라서 분석 시 문항을 어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본 연구자는 각 문항의 정의 중에서 핵심 어휘에 초점을 두어 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47) 동일한 학기에 출제된 8개 기관의 문항을 수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관별로 학기는 다르나 기관 내에서는 동일한 학기에 출제된 6등급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27〉 본고의 문항 유형의 정의

형태	정의
선다형	답을 보기에서 골라 숫자로 쓰는 문항
진위형	답을 O, X로 표시하거나 쓰는 문항
연결형	문제군과 답지군이 제시되어 있는 문항
배열형	주어진 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항
단답형	여백이 없는 1문장 이하의 문항
완결형	여백이 있는 문항
논술형	주어진 주제에 대해 쓰는 문항

위의 정의에 따라 기관별 지필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다.

선택형과 서답형의 단답형은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서답형의 완결형, 논술형은 1차 분류 후 재분류가 필요하였다.

우선 완결형은 글의 일부를 밑줄이나 괄호로 비워 놓고 묻는 것이다. 이러한 완결형은 〈보기〉⁴⁸⁾를 제시하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여백을 채우는 선다형과 혼합된 문항이 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선다형 완결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수험자가 직접 답을 써야 하는 것을 논술형 완결형이라고 하였다. 이를 다시 옮겨 쓰기, 바꿔 쓰기, 일부 쓰기, 전체 쓰기로 나눠 분석하였다. 이때 전체 쓰기는 ‘문장’ 단위를 의미한다.

논술형은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 쓰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가 주어지고 서술하는 문항을 논술형으로 보았다. 〈자료14〉는 주어진 표현으로 문장을 완결하는 것이나 여백이 없어 완결형으로 볼 수 없다. 이 문항은 주제가 주어졌으므로 논술형으로 볼 수 있다.

48)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문법, 표현 등을 박스로 제시해 골라 쓰도록 한 ‘보기’를 괄호 〈 〉로 표시할 것이다. 선다형에서 정답 ①,②,③,④를 보기라고 부르는 것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14〉 완결형 논술형의 예

※ 제시된 표현을 순서대로 모두 사용해 〈배낭여행의 장단점〉에 대해 쓰십시오.

〈배낭여행의 장단점〉

큰돈을 들이다 / 다양한 경험을 하다 /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다 / 어려움에 처하다

본고에서는 이 문항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는 긴 글쓰기와 구분하여 ‘완결형 논술형’이라고 하였다. 실제 문항에서는 밑줄이나 괄호 등의 여백이 없지만 표현과 표현 사이에 연결 어미나 종결의 시제를 바꿔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 것으로 완결형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는 다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여백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자료15〉 완결형 논술형의 여백

※ 제시된 표현을 순서대로 모두 사용해 〈배낭여행의 장단점〉에 대해 쓰십시오.

〈배낭여행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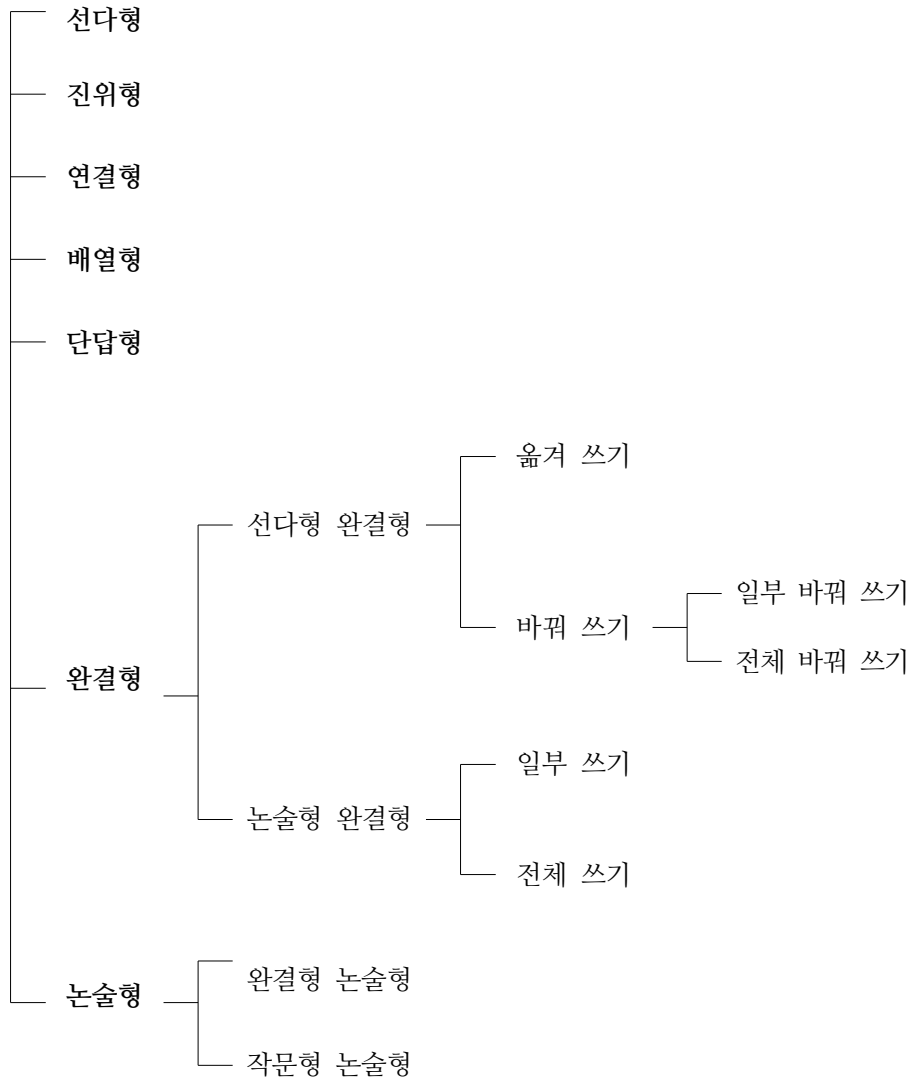
큰돈을 들이다 / 다양한 경험을 하다 /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다 / 어려움에 처하다

큰돈을 () 다양한 경험을 () 예상하지 못한 일이 ()
어려움에 ().

이 외 주제를 가진 두 문장 이상의 글쓰기를 ‘작문형 논술형’이라고 보았다.

본고의 지필 평가 문항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28〉 지필 평가 문항 분석 기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3771개의 지필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다.

4.2. 분석 결과

분석의 첫 번째로 기관별로 영역별 문항 수를 살펴보았다.

〈표29〉 영역별 평균 문항 수

영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평균
어휘· 문법 ⁴⁹⁾	·	49.2	·	25.0	23.5	·	30	·	127.7	31.9
쓰기	2.3	2	23.8	12.3	12	12.5	17.5	24.2	106.7	13.3
듣기	20	27.3	20.8	25	27.2	25	25.8	26.2	197.3	24.7
읽기	20	27.3	20.3	25	25.8	25	29.2	24.2	196.8	24.6
총합	42.3	105.8	65	87.3	88.5	62.5	102.5	74.5	628.5	78.6

지필 평가의 영역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가 있다. 이 중에서 쓰기, 듣기, 읽기가 공통적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어휘·문법은 4곳에서만 평가되고 있었다. 평가하지 않는 4곳 중에서 2곳도 어휘·문법 영역이 따로 없을 뿐 쓰기의 앞부분에서 관련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필 평가는 1회 평균 78.6문항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어휘·문법이 평균 31.9문항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기는 평균 13.3문항으로 가장 적었다. 이해 영역의 듣기와 읽기는 각각 24.7문항, 24.6문항으로 조사 되었다.

우선 기관별 문항 수를 살펴보면 가 기관이 42.3문항, 나 기관이 105.8문항으로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⁵⁰⁾. 이러한 문항 수는 어휘·문법의 분리 평가 여부, 쓰기의 문항 수와 관련이 있었다.

49) 어휘·문법 평가를 실시하는 4곳의 평균 문항 수이다.

50) 기관별 지필 평가 평균 문항 수는 나(105.8문항), 사(102.5문항), 마(88.5문항), 라(87.3문항), 아(74.5문항), 다(65문항), 바(62.5문항), 가(42.3문항)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어휘·문법이 있는 4곳과 그렇지 않은 4곳의 평균 문항 수를 비교해 보면 96문항, 61.1문항으로 34.9문항이 차이가 난다. 이에 어휘·문법을 제외한 문항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30>과 같이 많게는 74.6문항 적게는 42.3문항으로 기관에 따라 32.3문항이 차이가 났다. 이것은 어휘·문법을 포함했을 때의 최고·최저치의 차이인 63.5문항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이다.

<표30> 어휘·문법을 제외한 문항 수

영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평균
쓰기	2.3	2	23.8	12.3	12	12.5	17.5	24.2	106.7	13.3
듣기	20	27.3	20.8	25.0	27.2	25	25.8	26.2	197.3	24.7
읽기	20	27.3	20.3	25.0	25.8	25	29.2	24.2	196.8	24.6
총합	42.3	56.6	64.9	62.3	65	62.5	72.5	74.6	500.8	62.6

쓰기의 문항 수도 살펴보았다. 논술형의 2문항 내외로만 평가하고 있는 가, 나 기관을 제외한 6곳의 쓰기는 평균 17.1문항이었다. 또 6곳 중 어휘·문법을 두고 있지 않은 다, 바, 아 기관의 쓰기는 평균 20문항이었다. 쓰기의 앞부분에서 어휘·문법을 평가하고 있어 문항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다와 아 기관의 경우 쓰기 문항의 약 70%가 어휘·문법 문항이었다. 이것이 전체 문항 수에 영향을 준 것이다.

다음으로 지필 평가 문항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⁵¹⁾ 우선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눠 살펴보면 <표31>과 같이 전체 3771문항 중 선택형이 3230문항, 서답형이 541문항으로 전체의 85.7%가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51)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로 표시한다. 단, 필요시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표31〉 문항 형태별 문항 수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선택형	선다형	228 (89.8)	505 (79.5)	277 (71)	450 (85.9)	491 (92.5)	300 (80)	553 (89.9)	404 (90.4)	3208 (85.1)
	진위형	11 (4.3)	.	4 (1)	.	.	.	1 (0.2)	.	16 (0.4)
	배열형	1 (0.4)	1 (0.2)	2 (0.5)	.	.	.	.	.	4 (0.1)
	연결형	.	.	2 (0.5)	.	.	.	.	.	2 (0.1)
서답형	단답형	.	20 (3.1)	26 (6.7)	.	1 (0.2)	3 (0.8)	7 (1.1)	.	57 (1.5)
	완결형	2 (0.8)	97 (15.3)	58 (14.9)	50 (9.5)	17 (3.2)	43 (11.5)	31 (5.1)	26 (5.8)	324 (8.6)
	논술형	12 (4.7)	12 (1.9)	21 (5.4)	24 (4.6)	22 (4.1)	29 (7.7)	23 (3.7)	17 (3.8)	160 (4.2)
총합		254 (100)	635 (100)	390 (100)	524 (100)	531 (100)	375 (100)	615 (100)	447 (100)	3771 (100)

이러한 선택형은 85.1%가 제시된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선다형 형태였다. 그 외에 진위형이 0.4%, 배열형이 0.1%, 연결형이 0.1%로 나타났다. 이 중 진위형은 16문항, 0.4%에 불과했으나 하나의 질문에 2~4개의 소질문이 있어 실제로는 16문항보다 더 많은 문항이 출제됨을 알 수 있었다. 서답형은 단답형, 완결형,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서답형 중에서는 완결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

기관별 문항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기관에서 많게는 92.5% 적게는 71%로 선다형을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었으며 6곳은 완결형, 2곳은 논술형이 선다

형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

4.2에서는 이러한 문항이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영역별로 평가의 목적 및 내용이 다르며 그에 따라 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의 형태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의 내용은 영역별, 유형별로 나눠 하였다. 이해 영역은 능력의 구성 요소에 따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분하고 그 하위에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함께 제시하는 문항의 예는 8개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 없이 그대로 제시하였다.

4.2.1. 어휘·문법

4.2.1.1. 평가의 목적 및 평가 기준

어휘와 문법은 말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된다. 두 개 중 어느 하나를 몰라도 완성된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정희경(1995)은 이러한 어휘와 문법을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였다.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듯 어떠한 어휘를 사용해 어떻게 문장을 만드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재료를 어휘로 요리 방법을 문법으로 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도 요리 방법을 모르면 음식을 만들 수 없으며 반대로 요리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도 재료가 풍부하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어휘와 문법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설명한 것이다.

노대규(1983)는 어휘 평가는 문법적 단위인 기능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인식적인 의미 단위로서의 내용어(content word)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단일 단어를 포함해 복합 단어와 관용어구(idiom)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어휘 평가는 표현 중심의 평가와 이해 중심의 평가가 있다. 조현용(2007)은 표현 영역에 속하는 말하기와 쓰기의 어휘 평가 기준은 이해 영역의 듣기와 읽기의 어휘 평가 기

준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다양한 어휘 표현 능력을 듣기와 읽기에서는 어휘의 이해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이때 평가는 의사소통적 의미나 가치를 고려하여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Larsen-Freeman(2001)은 문법 교육의 목표를 문법 지식의 획득이 아닌 문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즉, 평가를 통해 측정해야 하는 것은 문법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해당 문법을 실제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문법 평가의 목표는 의사소통 맥락에 적합한 언어 규칙 적용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어휘와 문법은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등에 적절하게 포함해 평가할 수도 있지만 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특정 문법 항목의 습득 및 이를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분리 평가가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김정숙(2010)도 성취도 평가에서 어휘·문법이 분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표현 영역에서 분리되어 평가되고 있는 어휘·문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어휘·문법 영역이 있었을 때 주관사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이다.

〈표32〉 어휘·문법의 등급별 평가 기준

등급		평가 기준
초급	1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사물, 수, 동작, 상태 관련 어휘) •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날씨, 음식 관련 어휘) • 기본적인 조사와 연결 어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가’, ‘을/를’, ‘-고’, ‘-지만’) • 시제, 부정문, 자주 쓰이는 불규칙 활용 ‘ㅂ’, ‘ㄹ’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2	•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공공시설 이용 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자주 쓰이는 조사와 연결 어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이나’, ‘-는데’, ‘-으면서’) • 관형형(‘-은’, ‘-는’, ‘-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높임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불규칙 활용(‘르’, ‘ㅅ’, ‘ㅎ’, ‘ㄷ’)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자주 쓰이는 보조용언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고 있다’, ‘-어 보다’)
중급	3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업무나 사회 현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비교적 복잡한 조사와 연결 어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만큼’, ‘처럼’, ‘-어도’, ‘-자마자’) • 반말, 간접 화법, 사동법과 피동법, 비교적 자주 쓰이는 보조용언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어 놓다’, ‘-어 버리다’ 등)
	4	• 자주 쓰이는 추상어 및 개념어,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와 업무 관련 어휘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자주 쓰이는 관용어와 속담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복잡한 의미를 갖는 조사와 연결 어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치고’, ‘-는커녕’, ‘-더니’, ‘-다면’) • 복잡한 맥락을 서술할 때 필요한 문법 표현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기 마련이다’, ‘-는 한’)
고급	5	•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자주 쓰이는 시사용어,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외래어, 세부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어와 속담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신문기사, 논설문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법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6	•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추상적인 어휘와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속어, 은어, 약어, 널리 알려진 방언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복잡한 의미를 갖는 관용어와 속담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신문 사설, 논설문, 학문적인 저술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법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4.2.1.2. 문항 형태 및 유형 분석

분석의 대상이 된 8곳 중 어휘·문법을 분리 평가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 해당하는 4곳이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다 기관을 제외한 다른 3곳에서도 어휘·문법 영역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어휘·문법 영역의 축소는 2014년 한국어능력시험의 체제 개편⁵²⁾에 따른 것이었다. 기존 어휘·문

법, 쓰기, 듣기, 읽기 네 영역으로 실시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은 2014년 7월 20일 35회부터 어휘·문법 영역을 폐지하고 쓰기, 듣기, 읽기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가, 라, 마 기관에서도 2014년 겨울학기 혹은 2015년 봄 학기부터 성취도 평가에서 어휘·문법 영역을 폐지하였다.

어휘·문법을 평가하고 있는 4곳은 영역의 명칭을 어휘·문법, 어휘 및 구조, 어휘·어법으로 하고 있었다. 어휘는 동일하나 문법을 가리키는 명칭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문법, 구조, 어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표33〉 어휘의 사전적 의미

어휘	의미
문법(文法)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
구조(構造)	각 부분이나 요소를 모아 어떤 전체를 만들
어법(語法)	말의 일정한 법칙

문법과 어법은 말을 전제로 그에 대한 규칙, 법칙 등을 뜻한다. 구조는 여러 요소가 모여 전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교육 현장에서는 말⁵³⁾과 결합하여

52) 한국어능력시험은 현재까지 총 3회의 체제 개편을 하였다.

내용	체제1	체제2	체제3
회차	1회 ~ 9회 (1997년 ~ 2006년)	10회 ~ 34회 (2006년 ~ 2014년 7월)	35회 ~ 57회 (2014년 10월 ~ 2017년 현재)
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종류	6종	3종	2종
영역	어휘·문법(30문항) 쓰기(30문항) 듣기(30문항) 읽기(30문항)	어휘·문법(30문항) 쓰기(14문항/15문항/16문항) 듣기(30문항) 읽기(30문항)	쓰기(4문항) 듣기(30문항/50문항) 읽기(40문항/50문항)

53) 음성 기호나 문자 기호로 나타나는 사고의 표현 수단 또는 그 체계를 뜻한다.

말의 구조라고 부른다. 각각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나 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의 규칙 혹은 법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어휘·문법’으로 통일해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어휘·문법은 <표34>와 같이 선다형과 완결형으로 각각 87.3%, 12.7%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었다. 다른 기관이 관련 능력을 선다형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나 기관은 선다형과 완결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문항 수도 약 1.65 ~ 2.1배 많았다.

<표34> 어휘·문법의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나	라	마	사	총합
선 택 형	선다형	198 (67.1)	150 (100)	141 (100)	180 (100)	669 (87.3)
	진위형	.	.	.	.	.
	배열형	.	.	.	.	.
	연결형	.	.	.	.	.
서 답 형	단답형	.	.	.	.	.
	완결형	97 (32.9)	.	.	.	97 (12.7)
	논술형	.	.	.	.	.
총합		295 (100)	150 (100)	141 (100)	180 (100)	766 (100)

등급별로 살펴보면 <표35>와 같이 초급에서는 선다형의 비율이 전체의 90%를 넘었다. 그러나 중·고급에서는 그 비율이 80%대로 떨어져 등급이 올라갈수록 서답형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35〉 어휘·문법의 등급별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초급	중급	고급	총합
선다형	237 (92.9)	217 (84.1)	215 (85)	669 (87.3)
완결형	18 (7.1)	41 (15.9)	38 (15)	97 (12.7)
총합	255 (100)	258 (100)	253 (100)	766 (100)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문항을 선다형과 완결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어휘와 문법으로 나누었다.

1) 선다형

전체 문항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 선다형은 14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어휘와 문법의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49.2%, 44.7%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었다. 그 외 기타로 분류된 6.1%는 특정 어휘와 문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여러 어휘와 문법을 결합하여 완성된 문장 혹은 문장의 일부에 밑줄을 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이것은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선다형과 같은 것으로 출제 의도가 대화 구성 능력, 문장 구성 능력, 담화 구성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어휘 사용 능력 및 문법 사용 능력,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연결 어미 능력 등을 파악하는 어휘·문법의 출제 의도와는 다르므로 이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6개 유형은 5장에서 출제 의도에 맞게 해당 영역에 포함시킬 것이다.

〈표36〉 어휘·문법의 선다형 문항 유형

단위: 개(%)

문항 유형			나	라	마	사	총합		
어휘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2 (1)	3 (2)	2 (1.4)	—	7 (1.1)		329 (49.2)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	어휘	66 (33.3)	40 (26.7)	33 (23.4)	35 (19.4)	174 (26)	193 (28.9)	
		관용 표현	6 (3)	—	5 (3.5)	1 (0.6)	12 (1.8)		
		속담	—	2 (1.3)	3 (2.1)	2 (1.1)	7 (1.1)		
	유의어 고르기		7 (3.5)	15 (10)	16 (11.4)	20 (11.1)	58 (8.6)		
	반의어 고르기		4 (2)	7 (4.7)	12 (8.5)	12 (6.7)	35 (5.2)		
	다의어 고르기		6 (3)	10 (6.7)	6 (4.3)	14 (7.8)	36 (5.4)		
문법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		52 (26.3)	48 (32)	39 (27.7)	32 (17.8)	171 (25.5)		300 (44.7)
	맞는/틀린 문장 고르기		27 (13.7)	17 (11.3)	13 (9.2)	35 (19.4)	92 (13.7)		
	밑줄과 비슷한/다른 것 고르기		2 (1)	8 (5.3)	12 (8.5)	15 (8.3)	37 (5.5)		
기타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고르기		·	·	·	1 (0.6)	1 (0.2)		40 (6.1)
	대화 완성하기		14 (7.1)	·	—	4 (2.2)	18 (2.7)		
	비슷한 의미 표현 고르기		12 (6.1)	·	·	4 (2.2)	16 (2.4)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		·	·	·	2 (1.1)	2 (0.3)		
	문장으로 연결하기		·	—	·	2 (1.1)	2 (0.3)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대화쌍 찾기		·	—	·	1 (0.6)	1 (0.2)		
총합			198 (100)	150 (100)	141 (100)	180 (100)	669 (100)		

(가) 어휘

어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은 문맥에 알맞은 것이나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어휘의 58.7%가 이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다음은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을 보고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찾는 유형은 2.1%로 가장 적었다.

〈표37〉 어휘의 선다형 문항 유형

단위: 개(%)

문항 유형		나	라	마	아	총합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2 (2.2)	3 (3.9)	2 (2.6)	.	7 (2.1)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	어휘	66 (72.5)	40 (51.9)	33 (42.8)	35 (41.7)	174 (52.9)	193 (58.7)
	관용 표현	6 (6.6)	.	5 (6.5)	1 (1.2)	12 (3.7)	
	속담	.	2 (2.6)	3 (3.9)	2 (2.4)	7 (2.1)	
유의어 고르기		7 (7.7)	15 (19.5)	16 (20.7)	20 (23.8)	58 (17.6)	
반의어 고르기		4 (4.4)	7 (9.1)	12 (15.5)	12 (14.3)	35 (10.7)	
동의어 고르기		6 (6.6)	10 (13)	6 (8)	14 (16.6)	36 (10.9)	
총합		91 (100)	77 (100)	77 (100)	84 (100)	329 (100)	

이러한 유형은 〈표38〉과 같이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문항 유형과 동일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지문, 문항 및 보기 구성 방법 등이 일치하였다.

〈표38〉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문항 유형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그림보고 대화 완성하기	2	.	.
반의어 고르기	3	2	.
유의어	3	4	.
다의어/동음어 고르기	.	2	2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7	7	11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	.	.	1
총합	15	15	14

이 유형들은 어떠한 등급에서 출제되고 또 등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유형별로 나눠 정리하였다.

①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이 유형은 대화와 그림을 함께 제시하는 문항이다.

그림을 통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이러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는 이 유형을 1~2번 문제로 배치하였다. 네 기관 중 3곳은 1급에서, 1곳은 1급과 2급에 이 유형을 출제하고 있었다.

〈자료16〉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의 예

※ 그림을 보고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나: ().

- ① 삽니다 ② 잡니다 ③ 마십니다 ④ 그림니다



②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

이 유형은 제시된 문장이나 대화나 담화의 여백을 두고 여백에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 대화, 담화 등을 완성하는 것이다. 어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다. 이전 한국어능력시험 어휘에서도 전 등급에 걸쳐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이 유형은 등급에 따라 문항의 문장 수, 글의 형태가 다르며 기본 어휘를 묻는 문항부터 관용 표현, 속담 등을 묻는 문항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초급에서는 한 문장 혹은 순서 교대 1회의 짧은 대화, 5문장 이내의 짧은 서술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정답은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하나의 어휘로 제시되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서술문의 길이가 길어졌으며 정답도 의성어, 의태어, 사자성어를 묻는 것에서 문법이 결합한 형태인 관용 표현, 속담 등으로 확장되었다. 관용 표현 및 속담을 평가하는 문항은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교재 구성과 관련이 있었다. 나 기관의 경우 관용 표현에 대한 평가가 다른 기관에서 4급 혹은 5, 6급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3급부터 이루어졌다. 또한 다른 기관이 관용 표현 및 속담을 자연스럽게 텍스트 안에서 다루거나 두세 과 단위로 배우는 것과 달리 나 기관은 3급부터 단원별로 문법, 기능별 수업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가 많았다.

〈표39〉 기관별 관용 표현 고르기의 문항 수

문항 형태	나	라	마	아	총합
선다형	6	.	5	1	12
완결형	8	.	.	.	8
총합	14	.	5	1	20

이러한 관용 표현 및 속담과 관련한 평가는 어휘 영역뿐만 아니라 〈자료 18〉과 같이 읽기 영역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 어휘 영역이 없는 다와 바 기관의 경우 읽기에서 관용 표현과 관련한 많은 문항이 출제되고 있었다.

〈자료17〉 관용 표현 고르기의 예

※ 다음을 읽고 _____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가: 어제 발표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_____ 수가 없어요.

나: 긴장하면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① 얼굴을 들

② 얼굴이 핏

③ 얼굴을 내밀

④ 얼굴이 팔릴

〈자료18〉 속담 고르기의 예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최근 인기 연예인 L씨와 W씨의 스캔들로 인터넷이 시끄럽다. 네티즌들은 ()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다. 두 사람이 공항에서 같이 출국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온 후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L씨의 매니저는 유명한 연예인들은 이런 소문이 나기 마련이라면서 L씨와 W씨는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① 그림의 떡이라면서

②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면서

③ 아닌 뎨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면서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면서

보통 이 유형은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로 출제되나 고급에서는 난이도를 높여 ‘문맥에 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로 출제되기도 한다. 문맥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들어갈 수 있는 비슷한 세 개의 답을 찾아 오답을 추려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문법에서도 고급의 마지막 세트 문항에서 이 유형이 등장한다. 〈자료19〉의 28번이 이 유형에 속한다.

〈자료19〉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의 예⁵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의기소침해진다. 자신감도 점점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 시련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도 어렸을 때는 그를 질투한 형들의 음모에 시달림을 당했다고 한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기르는 외양간지기로 일해야 했고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주를 해야만 했다. 주몽은 이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 지혜로워지고 굳건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고구려라는 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 (㉢) ’는 속담처럼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시련을 거쳐 성장한다.

28. ㉠과 바꾸어 쓸 때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고난 ② 고충 ③ 고립 ④ 고통

29.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놀라우런마는 ② 놀라울지언정
③ 놀라우리만치 ④ 놀라리라고는

30.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꿈보다 해몽이 좋다 ② 친구 따라 강남 간다
③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④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위와 같이 긴 서술문에서 알맞은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하나의 텍스트에 3개의 질문이 있는 경우 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3문항을 모두 풀 수 없다는 위험성도 있다. 이에 아 기관에서는 〈자료20〉과 같이 난이도를 낮춰 긴 담화가 아닌 한 문장으로 문제를 제시하여

54) 34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어휘 28~30번.

부담을 줄여 주었다.

〈자료20〉 문맥에 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의 예

※ 다음 괄호 안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번 회의는 정말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장님의 체면을 봐서 ()
참석했다.

① 억지로

② 소신대로

③ 마지못해

④ 부득이하게

이 유형은 등급에 따라 제시문의 형태, 평가 항목 등이 달라진다. 〈표40〉은 이를 정리한 등급별 출제 경향이다. 문맥에 알맞은 기본 어휘를 찾는 것은 모든 등급에서, 관용 표현은 중·고급에서, 속담은 고급에서 출제되고 있었다. 또한 문맥에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유형은 고급에서 글을 통해 평가된다.

〈표40〉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등급별 내용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문맥에 알맞은 어휘 찾기	한 문장	○	○	○
	대화	○	○	○
	글	○	○	○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찾기	한 문장	·	·	·
	대화	·	○	○
	글	·	○	○
문맥에 알맞은 속담 찾기	한 문장	·	·	○
	대화	·	·	○
	담화	·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찾기	한 문장	·	·	·
	대화	·	·	·
	글	·	·	○

③ 유의어 고르기

유의어(類義語)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제시된 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고르는 유형이다. 보통 문장, 대화, 담화 등에서 특정 어휘에 밑줄을 긋고 그 의미를 묻는다. 이는 쓰기의 ‘유의 표현 고르기’와 구분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21>과 같이 특정한 하나의 어휘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을 ‘유의어 고르기’라고 정의할 것이다.

<자료21> 유의어 고르기의 예

※ 밑줄 친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가방이 의자 아래에 있어요?

나: 네, 의자 ()에 있어요.

① 옆

② 위

③ 안

④ 밑

유의어 고르기는 평균 19.3문항으로 초·중·고급에서 고르게 평가되고 있었다.

<표41> 유의어 고르기의 등급별 문항 수

내용	초급	중급	고급	평균
문항 수	20	20	18	19.3

또한 이 유형은 어휘 문항의 17.6%를 차지하여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초급에서는 한 문장 혹은 대화 상황에서 어휘를 물으나 중·고급에서는 긴 담화 안에서 밑줄을 긋고 앞뒤 문맥 더 나아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풀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④ 다의어 고르기

다의어(多義語)는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것을 말한다. 어휘 문항 중 10.9%가 다의어 문항이었으며 중급 이상부터 평가되고 있었다. 이 유형은 단어가 가진 세 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평가 목표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문항도 세 문장을 놓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고르도록 제작하였다. 이 문항은 고급 단계에서 동음어(同音語)로 출제되기도 하였다.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출제 계획표에서는 다의어와 동음어를 구분하지 않고 다의어 평가로 동음어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⁵⁾ <자료22>는 마 기관의 다의어 고르기 유형에서 출제된 문항이다. 다음의 세 문장에서 제시된 동생을 보살피는 것, 집을 지키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은 모두 ‘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다의어이다. 따라서 다의어 유형에 적합하다.

<자료22> 다의어 고르기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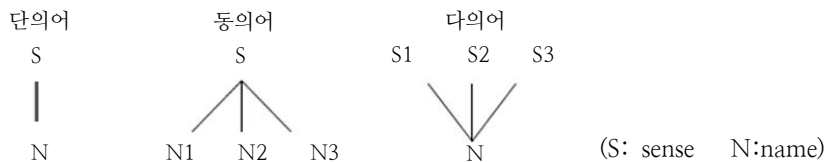
※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동사를 고르십시오.

어린 동생을 () 일은 쉽지 않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 좀 () 주세요.
 어디에선가 그 사람을 한 번 () 적이 있다.

- ① 보다 ② 만나다 ③ 지키다 ④ 보살피다

<자료23>은 아 기관의 다의어 고르기에서 출제된 문항이다. 정답인 ‘타다’가 각 문장에서 가진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떠한 조건이나 시간 등을 이용하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 ‘피부가 햇볕을 오래 쬘어 검은색으로 변

55) Ullmann(1962)은 다의어와 동음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하다’로 ‘타다’라는 소리만 같을 뿐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인 ‘타다’는 다의어가 아닌 동음어이다. 그러므로 다음 문항은 다의어 고르기가 아닌 동음어 고르기로 출제되어야 한다.

〈자료23〉 동음어 고르기의 예

※ 다음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십시오.

휴가철에는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 도둑이 드니까 조심하세요.
 부모님께 용돈을 () 사람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바닷가에서 잠시만 놀아도 피부가 까맣게 ().

- ① 보다 ② 받다 ③ 타다 ④ 입다

다음과 같이 다의어 고르기에서 출제된 34문항 중 8문항이 동음어였다.

〈표42〉 다의어 고르기에서 출제된 어휘

다의어	동음어
미끼, 풀다(356), 베다, 치다, 보다(3), 짓다(2), 돌리다, 고치다, 가리다, 흐르다, 버티다, 무르다, 심하다, 빠지다(2), 맞대다, 풀리다(2), 날리다, 시원하다, 동요하다	맞다, 낫다, 쓰다(2), 타다(2), 들다, 세우다

학습자에게 다의어와 동음어의 의미를 알려주되 반드시 이를 구별해 말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사는 이 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유형에 맞는 문항을 출제를 해야 한다.

56) 괄호의 숫자는 출제된 횟수를 의미한다.

⑤ 반의어 고르기

반의어(反意語)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를 말한다. 보통 동의어(同義語), 유의어(類義語)와 반대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의어는 초급과 중급에서 많이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마 기관에서는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의어 평가는 한 문장의 서술문에서 평가되기도 하고 대화 상황에서 평가되기도 한다. 평가하고자 하는 어휘에 밑줄을 긋고 의미를 묻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문항에서 두 개의 어휘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24〉 반의어 고르기의 예①

※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시험 기간이라 같이 모여서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 ① 적당하다 ② 분명하다 ③ 정리하다 ④ 충분하다

〈자료25〉 반의어 고르기의 예②

※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되는 뜻을 가진 것을 고르십시오.

가: 이 가방을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나: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 한번 가 보세요.

- ① 포장해요 ② 교환해요
③ 판매해요 ④ 주문해요

(나) 문법

성취도 평가에서 문법은 3개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전체 유형의 절반 이상이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혹은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으며 틀린 문장 혹은 맞는 문장 고르기도 약 30% 가량 출제되고 있었다. 틀린 문장과 맞는 문장의 출제 비율은 14.3:1⁵⁷⁾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문법 평가는 사용의 오류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밑줄과 비슷하거나 다른 것 고르기 유형이 있었다. 이 유형은 문항의 94.6%⁵⁸⁾가 밑줄과 같은 것을 고르기로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어휘·문법 영역에서 비슷한 어휘나 문법을 사용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43〉 문법의 선다형 문항 유형

단위: 개(%)

문항 유형	나	라	마	아	총합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	52 (64.2)	48 (65.8)	39 (60.9)	32 (39)	171 (57)
틀린/맞는 문장 고르기	27 (33.3)	17 (23.3)	13 (20.3)	35 (42.7)	92 (30.7)
밑줄과 비슷한/다른 것 고르기	2 (2.5)	8 (10.9)	12 (18.8)	15 (18.3)	37 (12.3)
총합	81 (100)	73 (100)	64 (100)	82 (100)	300 (100)

①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

문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은 어휘와 마찬가지로 문장, 대화, 담화 등에 여백을 두고 알맞은 혹은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유형이었다. 300

57) 틀린 문장 고르기는 86문항, 맞는 문장 고르기 6문항이 출제되었다.

58) 밑줄과 비슷한 것 고르기가 35문항, 밑줄과 다른 것 고르기가 2문항이 출제되었다.

문항 중 171문항인 57%가 이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문법 문항을 참고하여 이 유형을 세분화하면 크게 문법, 연결 어미, 조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문법은 조사와 연결 어미를 제외한 모든 문법 항목을 포함시킨 것이다. 조사 결과 연결 어미가 55.6%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문법이 29.2%, 조사가 15.2%로 나타났다.

〈표44〉 문맥에 알맞은/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의 내용

내용	문법	연결 어미	조사	총합
문항 수	50	95	26	171
출제 비율	29.2	55.6	15.2	100

첫째,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는 대화와 짧은 서술문으로 제시되거나 80% 이상이 대화로 제시된다. 이때 순서 교대는 초·중·고급 모두 1회이다. 어휘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이 〈자료26〉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제시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를 통해 어휘는 문장 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문법은 대화를 통해 문장 내, 문장 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26〉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예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계절을 좋아해요?

① 무슨

② 누구

③ 무엇

④ 언제

대화로 제시된 문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27〉은 ‘가’의 ‘어제부터 머리가 아파요’를 읽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나’의 문장만을 읽었을 때는 ①, ②, ③, ④가 모두 답이 되기 때문이다.

〈자료27〉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예②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어제부터 머리가 아파요.

나: 그러면 병원에 ().

① 가겠어요

② 가고 싶어요

③ 가 보세요

④ 갈 수 있어요

둘째, 연결 어미는 문법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많이 출제된다. 문법과 마찬가지로 대화와 서술문으로 제시되며 대화는 순서 교대 1회이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가 같으나 연결 어미 고르기는 ‘가’와 ‘나’의 대화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복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장 내 앞뒤 문맥을 파악해야 하는 능력이 하나 더 요구된다.

〈자료28〉과 같이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가’의 앞뒤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③ 가니까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남은 ①, ②, ④는 ‘나’의 대답을 읽고 ‘가’ ‘나’의 대화 상황을 이해하여 ① 가면, ② 가서가 정답이 될 수 없음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문항보다 난이도가 높다.

〈자료28〉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 고르기의 예

※ 다음 읽고 _____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여의도에 빨리 _____ 무엇을 타는 게 좋을까요?

나: 지금은 길이 막하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① 가면

② 가서

③ 가니까

④ 가려면

셋째, 알맞은 조사 고르기는 문법과 연결 어미의 중간 형태로 출제되고 있었다. 초급에서는 한 문장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급이 올라갈수록 대화, 짧은 서술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 유형은 하나의 문제에서 두세 개의

조사를 함께 묻는 다답형의 형태로도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

〈자료29〉 문맥에 알맞은 조사 고르기의 예

※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버스 정류장(㉠) 편의점 사이(㉡) 친구를 기다립니다.

① ㉠ - 을 ㉡ - 에서

② ㉠ - 을 ㉡ - 에

③ ㉠ - 과 ㉡ - 에서

④ ㉠ - 과 ㉡ - 에

이 유형은 대부분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로 출제되었으며 약 1%에 해당하는 2문항이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문법 평가는 학습자가 틀린 문장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옳은 문장을 만들고 익히는 것에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맞는/틀린 문장 고르기

이 유형은 제시한 문장 중 맞거나 틀린 문장을 고르는 문항이다. 문장 전체를 구성하는 능력이 아닌 문장 안에서 밑줄 친 문법, 연결 어미, 조사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였는가를 보는 것이다.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문항에서 여백을 채운 후 밑줄로 제시하는 형태이다.

제시는 짧은 한 문장으로 하며 4개의 문장을 함께 제시한 후 맞거나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한다. 문항의 93.5%가 틀린 문장 고르기이며 전체 문항의 6.5%에 해당하는 6문항만이 네 문장 중에서 맞는 한 문장을 고르는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이는 문법 평가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하고 익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자료30〉 틀린 문장 고르기의 예

※ 다음 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제가 나중에 전화할까요?
- ② 저는 지금 숙제하고 있어요.
- ③ 어제 일이 많아서 바쁘겠어요.
- ④ 금요일이 수진 씨 생일이지요?

틀린 문장 고르기는 〈표45〉와 같이 초·중·고급에서 고루 출제되었는데 초급에서는 높임 어휘, 불규칙 활용, 시제에 대한 문제가 많으며 중·고급에서는 연결 어미 및 종결형인 문법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 또 고급에서는 밑줄을 빼고 네 문장을 제시하여 수험자가 직접 틀린 부분을 찾도록 하여 난이도를 높였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전 등급에서 고루 평가되고 있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져 초·중·고급 문법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45〉 틀린/맞는 문장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25	35	32	92
출제 비율	27.2	38	34.8	100

③ 밑줄과 비슷한/다른 것 고르기

이 유형은 완성된 문장의 대화 형태로 제시된다.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밑줄을 긋고 그것과 바꿔 쓸 수 있는 것 혹은 그것과 반대 되는 의미를 가진 것을 고르는 유형이다. 어휘의 유의어 및 반의어와 평가 목표가 같으며 하나의 문항에서 두 개의 문법, 연결 어미, 조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자료31〉 밑줄과 비슷한 것 고르기의 예

※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가: 한국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한국에 왔습니다.

① 공부하니

② 공부하려고

③ 공부하면서

④ 공부하자마자

위 문항은 제시된 대화 상황 및 문맥을 이해하고 밑줄 친 것과 비슷한 것을 골라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아 기관의 경우 초급에서부터 이 유형을 출제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급 이상에서 출제하고 있었다. 의미가 다른 것 고르기는 전체 문항 중 약 5%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아 비슷한 표현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반대되는 표현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기타

기타로 분류된 문항은 총 40문항이며 이 문항은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표46〉 기타의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문항 수	비율
1	대화 완성하기	18	45
2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	16	40
3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	2	5
4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	2	5
5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쌍 고르기	1	2.5
6	속담의 의미 고르기	1	2.5
총합		40	100

〈표46〉의 6개 유형 중 1번~4번은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영역에서 선다형으로 출제되었던 것이다. 즉, 이 문항은 어휘·문법 평가가 아닌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이 체제 개편을 통해 쓰기의 선다형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반영되어 쓰기 평가에서 선다형을 폐지하는 기관에 늘어났다. 따라서 이 유형은 쓰기의 선다형 문항의 폐지로 인해 같은 표현 영역인 어휘·문법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기타 문항의 65%⁵⁹⁾가 출제되고 있는 나 기관의 경우 쓰기 평가를 전 급에 걸쳐 긴 글 쓰기인 ‘논술형’ 2문항으로만 평가하고 있었다. 또 다섯 번째 유형은 대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으로 듣기에, 여섯 번째는 앞 문장에서 제시한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맞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읽기에 속한다. 즉, 두 문항은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자료32〉와 〈자료33〉이 그 예이다.

59) 〈표 36과〉에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 총 40문항이다. 이 중에서 26문항이 나 기관에서 출제되었다.

〈자료32〉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쌍 고르기의 예

※ 다음 대화의 상황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가: 요즘 미나 씨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 헤어진 남자 친구와 오래 만났다더니 힘든가 봐요.
- ② 가: 많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요즘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 ③ 가: 고향을 떠나 지내면서 그리웠던 적은 없었어요?
나: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 믿어주더라고요.
- ④ 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나: 안 그래도 얼굴이 너무 창백하네요. 얼른 병원에 가 보세요.

〈자료33〉 표현 영역에서 잘못 출제된 속담 고르기의 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말을 (㉠) 하면 아주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도 있다. 이 속담은 (㉡) .

28. 글을 읽고 ㉡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① 말을 예쁘게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 ②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 ③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을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 ④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자료33〉이 표현 영역에서 평가되려면 속담의 의미가 아닌 속담 자체를 물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자료34〉 표현 영역에서의 속담 고르기의 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말을 (㉠) 하면 아주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라는 속담도 있다. 이 속담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다.

28. ㉡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① 등잔 밑이 어둡다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③ 구슬이 서 말이라고 꿰어야 보배다
- ④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듯 기타로 분류된 문항은 표현의 다른 영역에 속하는 문항이나 여러 이유로 해당 영역에서 평가할 수 없는 문항들이 모인 것이다. 또 표현과 이해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제가 잘못된 문항이었다.

2) 완결형

어휘·문법은 선다형과 완결형으로 출제되었으며 이 중 완결형은 나 기관에 서만 나타났다. 완결형의 출제 비율은 〈표47〉과 같이 급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급에서는 18%에 불과하였으나 중·고급에서는 각각 41%, 40%가 출제되어 초급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졌다. 이는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어휘와 문법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47〉 나 기관의 어휘·문법 문항 형태

단위: 개(%)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선다형	82 (82)	59 (59)	57 (60)	198 (67.1)
완결형	18 (18)	41 (41)	38 (40)	97 (32.9)
총합	100 (100)	100 (100)	95 (100)	295 (100)

이러한 완결형은 어휘와 문법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었다. 〈표48〉과 같이 어휘 48.5%, 문법 51.5%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초·중급에서는 문법이 고급에서는 어휘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 또 초급에서 22.2%였던 어휘와 문법 간 격차는 중급에서는 7.4%로 줄어 어휘 평가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급 이상부터는 어휘에서 관용 표현과 속담을 평가하는데 나 기관의 경우 앞에서 전술하였다시피 중급부터 단원별로 관용 표현이나 속담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48〉 완결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단위: 개(%)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어휘	7 (38.9)	19 (46.3)	21 (55.3)	47 (48.5)
문법	11 (61.1)	22 (53.7)	17 (44.7)	50 (51.5)
총합	18 (100)	41 (100)	38 (100)	97 (100)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 문장을 완성하는 것은 문장 구성 능력으로 쓰기에

서 평가되는 것이다. 나 기관의 경우 쓰기를 긴 글쓰기 즉, 논술형의 2문항으로 평가하므로 이를 어휘·문법 영역에서 다루고 있었다.

기타 분류된 문항과 완결형 문항 중 쓰기와 관련한 유형은 4.2.2 쓰기 평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4.2.2. 쓰기

4.2.2.1. 평가의 목적 및 평가 기준

한국어 성취도 평가의 쓰기는 단순히 글을 베껴 쓰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쓰기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의 어휘, 문법, 문장 구조를 익혀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 평가의 목표도 글을 통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능력 즉, 글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측정이란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서답형의 짧은 혹은 긴 글쓰기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선택형을 폐지하고 서답형의 4문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쓰기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능력을 서답형을 통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쓰기 채점 기준을 살펴보면 글쓰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표49〉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채점 기준

문항	평가 범주	평가 내용
51~52	내용 및 과제 수행	• 제시된 과제에 맞게 적절한 내용을 썼는가?
	언어 사용	• 어휘와 문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53~55	내용 및 과제 수행	•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언어 사용	•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 •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이러한 능력 및 평가 내용은 등급별로 다르다. 이를 반영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의 등급별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0〉 쓰기의 등급별 평가 기준

등급		평가 기준
초급	1	- 정형화된 표현이나 외운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이나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해 짧은 생활문을 쓸 수 있다. - 글자 구성 원리를 이해하여 맞춤법에 맞게 글씨를 쓸 수 있다.
	2	- 사용 빈도가 높은 조사와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해 생활문을 쓸 수 있다. - 간단한 메모, 편지, 안내문 등의 실용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중급	3	-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글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 -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 설명문의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문어체 종결형을 사용해 글을 쓸 수 있다.
	4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서류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간단한 감상문, 설명문, 수필 등을 쓸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고급	5	- 자신과 관련이 적은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다. - 업무나 학문 등의 전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글을 쓸 수 있다. - 다양한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격식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감상문, 설명문, 수필, 보고서, 논설문 등을 쓰거나 요약할 수 있다.
	6	- 자신의 업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다. - 한국어 담화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다. -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 논문, 연설문, 공식적인 문서 등을 쓸 수 있다.

4.2.2.2. 문항 형태 및 유형

쓰기의 640문항은 선택형의 선다형, 서답형의 단답형, 완결형, 논술형 4개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표51〉 쓰기의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선택형	선다형	.	.	52 (36.4)	.	33 (45.8)	.	50 (47.6)	102 (70.4)	237 (37)
	진위형	.	.	.	.	.	.	.	.	.
	배열형	.	.	.	.	.	.	.	.	.
	연결형	.	.	.	.	.	.	.	.	.
서답형	단답형	.	.	13 (9.1)	.	.	3 (4)	1 (1)	.	17 (2.7)
	완결형	2 (14.3)	.	57 (39.8)	50 (67.6)	17 (23.6)	43 (57.3)	31 (29.5)	26 (17.9)	226 (35.3)
	논술형	12 (85.7)	12 (100)	21 (14.7)	24 (32.4)	22 (30.6)	29 (38.7)	23 (21.9)	17 (11.7)	160 (25)
총합		14 (100)	12 (100)	143 (100)	74 (100)	72 (100)	75 (100)	105 (100)	145 (100)	640 (100)

8개 기관의 쓰기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나눠 설명할 수 있다.

〈표52〉 쓰기의 평가 내용

영역		문항 형태	기관	기타
1	쓰기	선택형, 서답형	마, 사	
		서답형	가, 나, 라, 바,	
2	어휘 · 문법	선택형	다, 아	어휘 · 문법 영역 없음.
	쓰기	서답형		

우선 평가가 쓰기의 단독 평가이나 다른 영역의 혼합 평가이나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가, 나, 라 등 6곳은 쓰기 능력만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다, 아 2곳은 쓰기 평가에서 어휘·문법 능력을 분리해 평가하고 있었다. 이 경우 쓰기 능력의 일부로 어휘 및 문법의 언어 사용 능력을 글 안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어휘·문법 영역 부재로 인해 어휘·문법 영역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옮겨 평가하고 있었다. 관련 능력은 쓰기의 앞 부분에서 선다형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다음은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어휘·문법 영역의 문항을 제외한 쓰기의 선다형 문항은 대화 완성하기, 유의 표현 고르기, 알맞은 표현을 골라 글 완성하기, 문장 연결하기, 문맥에 틀린 문장 고르기 유형, 표나 그래프 설명으로 맞는/틀린 것 고르기 6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선다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선다형을 통해 쓰기 능력을 간접 평가하고 있는 예이다.

〈표53〉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문항 유형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대화 완성하기	5	4	4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	2	·	·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	·	2	2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1	2	2
맥락에 알맞지 않은 문장 고르기	1	·	·
안내문/그래프의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1	2	2
총합	10	10	10

1) 선택형

쓰기의 선택형 문항은 8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나타났으며 100% 선다형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이 문항을 통해 어휘·문법과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표54〉 쓰기의 선택형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선다형	.	.	52 (100)	.	33 (100)	.	50 (100)	102 (100)	237 (100)
진위형	.	.	.	.	.	.	.	.	.
배열형	.	.	.	.	.	.	.	.	.
연결형	.	.	.	.	.	.	.	.	.
총합	.	.	52 (100)	.	33 (100)	.	50 (100)	102 (100)	237 (100)

237개의 선다형 문항에서 어휘·문법 문항을 제외한⁶⁰⁾ 쓰기 문항은 102개였

60) 다, 라 기관은 어휘·문법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쓰기의 선다형에서 관련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어휘·문법에 해당하는 선다형은 다음과 같이 135개였다.

〈쓰기 평가 내 어휘·문법 문항 수〉

영역	유형		다	아	총합
어휘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	2	2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어휘	8	20	28
		관용 표현	2	4	6
		속담	2	2	4
	유의어 고르기		3	15	18
	반의어 고르기		·	10	10
	다의어 고르기		·	2	2
문법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조사	·	4	4
		문법	8	11	19
		연결 어미	2	11	13
	틀린 것 고르기	문법	3	·	3
		문장	3	12	15
	맞는 문장 고르기		4	·	4
	의미가 같은 것 고르기		·	7	7
총합			35	100	135

으며 이 문항은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선다형을 통한 쓰기 평가는 대화 완성하기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기, 안내문이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거나 틀린 것 고르기가 각각 14.7%, 13.7%로 그 뒤를 이었다. 글의 일부의 여백을 두고 알맞은 표현을 찾는 유형은 3.9%로 가장 적게 출제되고 있었다.

〈표55〉 쓰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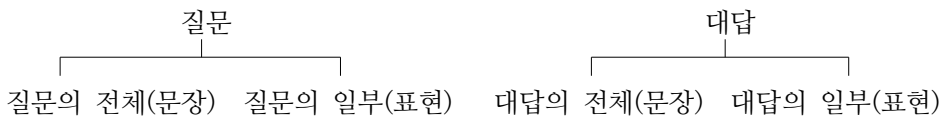
문항 유형	다	마	사	아	총합
대화 완성하기	9 (52.9)	18 (54.5)	22 (44)	·	49 (48)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	8 (47.1)	2 (6.1)	5 (10)	·	15 (14.7)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	·	6 (18.2)	6 (12)	·	12 (11.8)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	·	4 (8)	·	4 (3.9)
문맥에 알맞지 않은 문장 고르기	·	2 (6.1)	6 (12)	·	8 (7.9)
안내문/그래프의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	5 (15.1)	7 (14)	2 (100)	14 (13.7)
총합	17 (100)	33 (100)	50 (100)	2 (100)	102 (100)

쓰기의 선다형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가) 대화 완성하기

이 유형은 대화 상황 및 문맥을 이해하고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무엇을 묻느냐 정답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4개 형식으로 출제된다. 예를 들면 답은 질문일 수도 있고 대답일 수도 있다. 또 답으로 질문이나 대답의 전체를 물을 수도 있고 문장의 일부를 비워 놓고 알맞은 표현을 고르게 할 수 있다.

〈표56〉 대화 완성하기의 답 구성 방법



유형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35〉는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것으로 답은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자료36〉은 대답에 적합한 질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문장의 일부를 비워 놓고 표현을 묻고 있다.

〈자료35〉 대화 완성하기 유형의 예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언제 운동을 해요?

나: _____.

① 친구와 해요

② 저녁에 해요

③ 달리기를 해요

④ 운동장에서 해요

〈자료36〉 대화 완성하기 유형의 예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벌써 5시예요. _____ 어떻게 하지요?

나: 지하철을 타면 회의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서두르세요.

- ① 회의에 빨리 가야 하는데
- ② 회의가 거의 끝났을 텐데
- ③ 회의 시간에 너무 일찍 도착하면
- ④ 회의 시간이 연기되었다고 하니

이 유형은 95%가 순서 교대 1회로 제시되고 주어진 네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답을 고르는 정답형 형태였다. 그러나 〈자료37〉과 같은 〈보기〉를 주고 대화 상황에 맞게 번호를 골라 쓰도록 하는 형태로도 출제된다. 이 형태는 문제당 보기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어 출제의 부담이 적고 지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므로 수험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 및 연습이 필요하다.

〈자료37〉 대화 완성하기 유형의 예③

※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에 번호를 쓰세요.

_____ 〈보 기〉 _____

- ① 네, 전데요
- ② 좀 바꿔 주세요
- ③ 자리에 안 계신데요
- ④ 메모 좀 전해 주세요

A: 여보세요? 거기 한국 회사지요? 김민수 씨 ().

B: 지금 (). 회의 중이에요.

A: 죄송하지만 ().

B: 네, 말씀하세요.

대화 완성하기는 선다형 문항 중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초·중·고급에서 고루 평가되고 있었다.

(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

이 유형은 연결 어미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어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연결한 것을 고르는 것이다. 문법의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와 평가 목적이 같다. 문법에서는 대화로 제시되며 문장의 일부에 여백을 두고 연결 어미를 물으나 쓰기에서는 두 문장을 주고 하나로 연결하도록 한다.

같은 유형이 영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출제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38>은 문법, <자료39>는 쓰기의 예이다.

<자료38> 연결 어미 평가의 예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버스를 타고 왔어요?

나: 아니요, 학교에 () 택시를 탔어요.

① 늦어서

② 늦거나

③ 늦는데

④ 늦으면

<자료39> 연결 어미 평가의 예②

※ 다음 두 문장을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학교에 늦었다. 택시를 탔다.

① 학교에 늦어서 택시를 탔다.

② 학교에 늦거나 택시를 탔다.

③ 학교에 늦는데 택시를 탔다.

④ 학교에 늦으려고 택시를 탔다.

〈자료38〉의 보기 중 ④ ‘늦으면’은 위 대화 상황에서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쓰기의 오답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쓰기는 문장 안에서의 연결 어미의 사용 능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교에 늦으면 택시를 탔어요’는 틀린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늦으려고’로 바꿔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문항을 대화로 구성해 평가하고자 하는 연결 어미에 여백을 두고 제시하면 문법의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에, 두 문장을 제시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보기를 제시하면 쓰기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에 속한다. 같은 평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영역별 특성에 따라 문항 및 보기 구성 등이 다르게 출제되는 것이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는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의 초급 쓰기에서 난이도 1급상, 2급상으로 출제되었으나 성취도 평가에서는 〈표57〉과 같이 초·중·고급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항이 초급에 몰려 있어 문장 연결과 관련한 능력은 초급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표57〉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의 등급별 문항 수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8	2	5	15

(다)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

이 유형은 대화 상황을 이해하여 밑줄 친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비슷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문법의 ‘밑줄의 의미와 비슷한 것 고르기’와 평가 목적이 같다. 그러나 문법은 〈자료40〉과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한 하나의 것에 밑줄을 긋고 그 사용을 물으나 쓰기는 어휘와 문법, 표현의 결합 형태로 제시되어 그 범위가 넓어진다. 〈자료41〉과 같이 어휘인 ‘전화를 안 받다’는 ‘연락이 안 되다’로, ‘많이 걱정하다’는 표현과 결합하여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로 바꾸어 답을 구성한다. 단순 문법 교체가 아닌 어휘 및 문법, 표현의 결합을 평가하는 것이 쓰기의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 유형이다.

〈자료40〉 밑줄과 비슷한 것 고르기의 예

※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가: 터미널에 언제쯤 도착해요?

나: 6시쯤이요. 내리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

- | | |
|---------|----------|
| ① 내리느니 | ② 내리기 전에 |
| ③ 내리자마자 | ④ 내려 보니까 |

〈자료41〉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의 예

※ 밑줄 친 부분을 같은 의미로 바꾸어 쓴 것을 고르십시오.

가: 늦어서 죄송해요. 휴대전화까지 집에 놓고 와서 연락을 못했어요.

나: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전화를 안 받아서 많이 걱정했어요.

- ① 걱정한다고 해서 전화했어요
- ②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 걱정이예요
- ③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 ④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 유형은 문법에서는 초·중·고급에서 평가하고 있었으나 쓰기에서는 중급부터 평가하고 있었다.

(라)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이 유형은 글의 일부를 비워 놓고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 어휘·문법의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와 평가 목적이 같으나 쓰기에서는 어휘·문법, 표현과 결합해 보기를 구성한다.

〈자료42〉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예

※ 다음을 읽고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2월에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선배들이 도와준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 ① 다른 것이 우선이기는 했지만
- ② 일이 많아도 아무 상관없었지만
- ③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 ④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유형은 초·중·고급에서 모두 평가되고 있었다. 정답의 길이 및 결합 형태를 달리하여 급별로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초급에서는 어휘와 문법, 중·고급에서는 어휘와 문법 그리고 표현의 결합 형태로 정답이 제시되고 있었다.

(마) 맥락에 알맞지 않은 문장 고르기

이 유형은 전체 글을 이해하여 흐름에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는 것이다. 문법 영역의 ‘틀린 문장 고르기’와 유사하다. 두 유형 모두 네 문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문법은 관계가 없는 네 문장이 보기로 제시되고 각각의 문장 안에서 문법 오류를 찾는다. 하지만 쓰기는 유기적인 네 문장이 정문으로 제시된다. 즉,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법 사용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초·중·고급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었다. 초급에서는 시제와 관련한 어휘, 문법, 표현 능력을, 중·고급에서는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접속사, 내용 구성 등과 관련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자료43〉 맥락에 알맞지 않은 문장 고르기의 예

※ 다음을 읽고 틀린 문장을 고르십시오.

- ①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②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를 갈 겁니다.
③ 거기에서 학교에 다닐 겁니다. ④ 서울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바) 안내문/그래프의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이 유형은 제시한 자료의 해석 능력과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는 4개의 문장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글로 제시되기도 한다.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같으나 답의 제시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글 안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상위 능력이다. 이러한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급에서는 문장으로 중·고급에서는 글로 제시된다. 〈자료44〉와 〈자료45〉가 그 예이다.

〈자료44〉 초급의 예

※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저희 결혼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 일시: 2009년 8월 22일(일), 11:30
- 장소: 마포 예식장 2층 (식사 3층)
- 위치: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 앞
- 기타: 주차 가능(2시간 무료)

- ① 일요일 오전에 결혼을 합니다.
② 주차는 2시간까지 무료입니다.
③ 결혼식장은 지하철 근처에 있습니다.
④ 결혼식장과 식당은 같은 층에 있습니다.

〈자료45〉 중급의 예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태권도 동아리 회원 모집

- 대상: 외국인 유학생
- 수업 시간: 월, 수, 금 18:00 ~ 19:00
- 모집 기간: 9월 1일(월) ~ 9월 14일(일)
- 신청 방법: 한국관 201호에서 신청서 작성
근무 시간: 월 ~ 금 09:00 ~ 17:00
- 문의: 02) 789 - 1234, KOR@kor.com

한국 대학교

한국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① 수업은 월, 수, 금 주 3회이며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은 ② 한국관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③ 평일에만 가능하고 오후 7시 전까지 오셔야 합니다. ④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유형에서 안내문은 초·중급에서 그래프는 중·고급에서 출제되었다.

2) 서답형

쓰기의 서답형 문항의 분석은 4.1에서 제시한 ‘지필 평가 문항 형태 분석 기준’에 따랐다. 그 결과 서답형은 단답형, 완결형, 논술형 형태로 출제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56.1%의 완결형이었으며 논술형도 39.7%를 차지하여 높은 출제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단답형은 4.2%에 그쳤다.

완결형의 출제 비율이 높고 단답형의 비율이 낮은 것은 기존 연구와 문항

을 나누는 기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장 완성하거나 대화 완성하기의 답을 제한된 형태, 답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인 단답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일부를 비워 놓고 빈칸의 답을 요하는 문항을 모두 완결형으로 보았다. 분석 시 단답형과 완결형을 나누는 기준을 여러모로 고민하였으나⁶¹⁾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되어야 하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를 나눌 명확한 기준으로 문장에 ‘여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았다. 이에 완결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58〉 쓰기의 서답형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단답형	.	.	13 (14.3)	.	.	3 (4)	1 (1.8)	.	17 (4.2)
완결형	2 (14.3)	.	57 (62.6)	50 (67.6)	17 (43.6)	43 (57.3)	31 (56.4)	26 (60.5)	226 (56.1)
논술형	12 (85.7)	12 (100)	21 (23.1)	24 (32.4)	22 (56.4)	29 (38.7)	23 (41.8)	17 (39.5)	160 (39.7)
총합	14 (100)	12 (100)	91 (100)	74 (100)	39 (100)	75 (100)	55 (100)	43 (100)	403 (100)

쓰기의 서답형의 세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61) 다음은 1급에서 출제된 서답형의 대화 완성하기 문항이다.

가: 비빔밥을 좋아해요?

나: 아니요, 비빔밥을 ()

출제자가 예상한 답은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이다. 그러나 ‘싫어해요’, ‘가끔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등도 답이 될 수 있다. 또 ‘먹으면 배가 아파요’도 답이 될 수 있다. 초급의 경우는 어느 정도 답의 범위를 줄일 수 있지만 학습한 어휘, 문법, 표현이 많아지는 중·고급에서는 단답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문항에서도 다양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가) 단답형

단답형은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쓰는 것을 말한다. 이때 답은 제한된 형태로 유도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출제자,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개입이 없이 정해진 정답만을 쓰는 것을 단답형으로 보았다. 단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문장에 여백을 두고 묻는 형태는 제외하였다.

쓰기의 단답형은 문법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는 것이었다. 이것은 틀린 부분을 제시하고 고쳐 쓰도록 하는 것과 수험자가 문장에서 직접 잘못된 것을 골라 바르게 고쳐 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 밑줄에 번호를 부여하여 숫자와 정답을 모두 쓰도록 하였다. 이는 선다형과 단답형의 결합된 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선다형 단답형이라고 할 것이다.

〈자료46〉 단답형의 예

※ 다음을 맞게 고쳐 쓰십시오.

어제 보는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보는 → _____

〈자료47〉 선다형 단답형의 예

※ 틀린 것을 찾아 번호를 쓰고 맞게 고치십시오.

보통 아침을 먹었고 학교에 오는데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밥을 못 먹었어요.

①

②

③

④

()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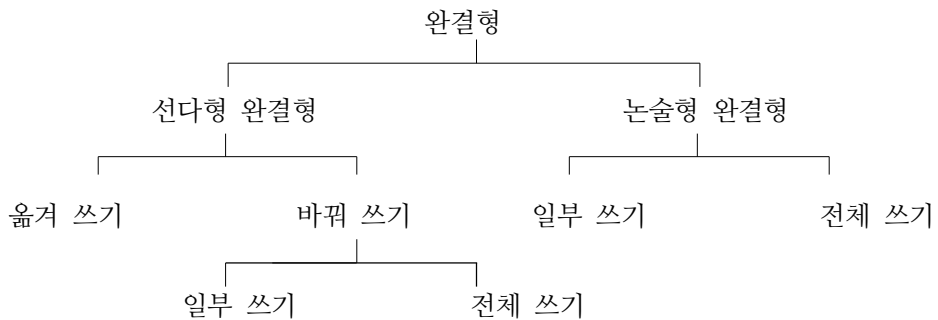
문법 능력을 평가하는 쓰기 단답형은 초급에서 출제되고 있었다.

(나) 완결형

완결형은 문장에 여백을 두고 묻는 형태이다. 이것은 언어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가장 유용한 형태이다. 특정 어휘 및 문법, 표현의 이해 및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항 분석을 통해 완결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보기〉를 제시하고 알맞은 것을 골라 쓰기, 제시한 문법을 알맞게 바꿔 쓰기,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 및 문장 전체 완성하기 등의 여러 형태가 나타나 이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도 평가의 완결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기준은 〈보기〉 제시, 주어진 어휘 및 문법의 활용 여부, 여백의 범위 등이었다.

〈표59〉 완결형 문항 유형



위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완결형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다형 완결형과 논술형 완결형은 각각 61.1%, 38.9%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었다. 선다형 완결형에서는 주어진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맥에 맞게 바꿔 문장의 일부를 쓰는 것이, 논술형 완결형에서는 글의 일부를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

〈표60〉 완결형의 출제 비율

단위: 개(%)

문항 유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선 다 형	옳게 쓰기		.	.	14 (24.6)	5 (10)	.	15 (34.9)	2 (6.4)	4 (15.4)	40 (17.7)	138 (61.1)
	바 꿔 쓰 기	일부 쓰기	.	.	30 (52.6)	18 (36)	9 (52.9)	5 (11.6)	6 (19.4)	8 (30.8)	76 (33.7)	
		전체 쓰기	.	.	4 (7)		3 (17.7)	1 (2.3)	8 (25.8)	6 (23.1)	22 (9.7)	
논 술 형	일부 쓰기		2 (100)	.	7 (12.3)	26 (52)	5 (29.4)	22 (51.2)	9 (29)	2 (7.7)	73 (32.3)	88 (38.9)
	전체 쓰기		.	.	2 (3.5)	1 (2)	.	.	6 (19.4)	6 (23.1)	15 (6.6)	
총합			2 (100)	.	57 (100)	50 (100)	17 (100)	43 (100)	31 (100)	26 (100)	226 (100)	226 (100)

보다 자세한 형태별 설명 및 유형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다형 완결형

선다형 완결형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나 문법, 표현이 〈보기〉로 제시된다. 수험자는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한다. 이 형태는 주어진 것의 활용 여부에 따라 옳게 쓰기, 바뀔 쓰기로 나뉘며 바뀔 쓰기의 경우 여백의 범위에 따라 일부 쓰기, 전체 쓰기로 나뉜다.

①-1. 옳게 쓰기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그대로 옳게 쓰는 것이다. 이 문항의 평가 항목은 형태 변화가 없는 어휘와 조사이다.

〈자료48〉 옮겨 쓰기의 예

※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_____ 〈보 기〉 _____					
도	만	을/를	이/가	에	에서

1.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외국 사람입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입니다.
2. 내일 서울()에 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3. 연필() 많아요. 20개 있어요

이 유형은 〈표61〉과 같이 문장 내 어휘 및 조사의 사용을 익히는 초급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중·고급에서는 부사의 의미 및 사용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았다.

〈표61〉 옮겨 쓰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27	9	4	40
출제 비율	67.5	22.5	10	100

①-2. 바꿔 쓰기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 내 의미 및 시제에 따라 바꿔 쓰는 것이다. 이 유형은 여백이 문장의 일부이나 전체이나에 따라 일부 쓰기, 전체 쓰기로 나뉜다. 일부 쓰기는 한 문장이나 대화로 제시되며 그것의 일부에 여백을 두지만, 전체 쓰기는 대화로만 제시된다. 이때 대화는 질문만 제시되고 대답의 전체에 괄호나 밑줄로 여백을 둔다. 〈자료49〉와 〈자료50〉은 일부 쓰기와 전체 쓰기의 예이다.

〈자료49〉 일부 쓰기의 예

※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 기〉			
듣다	멀다	쓰다	춡다

1. 날씨가 () 옷을 많이 입었어요.
2. 편지를 () 부모님께 보냈어요.
3. 가: 학교에 어떻게 갈까요?
나: 학교가 () 버스를 탑시다.
4. 가: 월슨 씨, 어제 무엇을 했어요?
나: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를 ().

〈자료50〉 전체 쓰기의 예

※ 〈보기〉에서 알맞은 문법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 기〉		
-(으)ㄴ/는 반면에	-(으)ㄴ점	-(으)ㄴ뿐만 아니라

1. 가: 미나 씨, 요즘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나: _____.
2. 가: 이 휴대전화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나: _____.

선다형 완결형은 불규칙 활용 및 특정 문법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으며 관용 표현과 숙담의 이해 및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었다.

이 형태는 〈표62〉와 같이 초·중·고급에서 31.6%, 39.8%, 28.6%의 비율로 고루 출제되고 있었다. 일부 쓰기가 전체 쓰기에 비해 약 3.5배 많이 출제되고 있었으며 일부 쓰기는 중급에서 전체 쓰기는 초급에서 출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62〉 바뀐 쓰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일부 쓰기	19	34	23	76
	전체 쓰기	12	5	5	22
출제 비율		31.6	39.8	28.6	100

② 논술형 완결형

이것은 선다형 완결형에서 〈보기〉가 빠진 형태로 수험자 스스로 문맥이나 상황을 이해하여 여백을 채워야 한다. 간혹 출제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 문법이 주기도 한다. 이 형태는 선다형 완결형과 같이 일부 쓰기와 전체 쓰기로 나뉜다.

우선 일부 쓰기는 다음과 같이 대화, 문장, 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었으며 글의 종류 및 지시문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표63〉 일부 쓰기의 평가 방법

종류	평가 방법
대화	1.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를 완성한다. 2. 상황을 이해하고 주어진 어휘/문법으로 대화를 완성한다.
문장	1. 문맥을 이해하고 문장을 완성한다. 2. 문맥을 이해하고 주어진 어휘/문법으로 문장을 완성한다. 3. 주어진 것으로 문장을 완성한다. 4. 제시된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한다.
글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글을 완성하다.

대화, 문장, 글을 활용한 문항의 예는 각각 <자료51>, <자료52>, <자료53>과 같다.

〈자료51〉 일부 쓰기의 예①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1. 가: 여기 커피 두 잔 주세요.

나: 네, 잠깐만 ().

-(으)세요

2. 가: 전화번호는 ()이에요?

나: 010-9876-5432예요.

〈자료52〉 일부 쓰기의 예②

1.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아침에 비가 ()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쳤어요.

2.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어제 () 사람은 제 여자 친구예요.

만나다

3.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학교까지, 타고, 버스를, 가요

→ 수지 씨는 집에서 ().

4. 다음 그림을 보고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PM 02:00 ~ 04:00

저는 어제 오후 ()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자료53〉 일부 쓰기의 예③

※ 다음 글을 읽고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혼자 하는 운동보다 탁구나 농구처럼 ()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쓰기는 대화에서 질문이나 대답의 전체를 비워 놓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자료54>와 같이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는 것과 상황을 이해하여 대화를 완성하는 것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료54〉 전체 쓰기의 예

1.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가: 한국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4: ().

2.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가: 감기에 걸렸어요.

4: ()?

가: 아니요, 목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침을 많이 해요.

논술형 완결형은 <표64>와 같이 초·중·고급에서 모두 출제되었으나 급이 올라갈수록 출제 비율이 줄었다. 특히 고급은 초급에 비해 1/5 가까이 준 10.2%로 나타났다. 또 일부 쓰기가 전체 쓰기에 비교해 5배 가깝게 많이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성취도 쓰기 평가에서 논술형 완결형은 초급과 중급에서 일부 쓰기의 형태로 많이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표64〉 논술형 완결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일부 쓰기	32	33	8	73
	전체 쓰기	12	2	1	15
출제 비율		50	39.8	10.2	100

(다) 논술형

논술형은 주어진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으로 쓰기에 필요한 어휘, 문법, 표현 및 글 구성, 글쓴이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논술형은 완결형 형태와 결합하여 1문장 내외의 글을 쓰는 완결형 논술형과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 2문장 이상으로 글을 쓰는 작문형 논술형으로 나뉜다. 출제 비율은 〈표65〉와 같이 각각 45.6%, 54.4%로 나타나 작문형 논술형이 약 10%가 더 많이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쓰기에 필요한 논술 능력 평가에서는 2문장 이상으로 글을 쓸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65〉 논술형의 출제 비율

단위: 개(%)

문항 유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완결형	1 (8.3)	.	13 (61.9)	15 (62.5)	10 (45.5)	14 (48.3)	12 (52.2)	8 (47.1)	73 (45.6)
작문형	11 (91.7)	12 (100)	8 (38.1)	9 (37.5)	12 (54.5)	15 (51.7)	11 (47.8)	9 (52.9)	87 (54.4)
총합	12 (100)	12 (100)	21 (100)	24 (100)	22 (100)	29 (100)	23 (100)	17 (100)	160 (100)

① 완결형 논술형

다음 문항은 주어진 표현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문항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단답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완결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여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55〉 주어진 표현으로 문장 완성하기의 예①

※ 다음 표현을 순서대로 사용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책을 빌리다 / 도서관에 갔다 / 친구를 만났다 / 함께 식사를 했다

초급에서는 위와 같이 표현을 사용한 문장 구성 능력만을 평가하지만 중·고급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주어진 표현으로 글을 쓰게 하므로 이 유형을 논술형에 포함시켰다.

〈자료56〉 주어진 표현으로 문장 완성하기의 예②

※ 다음 표현을 순서대로 사용해 ‘다리를 다친 이유’에 대해 쓰십시오.

전화를 하면서 걷다 / 자전거와 부딪히다 / 다리를 심하다 / 다쳤다

이 문항에는 실제 밑줄이나 괄호 등의 여백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여백이 존재한다.⁶²⁾

따라서 이를 긴 글쓰기와 구분하여 완결형 논술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55〉를 완결형 논술형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후 출제에서는

62) 이 문항에서 실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괄호 부분이다. 따라서 문항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여백이 존재한다.

→ 책을 () 도서관에 () 친구를 () 함께 식사를 했다

〈자료57〉과 같이 ‘주말에 한 일’이라는 주제를 주고 쓰게 하여 완벽한 완결형 논술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제를 주는 것은 답의 범위를 제한해 출제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 문법 및 표현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료57〉 완결형 논술형의 예

※ 다음 표현을 순서대로 사용해 ‘어제 한 일’에 대해 쓰십시오.

책을 빌리다 / 도서관에 갔다 / 친구를 만났다 /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러한 완결형 논술형은 아래와 같이 〈보기〉를 주고 골라서 쓰게 하는 형태로도 출제되었다. 이것은 선다형과 완결형 그리고 논술형이 모두 결합한 형태로 선다형 완결형 논술형이라 할 수 있다.

〈자료58〉 선다형 완결형 논술형의 예

※ 〈보기〉에서 문법을 2개씩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 기〉		
-다 보면	-는 바람에	-(으)ㄴ 정도로
-(으)ㄴ 채로	-기는커녕	-았/였/였더니

- 창문을 열어 놓다 / 잠이 들다 / 감기에 걸렸다
- 무리해서 공부하다 / 성적이 향상되다 /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② 작문형 논술형

이 유형은 흔히 긴 글쓰기라고 부른다. 질문에 대해 답을 하거나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으로 2문장 이상으로 평가된다. 최소 문장 수는 작문형 논술형에서 가장 짧은 답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59〉가 그 예이다.

〈자료59〉 작문형 논술형의 예

※ 다음 표를 보고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장 이상 쓰십시오.

〈스트레스 해소 방법〉

남자		여자	
1	운동(55%)	1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41%)
2	술 마시기(27%)	2	쇼핑하기(34%)
3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18%)	3	맛있는 음식 먹기(25%)

작문형 논술형은 모든 문항이 필수 표현이나 내용, 문장 수 및 글자 수를 제시하는 제한 반응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자료10〉은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글자 수를 제시한 문항의 예이다. 글자 수를 제시하는 경우 원고지를 함께 제시하는 기관이 많았다.

〈자료60〉 제한 반응 작문형 논술형의 예

※ 다음 질문을 읽고 ‘여행 경험’에 대해 200 ~ 300자로 글을 쓰십시오.

- 방학에 어디에 갔습니까?
-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 두 기관은 종류나 서술 방식을 문제의 앞에 표기하여 평가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이것은 수험자에게 어떠한 글을 써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정보가 된다. 제시하는 어휘가 어려울 경우 수험자의 모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것도 좋다.

〈자료61〉 글의 종류를 밝힌 작문형 논술형의 예

※ 〈묘사의 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처음 만났습니까? 친구의 모습과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친구를 처음 만난 날’에 대해 묘사(描寫, description)하는 글을 쓰십시오.

처음 만난 장소, 친구의 모습, 첫 인상

작문형 논술형은 8개 기관에서 급별로 평균 1.8개의 문항을 출제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는 기관은 2.5문항의 바 기관이었으며 가장 적게 출제하고 있는 곳은 1.3문항의 다 기관이었다. 두 기관의 문항은 약 2배가 차이가 났다.

〈표66〉 기관별 작문형 논술형의 출제 비율

내용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문항 수	11	12	8	9	12	15	11	9	87
급별 평균 문항 수	1.8	2	1.3	1.5	2	2.5	1.8	1.5	1.8

정리하면 쓰기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문형 논술형은 초·중·고급에서 모두 평가되고 있었다. 출제 비율은 초급 23%, 중급 29.9%, 고급 47.1%로 나타나 등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생각을 긴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67〉 작문형 논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20	26	41	87
출제 비율	23	29.9	47.1	100

4.2.3. 듣기

4.2.3.1 평가의 목적 및 평가 기준

듣기는 의사소통 활동 중 음성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해 활동이다. 즉, 귀를 통해 들어오는 말소리를 인식하고 화자의 의도나 의미를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반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숙달도 평가에서는 듣기의 등급별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68〉 듣기의 등급별 평가 기준

등급		기준
초급	1	• 한국어의 기본적인 음운(자음, 모음, 받침)을 식별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간단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간단한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관한 매우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	• 구별하기 어려운 음운이나 음운의 변동을 식별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평이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평이한 대화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간단한 안내 방송 등의 실용적인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중급	3	•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다룬 평이한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광고나 인터뷰, 일기예보 등의 실용 담화를 듣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	•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다룬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복잡한 맥락을 갖는 담화를 듣고 함축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간단한 뉴스나 방송 담화 등을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소재를 다룬 평이한 토론을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고급	5	• 업무 영역이나 전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다룬 강연, 대담 등을 듣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소재를 다룬 담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주례사, 추모사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담화를 듣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6	• 업무 영역이나 전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다룬 대부분의 강연, 대담, 토론 등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 • 대부분의 뉴스나 방송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2.3.2. 문항 형태 및 유형

듣기는 총 1184문항으로 8개 기관, 6등급에서 평균 24.7개의 문항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문항은 선택형과 서답형 형태였으며 전체 문항의 98.7%가 선택형으로 출제되어 네 영역 중에서 선택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선택형은 연결형을 제외한 선다형, 진위형, 배열형으로 각각 97.7%, 0.9%, 0.1%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었다. 또 전체 문항의 1.3%에 해당하는 서답형의 16문항은 단답형으로만 출제되고 있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8개 기관 중 절반이 선택형 문항으로만 듣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 중 3곳은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번호로 정답을 쓰는 선다형 문항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69〉 듣기의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선택형	선다형	113 (94.2)	157 (95.7)	118 (94.4)	150 (100)	162 (99.4)	150 (100)	150 (96.8)	157 (100)	1157 (97.7)
	진위형	7 (5.5)	.	3 (2.4)	.	.	.	.	.	10 (0.9)
	배열형	.	.	1 (0.8)	.	.	.	.	.	1 (0.1)
	연결형	.	.	.	.	.	.	.	.	.
서답형	단답형	.	7 (4.3)	3 (2.4)	.	1 (0.6)	.	5 (3.2)	.	16 (1.3)
	완결형	.	.	.	.	.	.	.	.	.
	논술형	.	.	.	.	.	.	.	.	.
총합		120 (100)	164 (100)	125 (100)	150 (100)	163 (100)	150 (100)	155 (100)	157 (100)	1184 (100)

1) 선택형

영역별 선택형의 비중은 어휘·문법 87.3%, 쓰기 37%, 듣기 98.7%, 읽기 97.9%로 듣기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듣기의 선택형 문항은 선다형 99%, 진위형 0.9%, 배열형 0.1%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8개 기관 중 6곳이 100% 선다형으로 출제하고 있었다. 다 기관의 경우 선다형, 진위형, 배열형으로 출제되어 가장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표70〉 듣기의 선택형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선다형	113 (94.2)	157 (100)	118 (96.7)	150 (100)	162 (13.9)	150 (100)	150 (100)	157 (100)	1157 (99)
진위형	7 (5.8)	·	3 (2.5)	·	·	·	·	·	10 (0.9)
배열형	·	·	1 (0.8)	·	·	·	·	·	1 (0.1)
연결형	·	·	·	·	·	·	·	·	·
총합	120 (100)	157 (100)	122 (100)	150 (100)	162 (100)	150 (100)	150 (100)	157 (100)	1168 (100)

형태별로 나눠 유형 및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가) 선다형

전체 문항의 97.7%, 선택형 문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선다형은 높은 비중만큼이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1157개 선다형 문항이 26개의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유형 안에서도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 것이 있어 실제 유형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26개의 선다형 유형 중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26.1%를 차지한 내용과 같은 것이나 다른 것을 고르는 것이었다. 또 정보 고르기, 이어질 말 고르기도 각각 16.3%, 14.3%로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었다. 이 세 유형은

전체 유형의 56.7%를 차지할 만큼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표71〉 듣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단위: 개(%)

문항 유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19 (16.8)	32 (20.4)	26 (22)	42 (28)	50 (30.8)	49 (32.6)	43 (28.6)	41 (26.1)	302 (26.1)
정보 고르기	40 (35.3)	71 (45.2)	26 (22)	7 (4.7)	10 (6.2)	13 (8.7)	12 (8)	10 (6.4)	189 (16.3)
이어질 말 고르기	27 (23.9)	21 (13.4)	33 (28)	18 (12)	18 (11.1)	16 (10.6)	15 (10)	17 (10.8)	165 (14.3)
소재/화제 고르기	4 (3.5)	4 (2.5)	6 (5.1)	20 (13.3)	16 (9.9)	10 (6.7)	19 (12.7)	22 (14)	101 (8.7)
화자의 생각 고르기	3 (2.7)	2 (1.3)	7 (5.9)	15 (10)	12 (7.4)	1 (0.7)	11 (7.3)	15 (9.6)	66 (5.7)
내용과 같은 그림/표/ 그래프 고르기	1 (0.9)	1 (0.6)	1 (0.8)	8 (5.3)	9 (5.5)	13 (8.6)	10 (6.7)	11 (7)	54 (4.7)
이어질 행동 고르기	.	1 (0.6)	.	10 (6.7)	11 (6.8)	9 (6)	4 (2.7)	13 (8.3)	48 (4.2)
알맞은 대답 고르기	.	8 (5.1)	.	6 (4)	7 (4.3)	6 (4)	6 (4)	8 (5.1)	41 (3.5)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2 (1.8)	6 (3.8)	4 (3.4)	6 (4)	3 (1.9)	5 (3.3)	2 (1.3)	3 (1.9)	31 (2.7)
장소 고르기	.	2 (1.3)	2 (1.7)	4 (2.7)	3 (1.9)	4 (2.7)	6 (4)	6 (3.8)	27 (2.3)
중심 생각 고르기	4 (3.5)	2 (1.3)	.	3 (2)	.	17 (11.3)	.	1 (0.6)	27 (2.3)
제목 고르기	5 (4.4)	2 (1.3)	2 (1.7)	2 (1.3)	6 (3.7)	.	6 (4)	.	23 (2)
대화와 관련된 표현 고르기	3 (2.7)	.	8 (6.8)	.	1 (0.6)	1 (0.7)	.	1 (0.6)	14 (1.2)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	.	.	.	2 (1.3)	2 (1.2)	3 (2)	3 (2)	2 (1.3)	12 (1)
이어질 내용 고르기	2 (1.8)	2 (1.3)	3 (2.5)	.	1 (0.6)	.	1 (0.7)	.	9 (0.8)
그림 보고 맞는 대화 고르기	.	.	.	.	4 (2.5)	.	1 (0.7)	4 (2.6)	9 (0.8)

주장의 근거 고르기	1 (0.9)	·	·	·	3 (1.9)	·	1 (0.7)	2 (1.3)	7 (0.6)
대화 참여자 고르기	·	·	·	3 (2)	1 (0.6)	1 (0.7)	·	1 (0.6)	6 (0.5)
앞에 올 내용 고르기	·	2 (1.3)	·	·	1 (0.6)	1 (0.7)	1 (0.7)	·	5 (0.4)
화자의 기분 고르기	1 (0.9)	·	·	·	1 (0.6)	·	2 (1.3)	·	4 (0.3)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	·	·	·	4 (2.7)	·	·	·	·	4 (0.3)
대화의 종류 고르기	·	1 (0.6)	·	·	-	·	2 (1.3)	·	3 (0.3)
의미가 비슷한 것 고르기	·	·	·	·	3 (1.9)	·	·	·	3 (0.3)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고르기	·	·	·	·	·	·	3 (2)	·	3 (0.3)
자연스러운/잘못 된 대화 고르기	·	·	·	·	·	1 (0.7)	2 (1.3)	·	3 (0.3)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	1 (0.9)	·	·	·	·	·	·	·	1 (0.1)
총합	113 (100)	157 (100)	118 (100)	150 (100)	162 (100)	150 (100)	150 (100)	157 (100)	1157 (100)

이와 같은 선다형 유형은 듣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들려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실적 이해 문항,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추론해야 하는 추론적 이해 문항, 들은 내용에 대한 수험자의 판단이 가미되어야 하는 평가적 이해 문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26개 유형을 나누면 <표72>와 같다.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가 각각 52.7%, 38.6%로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과 맥락, 상황 등을 파악하여 주어진 과제를 추론하는 능력이 듣기의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 능력이 6개, 3개 유형으로 측정하고 있는 반면에 추론적 이해 능력은 약 2배 많은 17개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어 그 중요성과 문항의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

〈표72〉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구성 요소	문항 유형	문항 수	비율	
사실적 이해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	12	1	52.7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302	26.1	
	정보 고르기	189	16.3	
	소재/화제 고르기	101	8.7	
	의미가 비슷한 것 고르기	3	0.3	
	자연스러운/잘못된 대화 고르기	3	0.3	
추론적 이해	알맞은 대답 고르기	41	3.5	38.6
	장소 고르기	27	2.3	
	내용과 같은 그림/도표/그래프 고르기	54	4.7	
	그림 보고 맞는 대화 고르기	9	0.8	
	대화 참여자 고르기	6	0.5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고르기	3	0.3	
	대화의 종류 고르기	3	0.3	
	이어질 말 고르기	165	14.3	
	이어질 내용 고르기	9	0.8	
	이어질 행동 고르기	48	4.2	
	앞에 올 내용 고르기	5	0.4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	1	0.1	
	중심 생각 고르기	27	2.3	
	제목 고르기	23	2	
	대화와 관련된 표현 고르기	14	1.2	
	주장의 근거 고르기	7	0.6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	4	0.3	
평가적 이해	화자의 기분 고르기	4	0.3	8.7
	화자의 태도 고르기	31	2.7	
	화자의 생각 고르기	66	5.7	
총합		1157	100	

①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 문항은 들려준 것을 그대로 듣고 전체 혹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추론이나 수험자의 생각, 판단 등이 필요 없는 문항이다. 즉, 듣기를 위한 이해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문항이다. 들은 내용과 같거나 다른 것, 들은 내용과 비슷한 것, 들은 내용에서 특정한 정보가 무엇인지 찾는 것 등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 묻는다.

듣기는 소리를 통해 수험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소리 구조와 소리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듣기의 사실적 이해 문항에는 소리를 듣고 적절한 음운이나 어휘를 고르는 유형이 포함된다. 이 유형이 이해보다는 소리 식별에 가깝지만 듣기에서 소리를 식별 능력이 중요한 만큼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있었다.

전체 문항 중 52.7%가 사실적 이해 문항으로 출제되어 듣기 평가에서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적 이해 능력은 6개 유형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 중 듣고 내용과 같거나 다른 것을 고르기가 49.5%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정보 고르기가 31%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유형은 사실적, 추론적, 평가적 이해 문항을 통틀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음운 식별하기 유형도 12문항이 출제되어 2%를 차지하였다.

〈표73〉 사실적 이해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문항 수	비율
1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	12	2
2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302	49.5
3	정보 고르기	189	31
4	소재/화제 고르기	101	16.5
5	의미가 같은 것 고르기	3	0.5
6	맞는/틀린 대화 고르기	3	0.5
총합		610	100

사실적 문항의 6개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①-1.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

이 유형은 소리를 듣고 문자로 올바르게 쓴 것을 고르는 것이다.

〈표74〉와 같이 12문항 모두 초급에서 출제되고 있어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이 듣기의 기초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듣기 활동이 소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중·고급에서도 관련 능력을 분리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뿐 문항에 적절히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었다.

〈표74〉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12	·	·	12
출제 비율	100	·	·	100

이 유형의 평가 항목과 제시 방법은 각각 두 가지였다.

평가 항목은 음운과 어휘이고 제시 방법은 보기만을 제시하는 것과 문장과 보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있었다. 〈자료62〉의 평가 항목은 음운이고 제시하는 보기로만 되어 있다. 반면에 〈자료63〉은 어휘의 소리를 평가하며 여백이 있는 문장을 제시하였다. 이 유형에서 문장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으나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자료62〉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예①

〈대본〉 야 ※ 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아 ② 야 ③ 어 ④ 여

〈자료63〉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예②

〈대본〉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을 듣고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좋습니다
① 기분 ② 기분 ③ 그분 ④ 구분

이 유형은 선다형의 형태뿐만 아니라 〈자료64〉와 같이 소리를 듣고 수험자가 직접 문자로 쓰도록 하는 단답형의 형태로도 출제되고 있었다. 단순히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에서 나아가 소리를 식별하고 문자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확대된 것이다.

〈자료64〉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예③

〈대본〉 이것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입니다.
※ 다음을 듣고 빈 칸에 쓰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일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40px; height: 25px; vertical-align: middle;"></table>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40px; height: 25px; vertical-align: middle;"></table> 요리입니다.

위의 세 문항은 듣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리 식별 능력을 측정한다’라는 유형의 평가 목적을 잘 구현해낸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을 출제할 때는 〈자료65〉와 같이 듣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장 구성은 피해야 한다. 강승혜 외(2006)에서도 듣고 문장의 일부를 채우는 방식은 음성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문자 식별력과 어휘에 대한 선인 지력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출제 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65〉 맞는 음운/어휘 고르기의 나쁜 예

〈대본〉 물을 마셔요.

다음을 듣고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을/를 마셔요.

① 물 ② 문 ③ 불 ④ 뽕

①-2.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이 유형은 들은 어휘와 문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이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험자는 보기로 제시된 문장이 들은 것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파악해야 한다. 이 유형은 듣기의 선다형 유형 중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으로 초·중·고급에서 고루 출제되고 있었다.

〈표75〉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113	98	91	302
출제 비율	37.4	32.5	30.1	100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묻는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표76〉과 같이 모든 급에서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적게는 34문항, 많게는 65문항이 많았다.

〈표76〉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와 다른 것 고르기의 문항 수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89	72	63	224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24	25	29	78

어휘, 문법, 문장 구조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이 난이도 면에서 조금 쉽다.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은 제시된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으면 되지만, 다른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3개 찾고 하나의 오답을 골라야 하므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각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료66〉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의 예

〈대본〉

여자: 택배 신청 좀 하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오늘 택배를 보낼 수 있을까요?

남자: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어렵습니다.

여자: 그럼 내일 오전은 어떠세요?

남자: 네, 그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가겠습니다.

※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여자는 오늘 택배를 보냈습니다.
- ②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 ③ 여자는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날 겁니다.
- ④ 남자는 내일 오전에 여자의 집에 갈 겁니다.

〈자료67〉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의 예

〈대본〉

여자: 민수 씨,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요?

남자: 사진을 찍으러 가요.

여자: 사진은 왜요?

남자: 내일까지 사진 두 장이 필요해서요. 대학 입학 원서에 붙여야 하거든요.

여자: 내일까지 필요하면 즉석 사진을 찍지 그래요? 즉석 사진은 20분이면 찾을 수 있거든요.

남자: 즉석 사진요? 그거 좋겠네요. 어디서 찍을 수 있어요?

여자: 지하철역 안에 있어요.

※ 다음을 듣고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남자는 원서에 붙일 사진이 필요하다.
- ② 여자는 20분 후에 사진을 찍으러 간다.
- ③ 즉석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두 장 나온다.
- ④ 즉석 사진을 찍으려면 지하철역으로 가야 한다.

문항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시문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기관별, 등급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시문을 정리해 보았다.

〈표77〉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의 지시문

어휘	질문
같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라. 다음을 듣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이 말한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다	들은 내용과 <u>다른</u> 것을 고르세요. 대화의 내용과 <u>다른</u>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의 내용과 <u>다른</u> 것을 고르십시오. 들은 내용과 <u>다른</u>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와 <u>다른</u> 것은 무엇입니까?
맞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들은 내용으로 맞지 <u>않는</u> 것을 고르십시오.
틀리다	다음을 듣고 <u>틀린</u> 것을 고르십시오.
알맞다	들은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들은 내용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을 고르십시오.
일치하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내용과 <u>일치하지</u>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표78〉에서 제시한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틀리지 않다’, ‘서로 같거나 맞다’ 등으로 그 맥이 비슷하다.

〈표78〉 어휘의 사전적 의미

어휘	의미
같다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
맞다	틀리지 아니하다.
알맞다	딱 들어맞아 기울거나 모자람이 없다.
일치하다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들어맞다.

또한 이것은 글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이나 다른 것을 파악하는 세부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에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동일한 하나의 시험지 안에서도 위의 내용과 같은 것,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등으로 섞어 사용하는 기관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은 수험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다. 따라서 같은 평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비슷하여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험지 안에서는 어휘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예문을 제시할 때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질문을 그대로 옮기되, 이 유형을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로 통일해 부를 것이다.

①-3. 정보 고르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의 목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일상생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정보 고르기 유형은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것으로 듣기 자료에 포함된 시간, 장소, 교통, 가격, 날씨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연습 및 평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요구되는 듣기를 통한 정보 찾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유형은 사실적 이해 문항의 대표적인 형태로 31%의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었다. 전체 문항에서도 16.3%를 차지하여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질문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 이유, 개인 정보, 시간, 물건, 방법, 위치, 장소 등 28개로 나타났다.

〈표79〉 정보 고르기의 세부 목적

목적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설명		13	27	8	2	1	2	2	3	58	
행 동	한 일	3	3	·	2	·	1	·	1	10	24
	하는 일	·	5	·	·	1	1	·	·	7	
	할 일	1	·	2	·	3	·	1	·	7	
내 용	언급한 것	2	2	1	·	1	1	3	·	10	19
	언급하지 않은 것	·	7	·	·	·	1	1	·	9	
이유		1	10	2	1	3	3	1	1	22	
개인 정보		3	3	1	·	1	·	·	2	10	
시간		1	3	1	1	·	·	1	·	7	
물건		1	1	1	·	·	1	1	·	5	
방법		2	2	·	·	·	·	·	·	4	
위치/장소		·	3	·	·	·	·	1	·	4	
증상		1	1	1	·	·	·	·	1	4	
목적		·	2	·	·	·	·	·	1	3	
가격		1	·	1	1	·	·	·	·	3	
날씨/계절		1	·	1	·	·	1	·	·	3	
역할		2	·	1	·	·	·	·	·	3	
조건		2	·	1	·	·	·	·	·	3	
위치/장소		2	·	·	·	·	·	·	·	2	
원인		·	1	·	·	·	1	·	·	2	
충고		·	1	1	·	·	·	·	·	2	
영향		·	·	1	·	·	1	·	·	2	
결과		1	·	·	·	·	·	·	·	1	
공통점		·	·	·	·	·	·	1	·	1	
의식		·	·	·	·	·	·	·	1	1	
장단점		·	·	1	·	·	·	·	·	1	
용어		·	·	1	·	·	·	·	·	1	
의미		·	·	1	·	·	·	·	·	1	
준비 사항		1	·	·	·	·	·	·	·	1	
종목		1	·	·	·	·	·	·	·	1	
모양		1	·	·	·	·	·	·	·	1	
총합		40	71	26	7	10	13	12	10	189	

이 중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아닌 것 등을 고르는 ‘설명’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 혹은 다른 것을 고른다는 점에서 ①-2와 비슷하지만 ①-2는 전체 내용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고 정보 고르기의 ‘설명’은 내용의 일부만을 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2의 지시문은 ‘들은 내용으로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이나 정보 고르기의 ‘설명’은 ‘민수 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제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선생님이 말한 공부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등 들은 내용 중 특정한 어떠한 것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 일, 하는 일, 할 일 등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이 많았다. 또 초급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생일, 전화 번호, 가족의 수, 전공, 취미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평가 목적이 같은 경우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정보 고르기는 목적에 따라 질문이 다르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 전에 다른 유형은 질문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정보 고르기 유형은 등장하는 질문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없어 수험자가 스스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히 평가의 경험이 적은 초급 학습자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질문은 명확한 어휘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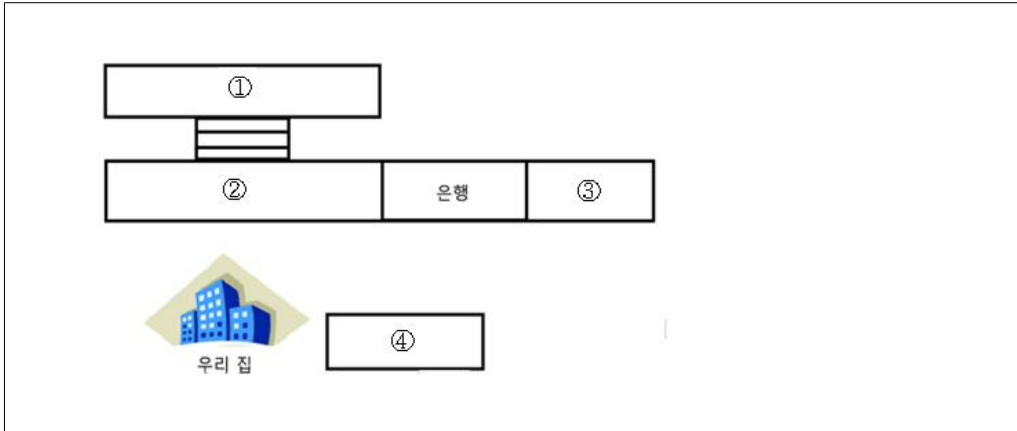
다음은 그림을 활용한 정보 고르기의 예이다.

〈자료68〉 정보 고르기의 예

〈대본〉

여자: 우리 집 근처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의 오른쪽에는 서점이 있고 왼쪽에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건너편에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기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항은 지도나 위치도를 제시하고 특정 장소의 위치를 묻는 것으로 수험자는 대화 및 담화 안에 등장하는 장소 및 위치어와 관련한 표현을 찾아 우체국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①-4. 소재/화제 고르기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나누는 소재나 화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 영역의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이야기의 중심 소재 및 화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이해를 위한 기본 능력으로 실제 대화 및 평가 등에서도 이 능력이 바탕이 되어 다른 활동이 연계된다. 이 유형은 초·중·고급에서 고루 평가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소재 및 화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를 위한 기초 능력이자 듣기의 필수 평가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표80〉 소재/화제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39	34	28	101
출제 비율	38.6	33.7	27.7	100

〈자료69〉 소재/화제 고르기의 예

〈대본〉

여자: 아직 가을인데 많이 쌀쌀하네요.

남자: 어제 비가 와서 그럴 거예요.

여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차고, 고향보다 추워서 좀 힘들어요.

※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나라

② 날씨

③ 증상

④ 계절

①-5. 의미가 비슷한 것 고르기

들은 것과 의미가 비슷한 문장을 고르는 것으로 소리를 통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법,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아니므로 평가 문항은 짧은 한두 문장으로 제시된다. 보기로 제시된 문장은 단순히 ‘-자마자’, ‘-는 대로’ 등의 유의어, 유의 표현 등을 교체한 것이 아니므로 수험자는 상황, 톤, 억양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초급의 2급과 중급의 3급에서 출제되고 있었다.

〈자료70〉 의미가 비슷한 것 고르기의 예

〈대본〉 잠깐만요,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 다음을 듣고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식사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②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③ 조금 후면 식사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④ 준비가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①-6. 자연스러운/잘못된 대화 고르기

이 유형은 들려주는 네 개의 대화를 듣고 자연스럽게나 잘못된 대화를 고르는 것이다. 듣기를 통한 이해 능력을 그림이나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이 유형은 100% 듣기 활동으로만 이루어진다. 보기도 다음과 같이 숫자로만 제시된다.

〈자료71〉 자연스러운 대화 고르기의 예

〈대본〉

- ① 여자: 빌리 씨, 세계 최초의 자동판매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남자: 그러게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 ② 여자: 사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 결혼한 지 올해가 딱 10년이 되었네요.
- ③ 여자: 미래에는 학교 수업의 형태도 좀 바뀌겠죠?
남자: 학교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로 화상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 ④ 여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 볼까요?
남자: 좋아요. 저도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 다음을 잘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십시오.

- ①
②
③
④

이 유형은 고급에서 평가하고 있었으며 들려주는 횟수도 1회여서 그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72〉 잘못된 대화 고르기의 예

〈대본〉

- ① 여자: 내일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남자: 불고기 어때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 ② 여자: 민수 씨, 퇴근 후에 복싱 배운다고 했죠? 어때요?
남자: 배우다가 너무 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뒀어요.
- ③ 여자: 이번엔 최종 면접도 못 가고 떨어졌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망이 커요.
남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 최종 면접만 남았잖아요.
- ④ 여자: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체험 프로그램도 많고 이번 워크숍은 참 좋았어요.
남자: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저도 같걸 그랬어요.

※ 다음을 잘 듣고 잘못된 대화를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②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는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험자의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항이다. 전체 문항의 38.6%가 추론적 이해에 출제되었으며 선다형의 26개 유형 중 17개가 추론적 이해에 해당하여 관련 능력의 중요성 및 평가 방법의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81〉은 추론적 이해 문항 내 유형별 출제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81〉 추론적 이해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문항 수	비율
1	알맞은 대답 고르기	41	9.2
2	장소 고르기	27	6
3	내용과 같은 그림/도표/그래프 고르기	54	12.1
4	그림 보고 맞는 대화 고르기	9	2
5	대화 참여자 고르기	6	1.4
6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고르기	3	0.7
7	대화의 종류 고르기	3	0.7
8	이어질 말 고르기	165	37
9	이어질 내용 고르기	9	2
10	이어질 행동 고르기	48	10.8
11	앞에 올 내용 고르기	5	1.1
12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	1	0.2
13	중심 생각 고르기	27	6
14	제목 고르기	23	5.2
15	대화과 관련된 표현 고르기	14	3.1
16	주장의 근거 고르기	7	1.6
17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	4	0.9
총합		446	100

위에서 정리한 17개 유형 중 13개가 중급부터 출제되고 있었다. 사실적 이해 유형의 80%가 초급부터 출제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⁶³⁾

63) 이러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등급별 출제 비율은 숙달도 평가의 평가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의 TOPIKⅡ는 성취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이 자료는 기관별 성취도 듣기 평가 및 등급별 듣기 평가

조사된 추론적 이해의 유형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대화를 듣고 이어질 말을 고르는 것이 37%로 가장 높았다. 대화 상황에서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에 성취도 듣기 평가에서는 청자의 적절한 반응과 관련한 능력을 다음과 같이 4개 유형, 57.2%의 비율로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문항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론적 이해에서는 대화 상황에서의 청자의 적절한 반응을 파악하는 능력을 주요 평가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82〉 청자의 반응을 묻는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문항 수	비율
1	알맞은 대답 고르기	41	9.2
2	이어질 말 고르기	165	37
3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	1	0.2
4	이어질 행동 고르기	48	10.8
총합		255	57.2

이어질 말 고르기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내용과 관련 있는 그

의 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종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TOPIK I	24문항 내외 (80% 내외)	6문항 내외 (20% 내외)	-	30문항 (100%)
TOPIK II	20문항 내외 (40% 내외)	25문항 내외 (50% 내외)	5문항 (10% 내외)	50문항 (100%)

이러한 성취도 숙달도의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을 통해 듣기 능력의 구성 요소별 출제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적 이해 53.8% 내외, 추론적 이해 38.7% 내외, 평가적 이해 7.5% 내외이다.

평가 종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성취도 평가	610문항 (52.7%)	446문항 (38.6%)	101문항 (8.7%)	1157문항 (100%)
숙달도 평가	44문항 (55%)	31문항 (38.7%)	5문항 (6.3%)	80문항 (100%)
출제 비율 제시	53.85% 내외	38.65% 내외	7.5% 내외	100%

림이나 그래프 고르기 유형이었다. 이 유형은 제시된 그림이나 그래프 등을 보고 알맞은 대화를 찾는 것으로도 출제되고 있었다.

듣기 평가에서만 나타나는 유형은 7개가 있었는데 이 중 6개 유형⁶⁴⁾이 추론적 이해에 속한다. 대화 참여자 고르기,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파악하기, 대화의 종류 고르기, 이어질 말 고르기,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가 바로 그것이다.

추론적 이해에 속하는 17개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②-1. 알맞은 대답 고르기

이 유형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유형에서 반응은 말로 제한된다. 행동과 관련한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②-10에서 평가한다.

문항은 순서 교대 1회를 넘지 않았으며 41문항 모두 초급에서 평가되었다.

〈자료73〉 알맞은 대답 고르기의 예

〈대본〉

가: 책이에요?

나: _____.

※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책이에요.

② 아니요, 책이 없어요.

③ 네, 책이 아니에요.

④ 아니요, 책이 많아요.

64) 다른 한 가지는 사실적 이해에 해당하는 음운 식별하기이다.

②-2. 장소 고르기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유형으로 ‘우체국’ ‘편지를 보내다’, ‘미용실’, ‘머리를 자르다’ 등처럼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어휘 및 표현을 파악하는 것이 이 유형의 관건이다.

장소 고르기의 27문항은 모두 초급에서 출제되고 있었으며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평균 3.9개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었다. 초급 듣기 선다형은 <표 83>과 같이 10개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장소 고르기 유형은 6번째로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의 5개 유형이 초·중·고급에서 모두 평가되고 있었으나 장소 고르기는 초급에서만 평가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파악하는 능력이 초급 듣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초급에서 다루어지는 만큼 순서 교대는 1회 ~ 1.5회로 나타났다.

<표83> 초급의 선다형 문항 유형

단위: 개(%)

문항 유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10 (27)	8 (14.3)	7 (17.1)	18 (36)	22 (37.9)	17 (34)	15 (28.3)	16 (27.6)	113 (28)
정보 고르기	15 (40.5)	32 (57.1)	13 (31.7)	6 (12)	8 (13.8)	5 (10)	3 (5.7)	5 (8.6)	87 (21.6)
이어지는 말 고르기	11 (29.8)	5 (8.9)	15 (36.6)	4 (8)	5 (8.6)	5 (10)	5 (9.4)	5 (8.6)	55 (13.6)
알맞은 대답 고르기	.	8 (14.3)	.	6 (12)	7 (12.1)	6 (12)	6 (11.3)	8 (13.8)	41 (10.2)
소재/화제 고르기	.	.	3 (7.3)	6 (12)	6 (10.3)	6 (12)	10 (18.8)	8 (13.8)	39 (9.7)
장소 고르기	.	2 (3.6)	2 (4.9)	4 (8)	3 (5.2)	4 (8)	6 (11.3)	6 (10.3)	27 (6.7)
내용과 같은 그림 고르기	.	.	1 (2.4)	4 (8)	5 (8.6)	4 (8)	3 (5.7)	7 (12.1)	24 (6)
맞는 음운/단어 고르기	.	.	.	2 (4)	2 (3.5)	3 (6)	3 (5.7)	2 (3.5)	12 (3)

화자의 심정 고르기	1 (2.7)	.	.	.	.	.	2 (3.8)	-	3 (0.7)
이어질 행동 고르기	.	1 (1.8)	.	.	.	.	-	1 (1.7)	2 (0.5)
총합	37 (100)	56 (100)	41 (100)	50 (100)	58 (100)	50 (100)	53 (100)	58 (100)	403 (100)

〈자료74〉 장소 고르기의 예

〈대본〉

여자: 어제부터 계속 이가 아파요.

남자: 이 약을 드세요. 내일도 아프면 꼭 치과에 가 보세요.

여자: 네, 알겠습니다. 약은 얼마예요?

※ 여기는 어디입니까?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약국 ② 병원 ③ 은행 ④ 극장

②-3. 내용과 같은 그림/도표/그래프 고르기

이 유형은 시각 자료를 사용해 이해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질문에 적절한 그림, 도표, 그래프를 고르는 것이다. 이 유형은 시각 자료가 무엇이냐, 평가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84〉 시각 자료의 종류와 평가 방법

자료의 종류	평가 방법
그림	대화 상황을 표현한 것 고르기
	질문에 맞는 것 고르기
도표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그래프	

첫째, 그림을 통한 이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자료75>와 같이 전체 대화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고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76>과 같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전자는 대화 상황에 맞는 장소나 참여자의 행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후자는 사실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①-3 정보 고르기 유형이 그림으로 제시된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초·중·고급에서 모두 평가되고 있었으나 그 모습이 조금씩 달랐다. 초·중·고급에서는 세부 정보에 대한 것을 평가했으나 중·고급에서는 <자료77>와 같이 묘사, 설명 등을 통해 글에 대한 전체 이해 능력을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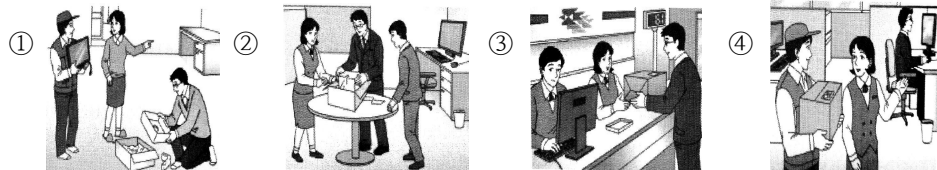
<자료75> 대화 상황에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이 소포를 보내고 싶은데요.

여자: 네, 여기 올려 주세요.

※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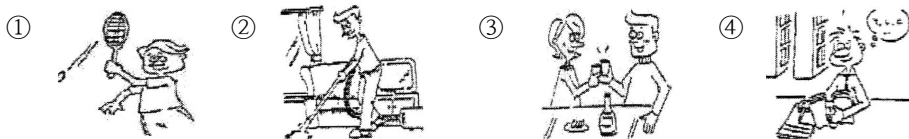
<자료76> 질문에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①

<대본>

여자: 민수 씨, 저녁에 시간 있어요? 같이 식사할까요?

남자: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요. 친구와 테니스를 치기로 했어요.

※ 남자는 저녁에 무엇을 할 겁니까?



〈자료77〉 질문에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②

※ [1~2] 듣고 질문에 맞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대본〉

남자: 엄마, 그래서 나무꾼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 선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나무꾼은 그 선녀를 보내기가 싫었어. 그래서 그 선녀의 옷을 몰래 숨겼지. 그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목욕이 끝난 선녀들은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 날개옷을 입으려고 밖으로 나왔지. 돌아갈 시간이 되어 다른 친구들은 하늘로 돌아갔지만 선녀는 옷이 없어 돌아가지 못했단다.

1. 어울리는 장면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대본〉

여자: 커피를 한잔 마시며 바라본 거리의 풍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산을 쓰고 연인과 걷고 있는 사람, 술을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가족,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 사람은 뒤에 누가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 있는 남자는 앉아 있는 그 남자에게 무슨 말이라도 붙이고 싶은 모양인 듯합니다.

2. 무엇을 묘사한 것인지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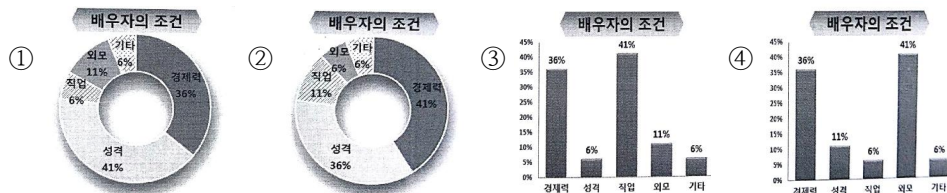
둘째, 도표나 그래프는 설명과 일치하는 사실 정보를 고르는 것으로 듣기에 등장하는 숫자와 수치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표와 그래프는 각각을 평가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자료78>과 같이 함께 평가하고 있었다. 도표나 그래프의 경우 들은 내용을 이해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면 풀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자료78> 도표/그래프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서울연구소가 미혼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가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배우자의 조건을 '성격'이라고 꼽은 사람들은 36%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직업'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외모'와 '집안', '학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림, 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한 이해 평가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표85>와 같이 등급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초·중·고급까지 모두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항이 약 90%가 초·중급에 집중되어 있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시각 자료보다는 문자를 통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85〉 내용과 같은 그림/도표/그래프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그림	대화 상황	18	16	·	34
		질문의 대답	6	4	3	13
	도표/그래프		·	5	2	7
출제 비율			44.4	46.3	9.3	100

정리하면 대화 상황에 적절한 그림을 고르는 것 유형은 초급과 중급에서, 질문에 대한 적절한 그림을 고르는 것 유형은 초·중·고급에서 평가하고 있다. 도표 및 그래프를 통한 이해력 평가는 중급부터 평가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상황, 질문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요하므로 상위 단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②-4. 그림 보고 맞는 대화 고르기

이 유형은 ②-3의 유형을 반대로 바꾼 것이다. 내용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맞는 대화를 고르는 방식이다. 하나의 대화를 들으면 되는 ②-3과 달리 이 유형은 네 개의 대화를 듣고 이해해야 하므로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다. 또 보기도 숫자로만 제시된다. ②-3의 그림 고르기가 초·중급에서 몰려 있는 것과 달리 이 유형은 중급부터 출제되었으며 문항의 90%가 고급에서 출제되고 있어 그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료79〉 그림 보고 맞는 대화 고르기의 예

〈대본〉

- ① 남자: 여기가 말로만 듣던 수진 씨 고향이군요.
여자: 네, 높은 빌딩도 많고 차도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한데 살기 편해요.
- ② 남자: 지도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 제가 한번 볼게요. 들고 계신 지도 좀 보여 주세요.
- ③ 남자: 집에서 산도 보이고 멀리 바다도 보이고 경치가 참 좋네요.
여자: 이 집으로 이사 온 가장 큰 이유예요. 마음이 절로 편해지거든요.
- ④ 남자: 이 건물 옆에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는 거지요?
여자: 네, 이쪽에 아파트가 지어질 거고요. 그 옆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 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②-5. 대화 참여자 고르기

대화 참여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으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고르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이야기의 주제 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및 표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중급의 4급부터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80〉 대화 참여자 고르기의 예

※ 남자는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대본〉

여자: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거실에 그림을 하나 걸고 싶어요.

추천 좀 해 주시겠어요?

남자: 네, 거실 가구는 무슨 색이십니까?

여자: 소파와 거실장 모두 갈색이에요.

남자: 그림, 조금 밝은 분위기의 작품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이 그림 어떠세요?

여자: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런데 저는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림을 걸고 싶어요.

남자: 그림, 이건 어떠세요? 꽃과 나무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 줄 겁니다.

① 가구점 직원

② 화랑 주인

③ 유치원 선생님

④ 부동산 중개인

②-6.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고르기

②-5가 특정 한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물었다면 이 유형은 대화에 참여한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묻고 있다. 즉, ②-5의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기억해야 할 정보가 많으며 오답의 유인도를 높이는 어휘와 표현이 곳곳에 숨어 있어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고급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81〉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상담을 좀 하려고 왔는데요.

여자: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자: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여행지를 찾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요. 2박 3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 간 김에 여러 군데를 좀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 몇 군데가 있는데요, 혹시 고창 가 보셨어요?

남자: 아니요, 아직이요.

여자: 전라북도에 있는 곳인데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에요.
고창읍성에 성곽도 보시고 보리밭도 유명하니 한번 둘러 보시고요.
근처에 보물로 지정된 선운사라는 절도 있어요.

남자: 거기가 좋겠네요.

주말에 떠나고 싶은데 차편이랑 숙박을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여자: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① 환자 : 상담사

② 여행객 : 공항 직원

③ 학생 : 역사 선생님

④ 고객 : 여행사 직원

②-7. 대화의 종류 고르기

이 유형은 제시된 대화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듣기 평가에 등장하는 대화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질문과 대답 주고받기, 논쟁하기, 협력하기, 의견 나누기, 정보 전달하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정보 전달하기에 해당하는 뉴스, 연설, 강연은 대화와 독백의 형식으로 모두 활용되고 있다.

〈표86〉 목적별 대화의 종류

목적	종류
대답 주고받기	일상 회화, 면접, 인터뷰, 상담, 소개, 안내
논쟁하기	의논, 토론
협력하기	토의
의견 나누기	회의, 대답
정보 전달하기	뉴스, 연설, 강연, 다큐멘터리

이 유형은 기관에 따라 ‘대화의 전개 방식을 고르십시오’를 라고 묻기도 하는데 ‘전개 방식’은 전달하는 상황, 목적, 성격에 따라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묘사, 분석, 예시, 비교 등의 방법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전개 방식을 고르라’고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 유형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이 ‘대화의 종류를 고르십시오’, ‘대화의 종류가 무엇인지 고르십시오’, ‘대화의 종류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등으로 물어야 한다.

이 유형은 4급에서 1문항 그 외에는 고급에서 출제되고 있어 난이도 상에 해당한다.

〈자료82〉 대화의 종류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먼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여자: 저는 어려서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학과에 입학하여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대학생 의류 공모전에 나가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4학년 때는 인턴을 통해 현장 경험도 쌓았습니다. 전국 10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서울패션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 대화의 종류가 무엇인지 고르십시오.

① 회의
② 상담
③ 면접
④ 토론

②-8. 이어질 말 고르기

대화를 듣고 바로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를 묻는 유형으로 대화 상황을 이해하고 추론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초급에서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나 중·고급에서는 2~3회의 순서 교대가 이루어진다. 순서 교대가 길어질 때는 모든 턴이 의미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 문장만을 듣고 다음 말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유형은 대화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이어질 반응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83〉은 앞의 대화에서 교환을 하려는 상황과 7시라는 시간을 듣지 않으면 이어질 말을 찾을 수 없다.

〈자료83〉 이어질 말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여보세요, 어제 산 물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여자: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남자: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힐 것 같은데 30분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꼭 바꿔야 해서요.

여자: _____.

※ 다음을 듣고 이어질 말을 고르십시오.

- ① 네, 그럼 7시까지 갈게요.
- ② 벌써 30분이나 기다렸는걸요.
- ③ 그럼, 7시 30분까지는 꼭 오셔야 해요.
- ④ 30분 전에 오시면 교환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자료84>는 남자의 말인 ‘병원에는 갔다 왔어요?’만을 통해서 정답을 추론할 수 있다. 앞에서 두 사람이 나눈 감기에 걸린 사실과 그 증상에 대한 내용은 답을 추론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의미가 없는 즉, 필요 없는 내용이 된다. 이러한 문항 출제는 피해야 한다.

<자료84> 이어질 말 고르기의 나쁜 예

<대본>

여자: 여보세요, 미안해요. 감기에 걸려서 오늘 약속에 못 갈 것 같아요.

남자: 어제 열이 좀 있다고 하더니 심해졌나 봐요.

여자: 네, 열도 많이 나고 으슬으슬 추워요.

남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병원에는 갔다 왔어요?

여자: _____.

다음을 듣고 이어질 말을 고르십시오.

- ① 방금 다녀오는 길이에요.
- ② 기침을 심하게 해서 큰일이네요.
- ③ 감기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 ④ 그러길래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잖아요.

②-9. 이어질 내용 고르기

대담, 강연 등을 듣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고르는 유형이다.

이것은 이야기의 뒤에 나올 것을 찾는다는 점에서 ②-1의 질문 듣고 알맞은 대답 고르기, ②-8의 이야기 듣고 이어질 말 고르기와 같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87〉 ②-1과 ②-8과 ②-9의 비교

내용	②-1	②-8	②-9
평가 목적	상대방의 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 파악		내용 이해를 통한 추론 능력 파악
참여자	2명	2~3명	1명
텍스트 종류	대화		혼자 하는 연설, 강연, 대담, 설명 등
정답의 형태	대화체		두 어절 이상의 표현, 문장
정답의 역할	상대방의 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이어질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평가 등급	초급	초급, 중급, 고급	고급

앞의 두 유형과 달리 이어질 내용 고르기는 내용 이해를 통해 다음 이야기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야기 참여자가 1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②-8의 이어질 말과 ②-9의 이어질 내용은 평가 목적, 참여자, 텍스트 종류, 정답의 역할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둘은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형태의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8개 기관 중 5곳이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지시문을 ‘이어질 내용을 고르십시오’로 사용하고 있었다. 출제자는 이 두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합당한 문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료85〉는 질문만으로 이어질 내용 고르기 유형에 해당하나 문항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바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미완성 상태의 대화이다. 따라서 ‘이어질 말 고르기’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자료85〉 이어질 내용 고르기의 나쁜 예

〈대본〉

남자: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니 자심감이 사라져. 그냥 포기할까 봐.

여자: _____.

※ 다음을 듣고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포기는 했지만 후회는 없어.
- ② 한 번에 합격했다고? 진짜 대단하다.
- ③ 조금만 더 힘내. 다음엔 좋을 결과 있을 거야.
- ④ 그 정도 자신감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이어질 내용 고르기의 적절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강연의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강연자의 말을 이해하여 다음 내용을 추론해야 한다. 정답은 강연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화체로 구성되지 않는다. 또한 정답이 다음과 같이 반드시 완성된 문장일 필요는 없다.

〈자료86〉 이어질 내용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한 때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던 자동차가 대중화 되면서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주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 영역이 도시에서 외곽으로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생활 및 레저, 쇼핑, 문화 등 모든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이런 편리함과 다양함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 강연에 이어질 내용을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자동차 보유자의 현황
- ② 과거와 현재의 인식 변화
- ③ 과거와 현재의 생활 모습 비교
- ④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

②-10. 이어질 행동 고르기

대화를 듣고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것으로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행동에 대한 질문이나 대답, 지시어 등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대화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에서는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을 지정해 그의 행동을 묻는다. 이 유형 역시 ②-8과 같이 마지막 문장에만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답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전체 대화에 의미 있게 담겨 있어야 한다. 중·고급에서 평가되나 대부분의 문항이 고급에서 출제되었다.

〈자료87〉 이어질 행동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영수 씨, 컴퓨터가 아직도 안 돼요?

여자: 네, 화면이 까맣게 되더니 이제 보이지를 않아요. A/S 센터에 전화를 해야겠어요.

여자: 지난번에는 켜다가 켜니까 다시 되던데……. 안 되겠네요. 빨리 기사님을 부르세요. 다음주에 있는 발표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남자: 그래야겠어요.

※ 대화 후에 남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컴퓨터를 고치러 간다.
- ② 컴퓨터를 다시 켜다가 켜다.
- ③ 컴퓨터 수리 센터에 연락을 한다.
- ④ 컴퓨터를 빌려서 회의 준비를 한다.

②-11. 앞에 올 내용 고르기

이것은 들은 이야기의 앞에 올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②-9에 반대되는 유형이다. ②-9의 답은 내용 이해를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②-11의 답은 내용 전개에 필수 요소가 된다. 들려주는 내용이 앞의 이야기의 추가 서술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이야기를 들으며 거꾸로 앞에 올 내용을 추론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②-9가 중급부터 출제되는 것과는 달리 이 유형은 고급에서 출제되었다. 또한 문항 수도 2배 가까이 줄었다. 듣는 횟수도 1회로 줄여 앞부분의 주요 지시어, 접속사, 표현 등을 놓쳤을 때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표88〉 ②-9와 ②-11의 등급별 문항 수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총합
②-9. 이어질 내용 고르기	.	2	7	9
②-11. 앞에 나올 내용 고르기	.	.	5	5

〈자료88〉 앞에 올 내용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 둘씩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연료 대신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충전하면 수일에서 수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평균 80km의 속도로 달릴 때 8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배터리의 사용의 가장 큰 문제가 속도도 속도지만 충전 시간은 길고 사용 시간은 짧다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었네요.

※ 앞에 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도시 인구의 증가 원인
- ②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 ③ 연료 대체 자동차의 문제점
- ④ 인구 이동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

②-12.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

내용을 듣고 청자가 할 수 있는 말을 예상해 보는 유형이다.

이야기를 듣고 이 후에 할 말을 고른다는 점에서 ②-8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89〉 ②-8과 ②-12의 비교

내용	②-8	②-12
평가 목적	상대방의 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 파악	상대방의 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 파악
참여자	2명	1명
텍스트 종류	대화	혼자 하는 연설, 강연, 대답, 설명 등
텍스트 완성도	미완성	완성
대답 시간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짐	·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짐 · 바로 이어지지 않아도 됨. ·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됨.
평가 등급	초급, 중급, 고급	고급

즉, 이 유형은 완성된 담화를 듣고 이후에 청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을 고르는 것이나 그것이 화자의 말이 끝나고 바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단순히 이후의 청자가 할 반응으로서의 말을 예상해 보는 것이다.

〈자료89〉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65년, 우리 경제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넘어 국내총생산 1조 달러 시대를 앞둔 세계 14위의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먹을 것조차 별로 없었던 60, 70년대. 강통을 두드려 자동차를 만들고 맨 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 한국 경제가 이렇게 큰 발전을 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쌓아올린 세계 14위의 경제 강국. 국내 총 생산은 740배, 1인당 국민소득은 300배로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서 95년 1만 달러를 넘어섰고 현재는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70년대 1, 2차 오일쇼크로 위협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 97년 IMF외환위기 때는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런 해외발 위기에 약하다는 점은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 낸 65년. 우리 앞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와 같은 또 한 번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가난을 넘어 경제 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70년대를 지나, 금 모으기로 외환 위기를 극복할 때도 그 중심엔 항상 우리 국민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겠다.

※ 다큐멘터리를 듣고 청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을 고르라.

- ① 대외 수출의 감소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가져온 거로군.
- ② 지나친 원자재 수입이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 것 같아.
- ③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한국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국민을 빼 놓을 순 없겠군.
- ④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앞으로 닥칠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②-13. 중심 생각 고르기

중심 생각이나 문장은 이야기의 핵심 내용과 같다. 따라서 이 유형은 수험자가 핵심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적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하며 이렇게 파악된 세부 정보 중 중요한 단서를 모아 글의 핵심 내용을 추론해야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단순히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실적 이해를 평가하는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중심 생각 고르기에서는 보기로 제시된 것이 글의 내용과 같다고 해서 답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수험자가 중심 생각 고르기 유형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이므로 교사는 평가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짚어 주어야 한다. 또한 출제자는 보기를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료90〉 중심 생각 고르기의 예

〈대본〉

여자: 5월 5일이 공휴일이네요. 무슨 날이에요?

남자: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날이죠. 그래서 그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 주고 평소에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는 날이기도 해요.

여자: 그렇군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진짜 선물이나 여행 때문일까요? 평소에 회사 일로 바쁜 엄마랑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는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비싼 선물이나 여행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일 거예요.

※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 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 ② 비싼 물건이나 여행은 좋은 선물이 아니다.
- ③ 어린이날에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 ④ 회사 일과 집안일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②-14. 제목 고르기

전체 내용을 이해하여 제목을 붙이는 것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 소개, 뉴스, 연설 등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말하는 이는 1명이다.

이것은 사실적 이해의 ①-4 소재 및 화제 고르기에서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는 화자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중심 내용을 찾아 이야기를 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력, 표현의 유창성, 창작 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기 것으로 중급 이상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고급에서는 ‘불철주야(不徹晝夜)의 한국,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 끝난 정책’,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이루어낸 성공’ 등 사자성어를 사용하기도 해 그 난이도가 매우 높다.

〈자료91〉 제목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최근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현대인들이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 다음을 듣고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① 질병에 걸린 현대인 | ②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 |
| ③ 질병과 사회 문제의 관계 | ④ 스트레스 해소의 필요성 |

②-15. 대화와 관련된 표현 고르기

담화 및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이나 속담, 사자성어 등을 고르는 것으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유형이다. 평가 목적과 평가 방식, 문항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표현 영역의 어휘·

문법, 이해 영역의 읽기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관용어구와 사자성어 교육이 중급부터 이루어지므로 평가도 중·고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90>과 같이 92.9% 문항은 고급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평가는 관용 표현, 속담, 사자성어 순으로 나타나 관용 표현에 대한 평가가 중시됨을 알 수 있었다.

〈표90〉 대화와 관련된 표현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관용 표현	·	·	8	8
	속담	·	1	3	4
	사자성어	·	·	2	2
출제 비율		·	7.1	92.9	100

〈자료92〉 대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여자: 네, 서울에 사는 이지연 씨가 보내 주신 사연이네요.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저는 사귀 지 6개월 된 남자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예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어릴 때부터 친했던 단짝 친구와 셋이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자 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웬지 불안한데요. 계속 들어볼까요?

여자: 그런데 며칠 전 단짝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 남자 친구와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좋아하게 됐다고요. 저는 제 친구보다 남자 친구한테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만 사랑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남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 이 이야기와 관계있는 속담을 고르십시오.

-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②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②-16. 주장의 근거 고르기

이 유형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근거를 위해서는 먼저 화자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화자의 주장을 파악한 후에야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유추를 통해 그 주장의 근거를 찾는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하나의 지문에서 두 개를 묻는 세트 문항에서 ②-13의 중심 생각 고르거나 ③-3의 화자의 생각 고르기 유형과 함께 출제되고 있다. 출제의 순서는 ②-13이나 ③-3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②-16의 근거 고르기 유형이 놓인다. 이 유형은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중급에서도 4급부터 출제된다.

〈자료93〉 주장의 근거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준다거나 거리가 더러워진다는 의견은 물론 참고해야겠지만, 곳곳에 흡연 장소가 따로 있다면 모를까 아직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실외 흡연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러한 시설이 마련되려면 장소 지정부터 공사까지 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경우처럼 그 시설이 빨리 들어선다면야 좋겠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 남자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① 설문 조사 | ② 전문가 의견 |
| ③ 신문 기사 | ④ 외국의 사례 |

〈자료93〉의 남자의 말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한 사람들의 의견, 외국의 사례, 신문 기사 등의 여러 근거들이 등장한다. 실외 흡연 금지를 반대하는 화자의 주장을 파악해야 이 중 ‘신문 기사’를 근거로 고를 수 있다. ‘불쾌감을 준다, 거리가 더러워진다’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근거이고 미국의 사례는 실외 흡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마련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②-17.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

말이나 글에는 그것을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일상의 개인적인 대화나 글이라도 인사, 안부, 기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은 청자나 독자에게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다. 반대로 말하는 사람 혹은 글을 쓴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 유형은 화자가 말하는 목적을 찾는 것으로 듣기에서는 ‘말하는 목적 고르기’로 읽기에서는 ‘글을 쓴 목적 고르기’로 평가 된다.

〈자료94〉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시대에 따라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의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창의적인 사고, 도전적인 정신을 중시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50년대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부지런하게 일해야 했지요. 그래서 근면성과 성실성을 그 무엇보다 요구했습니다. 회사 면접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요.

※ 남자가 말한 목적을 고르십시오.

- ① 회사의 면접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 ② 근면성과 성실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 ③ 시대별로 요구하는 인재상을 설명하기 위해
- ④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③ 평가적 이해

평가적 이해란 내용을 듣고 수험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답을 찾는 능력을 말한다. 수험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로 답이 결정되나 그 근거는 듣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정보여야 한다. 즉,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기반으로 수험자의 판단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적 이해 능력은 듣기 평가에서 세 가지 유형, 8.7%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었다. 구성 요소 내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화자의 생각 고르기가 65.3%, 화자의 태도 고르기가 30.7%로 나타나 듣기의 평가적 이해 능력은 화자의 생각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자의 기분은 4%에 그쳤다.

〈표91〉 평가적 이해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문항 수	출제 비율
1	화자의 기분 고르기	4	4
2	화자의 태도 고르기	3	30.7
3	화자의 생각 고르기	66	65.3
총합		101	100

이 문항은 중·고급에서 44.5%, 52.5%로 출제되고 있어 중급 이상에서 요구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초급에서는 화자의 기분을, 중급에서는 화자의 생각을, 고급에서는 화자의 생각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등급별로 요구하는 평가적 이해 능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표92〉 평가적 이해 문항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화자의 기분 고르기	3	·	1	4	101
	화자의 태도 고르기	·	10	21	31	
	화자의 생각 고르기	·	35	31	66	
출제 비율		3	44.5	52.5	100	

③-1. 화자의 기분 고르기

기분은 ‘좋다’, ‘나쁘다’ 등의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듣기 상황에서는 화자의 톤, 억양, 크기 등 목소리를 통해 추론해야 한다. 또 〈자료95〉와 같이 화자가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을 해석해 기분을 파악해야 한다. 화자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은 듣기의 초급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95〉 화자의 기분 고르기의 예

대본>

남자: 김 선생님, 편지가 왔어요.

여자: 편지요? 언제요?

남자: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여자: 아, 지난 학기에 가르친 학생에게 온 편지네요. 회사에 들어가서 많이 바쁘는데 이렇게 편지까지 보냈네요.

※ 여자가 기분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고맙다

② 무섭다

③ 미안하다

④ 심심하다

③-2. 화자의 태도 고르기

화자가 이야기를 하며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혼자 말하는 강연, 강의 그리고 대화에서 모두 평가되고 있었다. 대화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하나는 〈자료96〉과 같이 대화에 참여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97〉과 같이 참여자 중 지정된 한 사람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료96〉 화자의 태도 고르기의 예①

〈대본〉

여자: 정현 씨, 미카 씨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한대요.

남자: 정말요? 그럼 한국 사람이겠네요.

여자: 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 동료래요.

남자: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쉽지 않을 텐데 큰 결심을 했네요.

여자: 국제결혼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지 않을까요?

남자: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에요.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물론 유타카 씨가 현명한 사람이니까 잘하겠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 국제결혼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여자		남자
①	감성적	-	중립적
②	긍정적	-	부정적
③	부정적	-	중립적
④	중립적	-	긍정적

〈자료97〉 화자의 태도 고르기의 예②

〈대본〉

남자: 요즘은 아름다운 외모와 인생의 행복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실력을 갖추고 성공해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으니까요. 외모가 뛰어나면 처음에야 호감은 주겠지만 성격이나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호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마음가짐, 자신을 가꾸고 가진 재능을 키워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걸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 남자의 태도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일하는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② 사람들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 ③ 행복을 추구하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유형은 중·고급에서 평가되었으며 대부분의 문항이 참여자 중 한 사람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출제되었다.

③-3. 화자의 생각 고르기

이 유형은 말하는 화자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이야기의 밑바탕에 깔린 화자의 생각을 추론, 평가해 내는 것이다. 듣기의 평가적 이해 유형 중 65.3%가 이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으며 중·고급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98〉 화자의 생각 고르기의 예

〈대본〉

여자: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지키기 쉽지 않네요. 처음에는 좀 하다가 조금씩 시간도 줄고 이제는 쉬는 날도 많아요.

남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깐요. 아마 주변에 같은 결심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해 보세요. 혼자서 할 때는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어 내일부터라는 마음이 들기 쉽지만, 몇 시에 어디에서 운동을 하자라는 약속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운동을 할 때는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다.
- ②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
- ③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운동을 할 때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나) 진위형

진위형은 사실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용의 세부 정보를 이해하여 주어진 문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선다형의 ①-2와 평가 목적은 같으나 형태가 다르다. ①-2는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 번호를 쓰는 것이고

이 유형은 제시된 문장 옆에 수험자가 스스로 ○, X로 쓰거나 제시된 ○, X에 표시하는 것이다.

전체 문항의 0.9%가 진위형으로 출제되었으나 <자료99>와 같이 하나의 문항에서 2~3개의 질문을 하고 있어 실제 비율은 이보다 더 높다.

<자료99> 진위형의 예

<대본>

남자: 저는 3월에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지금 한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학교 앞에 있는 월슨과 같이 삽니다. 월슨은 미국 사람인데 아주 친절합니다. 우리는 공부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저와 월슨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김밥이나 불고기를 자주 먹습니다.

※ 다음을 잘 듣고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X 하십시오.

1) 남자는 미국 사람입니다.

☐ ○

☐ X

2) 두 사람은 한국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 ○

☐ X

진위형은 글의 내용 및 길이, 문항의 길이, 파악해야 하는 정보의 수 등을 달리하여 초·중·고급에서 모두 평가하고 있었다.

(다) 배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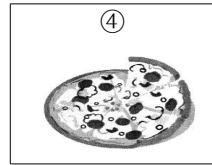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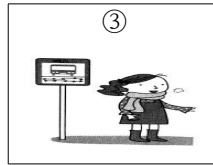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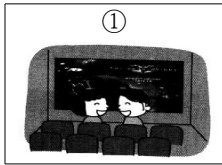
듣고 주어진 것을 순서에 맞게 쓰는 배열형 문항은 8개 기관 중 1곳의 초급에서만 나타났다. 제시는 그림이나 글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듣기에서는 읽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자료100〉 배열형의 예

〈대본〉

저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거예요. 백화점 2층 옷 가게에서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고 5층에서 신발을 구경하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거예요. 영화를 본 후에 피자를 먹고 집에 돌아올 거예요.

※ 다음 이야기를 듣고 그림의 순서를 쓰십시오.



(③ → _____ → _____ → _____)

2) 서답형

서답형은 〈표93〉과 같이 8개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 기관에서 단답형의 형태로 출제하고 있었다. 단답형은 질문의 답을 들은 내용에서 찾아 수험자가 직접 글로 쓰는 형태이다. 초·중·고급에서 고루 평가하고 있었으며 90%가 하나의 정답을 요하였고 10%는 두세 개의 답을 쓰도록 하였다. 두세 개의 답을 요하는 문제는 고급에서만 출제되었다.

〈표93〉 듣기의 서답형 문항 유형

단위: 개(%)

문항 유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단답형	.	7 (100)	3 (100)	.	1 (100)	.	5 (100)	.	16 (100)
완결형	.	.	.	.	.	.	.	.	.
논술형	.	.	.	.	.	.	.	.	.
총합	.	7 (100)	3 (100)		1 (100)		5 (100)		16 (100)

단답형은 정해진 글자 수나 형식이 없으므로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쓰기와 같이 명확한 채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은 단답형의 문항과 채점 기준의 예이다.

〈자료101〉 단답형의 예

〈대본〉

여자: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수지예요. 미안해요. 오늘 생일 파티에 못 가요.

남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여자: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많이 아파요.

남자: 약은 먹었어요?

여자: 네,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갔다 왔어요.

남자: 그럼 꼭 쉬세요. 내일 봐요.

※ 왜 여자는 생일 파티에 못 갑니까? (3점)

이 문항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답은 ‘감기에 걸려서’이다. 따라서

핵심 표현인 ‘감기에 걸리다’와 문법을 결합해 오류 없이 쓴 경우 만점인 3점을 주었다. 핵심 표현은 썼으나 문법의 오류가 있는 경우 1점을 감점하였으며 표현 중 ‘감기’만을 쓴 경우는 1점을 주었다. 맞춤법 오류는 1개당 0.5점씩을 감점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관별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명확한 채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표94〉 단답형의 채점 기준

기준		기타
3점	· ‘감기에 걸리다’를 사용해 정확히 쓴 경우 예>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등	맞춤법 오류 0.5점 감점
2점	· 핵심 어휘인 ‘감기에 걸리다’를 썼으나 활용이 틀린 경우 예> 감기에 걸렸어서, 감기에 걸립니다 등	
1점	· ‘감기’만 쓴 경우	
0점	· 다른 답을 쓴 경우 예> 약을 먹다, 병원에 가다	

4.2.4. 읽기

4.2.4.1. 평가 목표 및 평가 기준

읽기란 문자 언어를 통한 이해 활동을 말한다.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쓰기와 이해 활동이라는 점에서 듣기와 같다.

이러한 읽기 평가의 목표는 한국어로 쓰인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 있다. 단어나 문장 차원의 해석을 포함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

문장이 담화의 부분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평가하게 된다. 즉, 글을 하나의 담화로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제시한 등급별 읽기 평가의 기준이다.

〈표95〉 읽기의 등급별 평가 기준

등급		기준
초급	1	• 기본적인 표지나 표지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짧은 서술문을 읽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 일기, 편지 등 간단한 생활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메모, 영수증 등 간단한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	•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지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설명문이나 생활문 등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간단한 광고나 안내문 등의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중급	3	• 일상생활을 다룬 대부분의 생활문을 이해할 수 있다. • 친숙한 사회·문화 등의 소재를 다룬 간단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간단한 광고, 안내문 등의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4	•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소재를 다룬 설명문, 논설문 등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 • 계약서, 사용설명서, 광고, 안내문 등 실용문을 읽고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신문 기사, 건의문 등의 시사성 있는 글을 읽고 대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수필이나 동화 등의 작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고급	5	•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의 소재를 다룬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비교적 쉬운 시,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신문 기사, 건의문 등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본격적인 수필, 동화 등의 작품을 읽고 내용을 추론하거나 작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6	•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소재를 다룬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수필이나 소설, 희곡 등의 작품을 읽고 작품 상황, 인물의 심리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내용을 추론하거나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전문 영역에 관련된 논문이나 저술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2.4.2. 문항 형태 및 유형

주어진 글에 대한 이해 여부를 파악하는 읽기는 적게는 20문항 많게는 29.2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었으며 1회 평균 24.6문항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문항은 선택형과 서답형이 모두 출제되고 있었으며 논술형을 제외한 세부 형태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 문항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택형과 서답형의 비율은 약 98:2로 대부분의 문항이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라, 마, 바, 아 네 기관은 모든 문항을 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있었으며 가, 나, 사 기관도 진위형, 배열형, 단답형의 형태가 있었으나 그 비중이 낮아 읽기 영역에서도 선다형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96〉 읽기의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선택 형	선다형	115 (95.8)	150 (91.5)	107 (87.7)	150 (100)	155 (100)	150 (100)	173 (98.8)	145 (100)	1145 (96.9)
	진위형	4 (3.3)	·	1 (0.82)	·	·	·	1 (0.6)	·	6 (0.5)
	배열형	1 (0.8)	1 (0.6)	1 (0.82)	·	·	·	·	·	3 (0.3)
	연결형	·	·	2 (1.64)	·	·	·	·	·	2 (0.2)
서 답 형	단답형	·	13 (7.9)	10 (8.2)	·	·	·	1 (0.6)	·	24 (2)
	완결형	·	·	1 (0.82)	·	·	·	·	·	1 (0.1)
	논술형	·	·	·	·	·	·	·	·	·
총합		120 (100)	164 (100)	122 (100)	150 (100)	155 (100)	150 (100)	175 (100)	145 (100)	1181 (100)

1) 선택형

전체 문항의 97.9%를 차지하고 있는 선택형 문항은 선다형, 진위형, 배열형, 연결형 형태로 출제되고 있었다. 선택형 문항 중 99%가 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있어 읽기 평가에서 선다형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97〉 읽기의 선택형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선다형	115 (95.8)	150 (99.3)	107 (96.4)	150 (100)	155 (100)	150 (100)	173 (99.4)	145 (100)	1145 (99)
진위형	4 (3.3)	·	1 (0.9)	·	·	·	1 (0.6)	·	6 (0.5)
배열형	1 (0.8)	1 (0.7)	1 (0.9)	·	·	·	·	·	3 (0.3)
연결형	·	·	2 (1.8)	·	·	·	·	·	2 (0.2)
총합	120 (100)	151 (100)	111 (100)	150 (100)	155 (100)	150 (100)	173 (100)	145 (100)	1156 (100)

선택형의 선다형, 진위형, 배열형, 연결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가) 선다형

읽기의 선다형 문항은 33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이 중 유의 표현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맞거나 틀린 문장 고르기, 다의어 고르기는 이해가 아닌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미 어휘-문법, 쓰기에서 다루었다. 질문에 적절한 답을 고르는 유형은 표현 영역과 이해의 듣기 영역에서 모두 사용되는 유형이나 제시된 문항은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이었다. 또 숫자를 제시하고 바르게 표현한 것을 고르는 것⁶⁵⁾ 역시 어휘 영역이나 말하기의 소리 내어 읽기인 낭독(reading aloud)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표현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읽기의 유형은 27개로 정리할 수 있다.

65) 바 기관의 1급 읽기에서 평가하고 있는 숫자 읽기 유형이다.

※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교실에 학생이 13명 있습니다.

- ① 열삼 명 ② 십세 명 ③ 열세 명 ④ 삼십 명

27개 유형 중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세부 내용 파악하기인 내용과 같은 것이나 다른 것 고르기로 25.7%가 이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가 16.3%, 정보 고르기 유형이 9.4%, 중심 생각이나 문장 고르기가 7.3%로 그 뒤를 이었다.

〈표98〉 읽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단위: 개(%)

문항 유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19 (16.5)	46 (30.6)	26 (24.3)	39 (26)	48 (31)	36 (24)	38 (21.9)	42 (29)	294 (25.7)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22 (19.1)	10 (6.7)	16 (15)	25 (16.7)	25 (16.1)	36 (24)	24 (13.9)	28 (19.3)	186 (16.3)
정보 고르기	24 (20.9)	34 (22.6)	21 (19.7)	2 (1.3)	5 (3.2)	.	17 (9.8)	5 (3.4)	108 (9.4)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	3 (2.6)	6 (4)	6 (5.6)	17 (11.3)	17 (11)	13 (8.7)	10 (5.8)	11 (7.6)	83 (7.3)
소재/화제 고르기	5 (4.4)	10 (6.7)	2 (1.9)	12 (8)	15 (9.7)	13 (8.7)	11 (6.3)	14 (9.7)	82 (7.2)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	2 (1.7)	8 (5.3)	3 (2.8)	12 (8)	10 (6.5)	10 (6.7)	8 (4.6)	10 (6.9)	63 (5.5)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	2 (1.7)	5 (3.3)	2 (1.9)	9 (6)	9 (5.8)	11 (7.3)	8 (4.6)	7 (4.8)	53 (4.6)
제목 고르기	5 (4.4)	7 (4.7)	2 (1.9)	6 (4)	1 (0.6)	3 (2)	11 (6.3)	6 (4.1)	41 (3.6)
밑줄의 의미 고르기	.	2 (1.3)	15 (14.1)	.	5 (3.2)	1 (0.7)	8 (4.6)	2 (1.4)	33 (2.9)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	1 (0.9)	4 (2.7)	.	4 (2.7)	4 (2.6)	8 (5.3)	3 (1.7)	4 (2.8)	28 (2.4)
글을 쓴 목적 고르기	.	6 (4)	.	6 (4)	5 (3.2)	.	6 (3.5)	5 (3.4)	28 (2.4)

그림/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	1 (0.9)	6 (4)	2 (1.3)	10 (6.7)	6 (3.5)	.	25 (2.2)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	.	4 (2.7)	1 (0.9)	.	4 (2.6)	.	3 (1.7)	4 (2.8)	16 (1.4)
글의 종류 고르기	.	2 (1.3)	2 (1.9)	.	.	.	6 (3.5)	1 (0.7)	11 (0.1)
앞에 올 내용 고르기	2 (1.7)	.	1 (0.9)	2 (1.33)	.	3 (2)	1 (0.6)	.	9 (0.8)
그림/도표 고르기	1 (0.9)	.	1 (0.9)	.	.	.	4 (2.3)	.	6 (0.5)
필자의 기분/심정 고르기	.	.	.	2 (1.3)	.	.	2 (1.2)	2 (1.4)	6 (0.5)
필자의 생각 고르기	1 (0.9)	.	3 (2.8)	.	.	.	1 (0.6)	.	5 (0.4)
말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고르기	2 (1.7)	.	1 (0.9)	.	.	.	2 (1.2)	.	5 (0.4)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	.	4 (2.7)	.	.	1 (0.6)	.	.	.	5 (0.4)
지시어의 내용 고르기	.	.	1 (0.9)	.	2 (1.3)	.	.	1 (0.7)	4 (0.3)
필자의 태도 고르기	.	.	.	2 (1.3)	.	.	2 (1.2)	.	4 (0.3)
이어질 내용 고르기	.	.	.	.	.	.	2 (1.2)	.	2 (0.2)
요약 문장 고르기	.	.	1 (0.9)	.	.	.	.	.	1 (0.1)
필자가 한 행동 고르기	.	1 (0.7)	.	.	.	.	.	.	1 (0.1)
필자의 주장 고르기	.	1 (0.7)	.	.	.	.	.	.	1 (0.1)
주장의 근거 고르기	.	.	1 (0.9)	.	.	.	.	.	1 (0.1)

유의 표현 고르기	2 (1.7)	.	1 (0.9)	6 (4)	2 (1.3)	1 (0.7)	.	3 (2.1)	15 (1.3)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8 (7)	.	.	.	.	3 (2)	.	.	11 (1)
맞는/틀린 문장 고르기	10 (8.7)	.	.	.	.	.	.	.	10 (0.9)
다의어 고르기	4 (3.5)	.	.	.	.	.	.	.	4 (0.3)
알맞은 대답 고르기	2 (1.7)	.	.	.	.	.	.	.	2 (0.2)
숫자 읽기	.	.	.	.	.	2 (1.3)	.	.	2 (0.2)
총합	115 (100)	150 (100)	107 (100)	150 (100)	155 (100)	150 (100)	173 (100)	145 (100)	1145 (100)

표현 영역의 문항을 제외한 위 문항을 읽기 능력의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사실적 이해 유형이 7개, 추론적 이해 유형이 16개로 추론적 이해 유형이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비율은 사실적 이해가 49.6%, 추론적 이해가 48.9%로 사실적 이해가 더 많이 높았다. 평가적 이해는 4개 유형, 1.5% 비율로 출제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읽기에서는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실적 이해 능력과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유추하여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추론적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또 사실적 이해 능력보다 추론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이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표99〉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구성 요소	유 형	문항	비율	
사실적 이해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294	26.7	49.6
	정보 고르기	108	9.8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	28	2.5	
	알맞은 그림/도표 고르기	6	0.5	
	그림/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25	2.3	
	지시어 내용 고르기	4	0.4	
	소재/화제 고르기	82	7.4	
추론적 이해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186	16.9	48.9
	밑줄의 의미 고르기	33	3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고르기	5	0.5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	63	5.7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	53	4.8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	83	7.5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	16	1.5	
	요약 문장 고르기	1	0.1	
	제목 고르기	41	3.7	
	글을 쓴 목적 고르기	28	2.5	
	글의 종류 고르기	11	1	
	주장의 근거 고르기	1	0.1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	5	0.5	
	앞에 올 내용 고르기	9	0.8	
	이어질 내용 고르기	2	0.2	
	필자가 한 행동 고르기	1	0.1	
평가적 이해	필자의 기분/심정 고르기	6	0.5	1.5
	필자의 생각 고르기	5	0.5	
	필자의 태도 고르기	4	0.4	
	필자의 주장 고르기	1	0.1	
총합		1101	100	100

읽기 능력의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된 각각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①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는 주어진 글의 내용을 추론하거나 비판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정보의 내용과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등 이해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실적 이해 문항은 글의 내용 및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의 7개 유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읽고 내용과 같거나 다른 것을 고르는 것이었다. 53.8%로 문항의 절반이 이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다음은 정보 고르기 19.7%, 소재나 화제 고르기 15%,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 5.1%, 그림이나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4.6%, 알맞은 그림이나 도표 고르기 1.1%, 지시어 내용 고르기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100〉 사실적 이해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문항 수	비율
1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294	53.8
2	정보 고르기	108	19.7
3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	28	5.1
4	알맞은 그림/도표 고르기	6	1.1
5	그림/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25	4.6
6	지시어 내용 고르기	4	0.7
7	소재/화제 고르기	82	15
총합		547	100

사실적 이해 문항은 〈표101〉과 같이 초급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으며

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줄어들었다.⁶⁶⁾

〈표101〉 사실적 이해 문항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226	177	144	547
비율	41.3	32.4	26.3	100

이를 통해 초급 단계에서는 사실적 이해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적 이해 능력은 글을 추론하고 비판, 평가하는 데에 기초 능력이 된다. 따라서 이 능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문항을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는 고급 읽기를 위한 기초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1.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글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이나 다른 것을 고르는 문항은 사실적 이해 문항 중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자 읽기 선다형 문항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었다.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다. 따라서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식, 문맥에 대한 이해, 글 전체에 대한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다음과 같이 글로도 제시되고 광고, 안내문이나 편지, 이메일의 형식으로도 제시된다.

66) 한국어능력시험의 초급 읽기에서는 사실적 이해 문항이 40문항 중 32문항 내외로 출제되어 문항의 80% 가량이 사실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고 있었다.

평가 종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TOPIK I	32개 내외 (80% 내외)	8개 내외 (20% 내외)	-	40개 (100%)
TOPIK II	20개 내외 (40% 내외)	25개 내외 (50% 내외)	5개 내외 (10% 내외)	50개 (100%)

〈자료102〉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의 예

※ 다음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주말에 보통 친구를 만나요. 지난 주말에도 친구하고 같이 한강 공원에 갔어요. 지난주에는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그리고 공원에 꽃도 많이 피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는 공원에서 사진도 찍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도 먹었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번 주말에는 제 여동생이 한국에 올 거예요. 동생은 한국에 처음 와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할 거예요. 동생이 쇼핑을 아주 좋아해서 먼저 동대문 시장에 가 보려고 해요.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도 하고 대학로에 가서 영화도 볼 거예요.

- ① 나는 쇼핑을 정말 좋아해요.
- ② 동생은 동대문 시장에 가 봤어요.
- ③ 지난 주말에 날씨가 안 좋았어요.
- ④ 이번 주말에 여동생을 만날 거예요.

〈자료103〉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의 예

※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방이 있습니다

- 학교에서 가깝습니다.
-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책상과 침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①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학교에서 멀지 않습니다.
- ③ 책상과 침대는 사지 않아도 됩니다.
- ④ 인터넷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읽기 역시 질문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달랐다. 이는 듣기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같은 시험지 안에서도 그 사용이 통일되지 않았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자의 혼동을 줄이도록 같은 기관, 같은 평가, 같은 등급 안에서는 하나의 어휘를 선택해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102〉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유형의 지시문

어휘	질문
같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글과 무엇이 같습니까?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위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라.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읽고 내용과 <u>같은(=)</u>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보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글의 내용과 같지 <u>않은(X)</u> 것을 고르십시오. 윗글의 내용과 같지 <u>않은</u> 것을 고르십시오.
다르다	이 글의 내용과 <u>다른</u> 것을 고르십시오. 이 글의 내용과 <u>다른(wrong)</u>것은 무엇입니까? 이 글의 내용과 <u>다른</u> 것을 고르라. 위 글의 내용과 <u>다른</u> 것은 무엇입니까? 위 글의 내용과 <u>다른</u> 것을 고르세요. 글의 내용과 <u>다른</u>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읽고 내용과 <u>다른</u> 것을 고르십시오.
맞다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윗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위 글의 내용과 맞지 <u>않는</u>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글 읽고 <u>맞지</u>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글 읽고 <u>맞지(X)</u>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알맞다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 글을 읽고 <u>알맞지</u>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일치하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글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 글의 내용과 <u>일치하지</u>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내용과 <u>일치하지</u>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2. 정보 고르기

정보 고르기 유형은 질문의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정보를 찾는 유형으로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대부분의 읽기 활동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험자는 질문을 이해하고 글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

이 유형은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질문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8개 기관의 읽기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16개의 세부 목적이 나타났다.

글에 나온 특정한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을 고르는 문항이 많았다. 특이한 점은 ‘설명’은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내용’은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각각 90% 이상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이유와 한 일, 하는 일, 할 일에 대한 행동을 파악하는 문제도 각각 13문항, 12문항이 출제되어 비중이 높았다.

〈표103〉 정보 고르기의 세부 목적

목적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설명		11	18	6	2	1	.	6	3	47	
내용		5	4	4	.	.	.	4	.	17	
이유		1	3	5	.	1	.	2	1	13	
행동	한 일	1	3	2	.	1	.	2	.	9	12
	할 일	1	1	1	.	.	.	.	.	3	
교훈		.	.	1	.	.	.	.	.	1	
특징		1	.	.	.	.	.	2	.	3	
방법		1	.	.	.	1	.	.	1	3	
의미		1	.	1	.	.	.	.	.	2	
교통		1	1	.	.	.	.	.	.	2	
장소		.	2	.	.	.	.	.	.	2	
기능		.	1	.	.	.	.	.	.	1	
가격		.	.	.	.	1	.	.	.	1	
인물		1	.	.	.	.	.	.	.	1	
성격		.	.	.	.	.	.	1	.	1	
문제점		.	1	.	.	.	.	.	.	1	
준비물		.	.	1	.	.	.	.	.	1	
총합		24	34	21	2	5	.	17	5	108	

①-3. 그림/도표 고르기

그림이나 도표 고르기는 질문에 알맞은 그림이나 도표를 찾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하나는 제시한 어휘나 문장에 알맞은 그림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읽고 질문에 알맞은 그림이나 도표를 찾는 것이다.

우선 제시한 어휘나 문장에 알맞은 그림 고르기는 〈자료104〉와 같이 제시

가 어휘일 때는 어휘력을 평가할 수 있고 <자료105>와 같이 제시가 문장일 때는 어휘력과 문장 구성 및 이해 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초급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104> 어휘 읽고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

※ 알맞은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회전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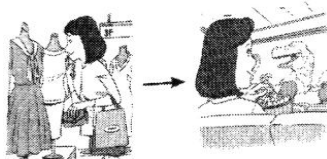


<자료105> 문장을 읽고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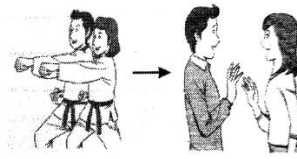
※ 다음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나는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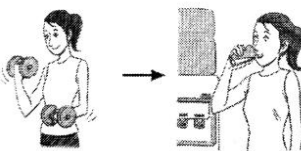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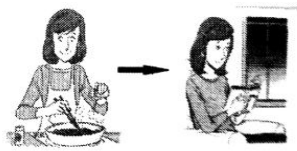
②



③



④



둘째, 글을 읽고 도표 고르기는 단어나 문장을 읽고 그림 고르기와 ①-1의 유형이 결합된 것이다. ①-1에서는 세부 내용이 글로 제시되었다면 이 유형에서는 <자료106>과 같이 도표로 제시된다. 이 유형은 단어의 어휘력, 문장의 구성 및 이해력 평가뿐만 아니라 문장 간,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급 단계에서 출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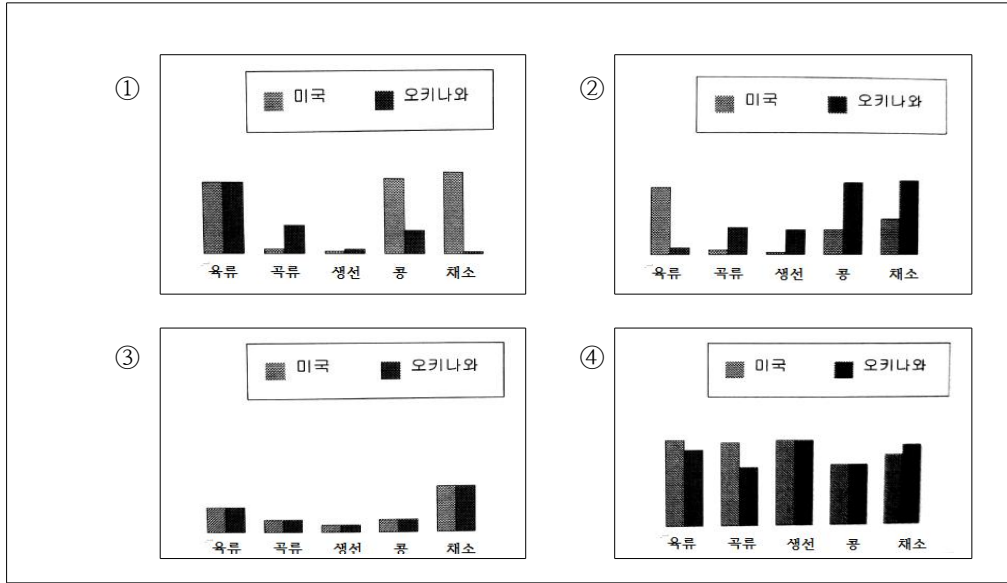
〈자료106〉 글을 읽고 질문에 맞는 그림 고르기의 예

※ 미국 사람들과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단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도표를 고르십시오.

일본의 섬 오키나와는 불로장생을 바라는 인류의 꿈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전 세계에서 일본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길다. 일본에서도 특히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지역이 바로 오키나와이다. 이들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건강하다. 그리고 암에도 잘 안 걸린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는 음식, 기후, 물, 노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넓은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공해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섬의 곳곳에 광천수가 널려 있고 또한 어업과 농업을 겸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육체노동을 하는 것 등이 꼽혔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키나와 특유의 식생활 습관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마디로 미국과는 달리 곡류와 생선과 콩, 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고 육류는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육체노동을 계속하면 병 없이 100세를 넘게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장수촌의 장수 비결은 의학적 도움이나 불로장생의 약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이다.” 이는 전 세계의 장수촌을 참방한 세계 보건 기구(WTO) 자문 위원들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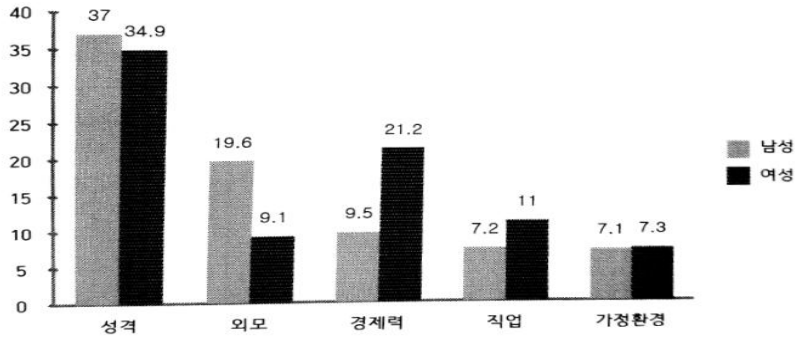
①-4. 그림/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이 유형은 그림이나 도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그림이나 도표에 대한 해석과 세부 내용의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앞에서 살펴본 ①-3의 제시 방법과 반대되는 형태이다. ①-3은 어휘나 글을 제시하고 알맞은 시각 자료를 고르는 것이고 ①-4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중·고급에서 출제되고 있었다.

〈자료107〉 그림/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의 예

※ 다음을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남성의 경우 성격, 경제력, 외모 순으로 나타났다.
- ②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격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 ③ 성별에 따라 중시하는 조건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④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의 조건 중에서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①-5. 지시어의 내용 고르기

이 유형은 평가하고자 하는 지시어에 밑줄을 긋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 가리키는 것 등을 담화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래 문항은 ‘그러한 일’이 가리키는 것을 문장 안에서 찾을 수 없으며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자료108〉 지시어의 내용 고르기 유형의 예

한 유명한 과학자를 인터뷰하던 기자가 집 전화번호를 묻자 그 과학자는 수첩을 꺼내서 자기 집 전화번호를 찾았다. 기자가 “집 전화번호를 기억 못 하세요?”하고 질문했더니 그는 “적어 두면 되는 것을 왜 일부러 기억해야 하지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그 과학자가 그렇게 많은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뇌를 불필요한 일이 아닌 생산적인 일에 활용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그 과학자의 말대로 ㉠ 그러한 일들은 메모 등으로 해결 하면 우리의 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 밑줄 친 ㉠이 가리키는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① 인터뷰하는 것 | ② 뇌를 활용하는 것 |
| ③ 정보를 기억하는 것 | ④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 |

밑줄 친 지시어는 등급에 따라 다르다. 초급에서는 간단하게 ‘이, 그, 저’ 등으로 제시되나 중·고급에서는 ‘그러한 일’,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등으로 지시어와 함께 어휘, 표현 등이 결합하여 확장된 형태로 제시된다.

①-6.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

신문을 읽을 때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제목이다. 제목에는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기사가 무슨 내용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신문의 제목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제시되는 제목은 짧은 문장 혹은 완성되지 않은 압축된 표현이므로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사실적 이해 문항 중 유일하게 중급 이상에서 출제된다.

〈표104〉 사실적 이해 문항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내용과 같은/다른 것 고르기	140	88	66	294
	정보 고르기	34	38	36	108
	그림/도표 고르기	4	1	1	6
	그림/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11	5	9	25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	·	4	24	28
	지시어의 내용 고르기	2	2	·	4
	소재/화제 고르기	34	39	9	82
출제 비율		41.1	32.4	26.5	100

〈자료109〉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의 예

※ 다음은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대형 화재로 이어진 수박 겉핥기 식 안전 점검

- 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 점검이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 ② 이번에 발생한 큰 화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 ③ 계속 되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④ 현재의 안전 점검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①-7. 소재/화제 고르기

이 유형은 글을 읽고 소재, 화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소재 및 주제 고르기 유형은 초·중·고급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었으나 문항

을 분석해 보면 등급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05〉 소재/화제 고르기의 등급별 내용

내용	초급	중급	고급
문장 수	1~2문장	3~7문장	5문장 이상
정답	한 단어	한두 단어, 두 어절	두세 단어, 두세 어절
텍스트	짧은 서술문	서술문, 광고, 안내문 등	긴 서술문

초급은 단문으로 구성된 2문장 내외의 짧은 서술문을 읽고 답으로 제시된 어휘를 고르면 된다. 그러나 중·고급은 3문장 이상의 서술문을 읽고 소재나 화제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문장은 복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문장 수는 더 많다. 또한 중·고급에서는 서술문과 함께 실용문도 활용되었는데 광고나 안내문의 경우 어휘 및 문장 수는 적으나 그 안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어휘, 문장,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자료110〉은 초급, 〈자료111〉은 중급의 예이다.

〈자료110〉 소재/화제 고르기의 예①

※ 다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생은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① 교통

② 여행

③ 운동

④ 취미

〈자료111〉 소재/화제 고르기의 예②

※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숨겨진 S라인을 찾아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자면서도 살이 빠지는 놀라운 효과!

건강한 아름다움,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① 침대

② 운동 방법

③ 다이어트

④ 건강 상담

②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글의 사실적 정보나 내용 등을 파악하여 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유추하여 질문의 답을 찾는다. 글의 정보나 내용이 그대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고 글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추론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16개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34.6%의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였다. 중심 생각이나 문장 고르기와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도 각각 15.4%, 11.7%로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

〈표106〉 추론적 이해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문항 수	비율
1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186	34.6
2	밑줄의 의미 고르기	33	6.1
3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고르기	5	0.9
4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	63	11.7
5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	53	9.9
6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	83	15.4
7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	16	3
8	요약 문장 고르기	1	0.2
9	제목 고르기	41	7.6
10	글을 쓴 목적 고르기	28	5.2
11	글의 종류 고르기	11	2
12	주장의 근거 고르기	1	0.2
13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	5	0.9
14	앞에 올 내용 고르기	9	1.7
15	이어질 내용 고르기	2	0.4
16	필자가 한 행동 고르기	1	0.2
총합		538	100

읽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사실적 이해를 꼽는다면 상위 단계의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추론적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론적 이해에 속하는 16개의 유형은 〈표107〉과 같이 절반이 중급부터 평가되고 있었으며 고급부터 평가되는 유형도 4개나 되었다. 고급에서 출제되는 경우 정답형이 아닌 ‘가장 알맞은 답’ 혹은 ‘정답의 정도가 가장 큰 답’을 고르는 최선다형으로 제시되었다.

〈표107〉 추론적 이해 문항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63	55	68	186
	밑줄의 의미 고르기	2	16	15	33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고르기	·	3	2	5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	18	30	15	63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	14	9	30	53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	16	38	29	83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	·	·	16	16
	요약 문장 고르기	·	1	·	1
	제목 고르기	10	18	13	41
	글을 쓴 목적 고르기	2	8	18	28
	글의 종류 고르기	6	1	4	11
	주장의 근거 고르기	·	·	1	1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	·	1	4	5
	앞에 올 내용 고르기	·	5	4	9
	이어질 내용 고르기	·	·	2	2
	필자가 한 행동 고르기	·	·	1	1
출제 비율		24.3	34.6	41.1	100

②-1.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이 유형은 문장의 일부를 비워 놓고 문맥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여백을 통해 문장 내 의미 파악, 선후 관계 파악, 핵심 내용 파악 등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시는 1~2문장의 짧은 서술문, 한 문단, 긴 글로 하며 광고, 편지, 소설, 안내문, 설명문 등 다양한 글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는 전체 27개 유형에서는 2번째로 추론적 이해

16개 유형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었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유추를 통해 비어 있는 문장의 일부를 채워 글을 완성하는 것이 읽기를 위한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유형의 세부 평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어휘, 두 어절 이상의 표현, 접속사, 관용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두 어절 이상의 표현을 묻는 문항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문장의 핵심 어휘를 묻는 문항도 24.7%로 조사되었다. 접속사와 관용구는 각각 10.8%, 4.3%로 나타났다.

〈표108〉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의 평가 내용

단위: 개(%)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어휘	31 (49.2)	9 (16.4)	6 (8.8)	46 (24.7)
표현	19 (30.2)	35 (63.6)	58 (85.4)	112 (60.2)
접속사	13 (20.6)	5 (9.1)	2 (2.9)	20 (10.8)
관용어구	.	6 (10.9)	2 (2.9)	8 (4.3)
총합	63 (100)	55 (100)	68 (100)	186 (100)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유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문장의 일부를 비워 놓고 앞 뒤 문맥을 추론하여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 이때 표현은 〈자료112〉와 같이 2어절 이상으로 제시되는데 고급 단계에서는 〈자료113〉과 같이 문장의 주어 혹은 지시어, 접속사만을 제시하고 뒤를 모두 비워 문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완성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 유형은 이해력과 어휘-문법, 문장 구성의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112〉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의 예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공동 주택에서 살면 이웃 사람들 사이에 소음 문제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공동 주택은 이웃집과 벽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벽을 통해 소리가 잘 전달된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처럼 사람들이 대부분 잠자리에 들어 주변이 조용할 때는 이웃집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한다. (㉠) 사람들은 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 공동 주택은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① 이웃과 잘 지내고 싶은
- ②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는
- ③ 밤이나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 ④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자료113〉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의 예②

※ 다음을 읽고 _____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담배는 대단히 해로운 상품인데도 그 해독에 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담배에는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과 독성 물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독약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호 식품이라고 하여 이를 즐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로부터 받는 피해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흡연자를 범법자라고 할 수 없지만 자신과 비흡연자에게 모두 해를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_____.

- ① 흡연자들을 위해 합법적인 흡연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 ② 흡연자를 범법자와 같이 여기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③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해야 합니다.
- ④ 담배에 첨가된 유독 물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야 합니다.

표현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어휘이다. 이것은 1~2문장의 짧은 서술문과 긴 글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이 유형은 대부분 <자료114>와 같이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로 출제되지만 <자료115>와 같이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의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문항에서 여러 개의 어휘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난이도 및 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출제되어야 한다.

<자료114>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의 예

※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에게는 (㉠)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한국에서는 2년 전에 왔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말을 잘하지만 1급 공부할 때 한국말을 잘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6급에서 공부하는 민수 씨가 많이 도와주고 한국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민수 씨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도 민수 씨를 도와줄 겁니다.

- ① 미안한 ② 어려운 ③ 고마운 ④ 심심한

<자료115>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의 예

※ ㉠~㉣에 들어갈 말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는 재미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를 합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할머니께서 (㉠). 그리고 제 한국어 책을 (㉡).

“학생, 이거 먹어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사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께 초콜릿을 (㉢). “할머니, 이거 먹어요.” 할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교에서 높임말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할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

- ① ㉠ - 앉으셨습니다 ② ㉡ - 보셨습니다
③ ㉢ - 주셨습니다 ④ ㉣ - 죄송합니다

접속사는 앞뒤 단어를 연결하거나 앞 문장의 뜻을 뒤의 문장에서 이어 주면서 그것을 꾸며주는 부사이다. 이것은 맥락의 추론을 통해 그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

초·중·고급 전 영역에 걸쳐 고루 평가되고 있으며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접속사의 사용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어휘와 어휘의 연결을 위한 접속사는 평가되고 있지 않았다. 접속사는 다음과 같이 기능에 따라서 순접, 역접, 나열, 진행형, 설명, 선택,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표109〉 접속사의 분류

분류	기능
순접	앞뒤의 관계를 순조롭게 이어줌.
역접	앞에 나온 것과 상반되는 것을 말함.
나열	어휘나 문장 등을 나열함.
진행	다른 설명을 덧붙임.
설명	앞의 나온 것을 설명하거나 예를 들.
선택	어휘나 문장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전환	화제를 전환함.

위 접속사가 읽기 평가에서 어떠한 등급에서 평가되고 있는지를 실제 문항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110〉과 같다.

위에서 제시한 접속사 중 선택을 제외하고 6종류의 접속사가 평가되고 있었다. 이 중 순접 접속사는 초·중·고급에서 모두 평가되고 있었으며 출제 비율이 가장 높았다⁶⁷⁾. 그 외 역접, 설명, 전환의 접속사도 많이 평가되었다.

67) 그래서 6회, 그러므로 3회, 따라서 2회, 때문에 1회

〈표110〉 접속사의 등급별 내용

분류	초급	중급	고급
순접	그래서	그러므로, 때문에	따라서
역접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면에	단, 한편
나열	그리고	.	.
진행	그리고	또한	게다가, 더군다나
설명	그러면	예를 들면	이처럼, 다시 말해, 즉
선택	.	.	.
전환	그런데	.	그렇다면

이 유형은 중·고급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항에서 2~3개의 접속사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논리적 사고력의 연결 능력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다.

〈자료116〉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 고르기의 예①

※ 다음을 읽고 ()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침을 챙겨 먹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 식사를 하지 않아서 배고프기 때문에 과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장운동도 활발하지 않아 변비가 생기기 쉽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원래 아침을 먹지 않았던 사람은 아침을 거른다고 해서 과식을 하지 않는다. 또한 아침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장운동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나와 변비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아침을 안 먹어도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① ㉠ : 그러나 ㉡ : 그러므로 ② ㉠ : 그리고 ㉡ : 그러므로
 ③ ㉠ : 하지만 ㉡ : 그런데 ④ ㉠ : 그래서 ㉡ : 따라서

〈자료117〉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 고르기의 예②

※ 다음 중 ㉠, ㉡, ㉢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누구든지 밤에 꿈을 꾸 적이 있을 겁니다.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것일 때가 많지만 꿈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_____ 꿈이 미래를 미리 보여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돼지꿈이나 용꿈을 꾸거나 조상이 나오는 꿈을 꾸다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돼지꿈은 대표적인 길몽의 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돼지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돼지를 나타내는 한자 ‘돈(豚)’과 화폐를 나타내는 ‘돈(money)’의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꿈을 꾸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길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길한 내용의 흉몽도 있습니다.

㉡ _____ 여러분이 혹시 이가 빠지는 꿈이나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다면 안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꿈에서 ‘이’는 가까운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이가 빠진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발’은 직업을 나타내므로 직업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꾴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흉몽을 꾴서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는 등 꿈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같은 꿈이라도 꿈을 꾸 사람의 문화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_____ 길몽을 꿔다고 헛된 꿈만 꾸어도 안 되고 흉몽을 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니까요.

① 또한, 그러면, 이처럼

② 또한, 더군다나, 한편

③ 그리고, 그러면, 게다가

④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러므로

문맥에 알맞은 관용어구 고르기에서는 속담 및 관용 표현을 묻고 있었다.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격언이나 잠언(箴言)을 말하고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어휘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휘·문법, 표현의 1차적인 의미로만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다. 이러한 속담과 관용 표현은 읽기 평가에서 어떠한 사실을 비유를 통해 말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어휘, 어절 단위의 평가가 초급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관용어구 평가가 중급 이상부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이를 평가하는 문항의 예는 <자료118>, <자료119>와 같다.

〈자료118〉 문맥에 알맞은 속담 고르기의 예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최근 인기 연예인 L씨와 W씨의 스캔들로 인터넷이 시끄럽다. 네티즌들은 ()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다. 두 사람이 공항에서 같이 출국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온 후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L씨의 매니저는 유명한 연예인들은 이런 소문이 나기 마련이라면서 L씨와 W씨는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 ① 그림의 떡이라면서
- ②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면서
- ③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면서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면서

〈자료119〉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고르기의 예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 친구는 ().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든지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을 말하기도 하지만 친구는 우리끼리 한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① 입이 짧다 ② 입이 무겁다 ③ 입이 길다 ④ 입이 가볍다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는 위와 같이 어휘, 표현, 접속사, 관용어구로 나눠 각각 평가하기도 하지만 여럿을 함께 평가할 수도 있다. 다음은 어휘와 접속사를 함께 평가한 예이다.

〈자료120〉 문맥에 알맞은 어휘와 접속사 고르기의 예

※ ㉠과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인구의 고령화를 미래의 재앙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유엔(UN)이 펴낸 ‘세계 인구 고령화 1950~2050 보고서’에 오는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 인구를 크게 앞지르는 대역전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소비의 격감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로 인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문제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노인복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연금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이미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을 높이고 (㉡) 노인의 의료 수요에 대비해 의료 보험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 - 하지만, ㉡ 감소하는

㉠ ㉠ - 반면에, ㉡ - 평균적인

㉠ ㉠ - 따라서, ㉡ 증대되는

㉠ ㉠ - 게다가, ㉡ - 기대되는

②-2. 밑줄의 의미 고르기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밑줄을 긋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어휘가 가진 여러 의미, 글 안에서의 어휘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하나는 〈자료121〉과 같이 특정 어휘에 밑줄을 긋고 문장 내 의미를 묻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122〉와 같이 문장 전체에 밑줄을 긋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묻는 방식이었다. 전자는 초급에서 후자는 중·고급에서 출제되고 있었다.

〈자료121〉 밑줄의 의미 고르기의 예①

※ ㉠ ~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징크스(jinx)’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 사용하던 새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사람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마치 마술과 같은 힘으로 일어나는 불길한 일이나 운명적인 일을 의미한다. ㉠ 얼핏 보면 심리학이나 인류학에서 말하는 금기와도 비슷하다.

징크스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다. 개인택시 운전자 최양우 씨는 일주일 전 택시를 ㉡ 몰다가 작은 사고를 냈다. 종로에 손님을 태워다 주고 오다가 애완견을 치고 만 것이다. 그 때 개를 치고 나면 꼭 교통사고를 낸다는 동료 운전자의 말이 번개처럼 머리에 떠올랐다. 최 씨는 운전을 계속할지 한참을 ㉢ 망설였다. 하지만 그런 별 것 아닌 이야기에 하루를 다 설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 때부터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40분 뒤 ㉣ 덜컹하던 차가 고장이 났다. 게다가 차를 고치는 데 꼬박 2시간을 허비했고 다시 운전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승합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① ㉠ 얼핏 보면 - 대충 보면

② ㉡ 몰다가 - 따라가다가

③ ㉢ 망설였다 - 어렵게 결정했다

④ ㉣ 덜컹하던 - 이상하던

〈자료122〉 밑줄의 의미 고르기의 예②

※ ㉠의 의미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혹시’하고 갔다가 ‘역시’하며 돌아서는 미팅

미팅 전문업체인 선우 이벤트가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미팅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악의 남성형에는 매너가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 놓는 타입이 1위에 꼽혔다. 다음으로 엄마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남자가 2위, 얼굴도 못 생겼으면서 패션 감각은 하나도 없는 사람과 손가락을 깨물고 다리를 떠는 등 불쾌감을 주는 버릇을 가진 남자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최악의 여성 상대 1위는 일명 공주병으로 연약한 척, 예쁜 척하는 여자였다. 이어 짙은 화장에 야한 옷차림이 섹시하기보다는 촌스럽게 느껴지는 타입과

무슨 일이든 ‘어머머머’를 연발하는 내숭을 떠는 여자도 남자들이 싫어하는 타입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다른 뎀 여성 해당을 외치다가 계산대 앞에만 가면 남자 등에 숨어버리는 여자가 꼽혔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 ① 만난 후에는 상대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 ② 만나기 전에는 상대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다.
- ③ 만나기 전에는 기대를 하지만 만난 후에는 실망한다.
- ④ 만나기 전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만난 후에는 만족한다.

②-3.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고르기

글에 대한 이해와 함께 표현력을 함께 평가하는 유형이다.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밑줄을 긋고 문맥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이해를 기반으로 한 표현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밑줄은 어휘부터 두 어절 이상의 표현, 관용어구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단, 보기는 밑줄보다 난이도를 낮춰 제시해야 한다. 이해에 초점이 있으므로 글을 이해했으나 보기로 제시된 어휘 및 표현이 어려워 못 푸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123〉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고르기의 예

※ ㉠을 한 단어로 바꿀 때 의미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외로울 때마다 집 뒤에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걷거나 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뛰다가 힘들면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집에 돌아와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아무 음식이나 배부르게 먹은 후에 ㉠ 일어나고 싶을 때까지 오랫동안 잠을 잤습니다. 이러면 보통 기분이 괜찮아졌습니다.

- ① 미리 ② 실컷 ③ 바로 ④ 새로

②-4.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

글을 쓸 때는 시간의 흐름이나 사건의 순서,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는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를 문장 단위로 나누어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뒤섞어 제시한 후 논리적인 순서로 글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지시어, 접속사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크게는 글 구성 능력, 세부적으로는 내용 이해, 지시어의 의미 파악, 문장 간의 관계 파악을 통한 접속사 사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시는 문장과 문단으로 하고 있었다.

제시가 문장인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자료124>와 같이 4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경우 문장 내 연결 어미 사용을 통한 문장 구성 즉, 문장을 복문으로 구성해 등급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자료124>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의 예①

다음은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 (가)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 (나) 거기에서 꽃과 옷을 샀습니다.
- (다) 내일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 (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라)-(나)

③ (다)-(가)-(나)-(라)

④ (다)-(라)-(가)-(나)

다음으로 제시가 문단인 경우 글이 <자료125>와 같이 네 문단으로 되어 있었으며 한 문단은 3문장 내외였다. 이 경우 문단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 추가 평가된다. 문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급에서만 출제되고 있었다.

〈자료125〉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의 예②

※ 이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

㉠	미래학자 앨빈 토플로가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기술적 발전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가치가 상상력에 의해 창출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처럼 현대 사회는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한다.
㉡	한 마디로 오늘날은 창조적 상상력에 의한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인 셈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 사물과 현상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단히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과거에는 많은 양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기술 및 지식의 양적 차이는 쉽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현재 사회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누가 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해진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이 유형은 〈표111〉과 같이 초·중·고급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었다. 47.6%에 해당하는 30문항이 중급에서 출제되어 중급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표111〉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18	30	15	63
출제 비율	28.6	47.6	23.8	100

②-5.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

이것은 문장과 문장 간에 여백을 두고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글 단위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유형이다.

②-1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②-1은 미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나 이 유형은 아래와 같이 문장은 완성된 형태로 그러나 글은 미완성된 형태로 제시된다.

이 유형은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해 주어진 문장을 삽입해야 하므로 여러 능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고급 단계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이전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초급부터 이 유형을 사용되었다. 그러나 체제 개편 이후 고급에서만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형의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자료126〉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의 예

※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옛날에 우리 집은 무척 가난하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병이 나도 약 한 첩을 써 보지 못하고 자라났었다. (㉠) 우리 형제들이 혹시 병으로 늙게 되면 어머니는 약 대신에 언제나 그 머리맡에 앉아서서는 “내 손은 약손이다.”를 외시면서 우리들의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픈 배나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다. (㉢) 나는 문득 내 손을 펼쳐 보았다. 현대의 약손이라고 일컫는 의사의 손이다. 그러나 미끈하고 차가운 내 손에는 아무래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 것만 같았다. (㉣)

— 〈보 기〉 —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약손이라고 불렀다.

① ㉠

② ㉡

③ ㉢

④ ㉣

②-6.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

듣기의 ②-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유형은 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듣기에서는 중심 생각 고르기로 한정되나 읽기의 경우 텍스트가 글자로 제시되므로 중심 생각과 함께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도 평가된다. 이 유형은 초·중·고급에서 고루 출제되고 있었다.

전술하였다시피 이 유형은 사실적 이해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와 평가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보기를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오류는 듣기보다 읽기에서 더 많았다. <자료127>은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문항이나 보기가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127> 중심 생각 고르기의 나쁜 예

※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토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봅니다. 같이 쇼핑도 합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많이 기다립니다.

- ① 저는 주말을 좋아합니다.
- ② 주말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 ③ 친구는 주말에 쇼핑을 합니다.
- ④ 저는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봅니다.

제시된 4개의 보기는 모두 글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사실적 이해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라면 ①, ②, ③, ④는 모두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전체 및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필자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답에는 필자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주말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 주말에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한다는 필자가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수험자는 이를 통해 ‘필자가 주말을

‘좋아한다’를 추론해 내야 한다. 이것이 중심 생각과 문장 고르기의 평가 목적이다. 출제 시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자료127>의 보기를 중심 생각 고르기로 수정한 것이다.

<자료128> 중심 생각 고르기의 예

※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토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봅니다. 명동에서 쇼핑도 합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많이 기다립니다.

- ① 저는 주말을 좋아합니다.
- ② 친구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 ③ 주말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 ④ 평일에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②-7.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

주제는 글의 중심 생각을 뜻하고 주제문은 글을 쓴 목적이나 주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중심 문장을 뜻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②-6의 중심 생각 고르기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②-6은 제시된 보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고 ②-7은 글 안에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찾는 것이다.

이 유형은 다음과 같이 4문장으로 구성된다.

〈자료129〉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의 예

※ 다음 글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한국말에는 유난히 떡과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이 많다. ㉡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등의 속담이 그것이다. ㉢ 그리고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운이 따르면 ‘이게 웬 떡이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 이런 표현들의 존재는 바로 떡이 오랜 세월 한국인의 생활에 밀착된 뿌리 깊은 음식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표112〉와 같이 ‘중심 생각 고르기’는 초·중·고급에서 고루 평가되고 있었으나 ‘글 안에서 주제문 고르기’는 고급에서만 출제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필자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등급에 걸쳐 읽기의 중요한 능력임을, 글 안에서 주제문을 파악하는 것은 이보다 상위 단계의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표112〉 ②-6과 ②-7의 등급별 출제 비율

단위: 개(%)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총합
②-6.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	16 (19.3)	38 (45.8)	29 (34.9)	83 (100)
②-7.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	.	.	16 (100)	16 (100)

②-8. 요약 문장 고르기

요약은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려 낸다는 뜻이다. 즉,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요약문을 쓰기 위해서는 글의 핵심 소재와 주제를 파악해야 하며 그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논거와 사례, 이

유 등을 찾아야 한다. 또 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요약 문장 고르기는 글에 대한 이해력과 함께 요약문을 구성할 수 있는 표현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 이 유형은 ②-6의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다 기관의 중급에서 출제되었으며 문단별 요약문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료130〉 요약 문장 고르기의 예

※ 각 단락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이 마지막 남은 한 개를 기피하는 것은 외국인의 음식상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습관인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우리라는 자격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한 개는 그것을 집어 먹었을 때, ‘우리’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점연쩍고 압채 같고 버릇없이 보이는 것이다.
(나)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은 심지어 죄책감까지 생기게 한다. 이처럼 한국인의 식사는 항상 ‘우리’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행된다. 맛있고 입맛이 당긴다고 ‘우리’의 눈치를 무시하고 한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된다.
(다)	누구나 마지막 한 점을 먹지 말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또 마지막 한 점을 먹으면 불행이 온다는 미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개의 경우 접시에 남은 마지막 한 점의 고기는 아무도 손을 대려 하지 않고 끝내는 남은 채로 주방으로 향하게 된다.
(라)	한국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같이 먹던 음식에서 남은 한 점을 자기만 먹겠다고 집어 먹는 행위는 ‘우리’를 깨뜨리는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 같이 먹을 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없이 ‘나’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 ① (가) - 한국 사람들은 남은 한 개는 먹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② (나) - 한국에서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 ③ (다) - 한국에서는 마지막 고기 한 점에 대한 미신이 다양하다.
- ④ (라) - 한국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다.

②-9. 제목 고르기

제목은 글의 내용을 보이거나 대표하기 위하여 붙이는 것이다.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는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축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제목 고르기이다. 긴 글을 읽고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개의 어절이나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 속해 중급부터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131〉 제목 고르기의 예

책의 기원은 B.C. 3000년경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했던 나일강 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로 만들어진 파피루스이다. 그 후 B.C. 200년경부터는 고대 그리스에서 새끼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책의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피지로 만든 책은 파피루스보다 빛깔도 희고 질겼는데 매우 귀해서 귀족이나 성직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책의 재료들은 1세기가 무렵 종이 등장하면서 역사 속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종이는 기원전에 주로 사용했던 재료들에 비해 부드럽고 잘 써질 뿐만 아니라 무게도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매우 편했다. 십여 세기 후에는 인쇄술이 발명되어 더 많은 양의 종이 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 책은 급속하게 보급되었고 인간은 책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책의 변천 과정
- ② 인쇄술의 발전 과정
- ③ 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
- ④ 책의 재료에 따른 장단점

②-10. 글을 쓴 목적 고르기

이 유형은 듣기의 ②-17 말하기 목적 고르기와 평가 목적이 같다. 소리로 평가하던 것을 글로 평가하는 것이다. 글을 통해 제시하므로 어휘와 표현, 전개 방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필자가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의 분위기, 필자의 생각, 태도 등을 파악하는 평가적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이 유형은 대부분 중급부터 출제되며 보기로 제시된 문장 중에서 목적을 고르는 <자료132>의 방식으로 출제된다.

<자료132> 글을 쓴 목적 고르기의 예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고르십시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국인의 1인당 우편 이용량이 9통이라고 한다. 미국이 60통, 일본이 45통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우편 수단보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과 같은 통신 수단을 많이 사용한 결과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우편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융 관련 우편물을 한국에서는 이메일 등 다른 통신 수단으로 처리하고 있다.

- ① 세계인들의 우편 이용량 조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 ② 한국인의 우편 이용량이 적은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 ③ 우편 이용량과 통신 기술 발달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 ④ 한국과 다른 나라의 1인당 우편 이용량을 비교하기 위해

그러나 고급에서는 <자료133>과 같이 글 안에서 필자의 목적이 들어 있는 단락을 고르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자료133〉 글을 쓴 목적이 담긴 단락 고르기의 예

이 글을 쓴 목적이 들어 있는 단락을 고르십시오.	
(가)	인류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현재의 동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던 우리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 익숙한 거주지를 떠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일부는 동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일부는 바다를 향했고 식량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계속되는 이동을 하였다. 그로부터 수만 년이 흘렀고 인류의 모습은 변화가 생겼다. 머리와 눈의 색깔이 바뀌고 얼굴과 체형도 변했다. 우리가 ‘인종’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외형 차이는 바로 이 시기에 지리, 기후에 의한 자연 선택으로 형성된 것이다.
(나)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우리의 조상은 현재의 에티오피아인처럼 검은 피부였을 것이다. 온난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색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멜라닌 색소 때문이다. 멜라닌은 효과적인 햇빛 차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은 피부는 태양에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에 걸리는 것을 막아 준다.
(다)	몽골 인종의 평평한 얼굴, 뾰족한 코, 두툼한 눈두덩은 우리 조상들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통과하면서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된 것이다. 먼저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콧구멍을 좁게 만들어 공기가 폐에 도달하기 전에 공기를 미리 덥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두덩은 지방이 많아져 두툼해졌다.
(라)	외모는 기후에 반응한 유전자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체가 환경에 적응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인종 간 차이는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되어 우리는 유전적인 구조도 피부색만큼이나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유전적 구조는 전혀 다르지 않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②-11. 글의 종류 고르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야 한다. 이에 읽기 평가에는 편지, 시, 소설, 설명문, 논설문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이 등장한다. 이 유형은 글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 능력을 향상시키면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읽기 과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급에서부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요소라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문항의 비율이 초급에 집중되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표113〉 글의 종류 고르기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6	1	4	11
출제 비율	54.5	9.1	36.4	100

다음은 초급에서 출제된 문항의 예이다.

〈자료134〉 글의 종류 고르기의 예

‘집으로’를 보고

이 영화는 할머니와 손자 상우의 이야기입니다. 상우는 할머니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상우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상우도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의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시골에 계십니다.

※ 이 글은 무엇입니까?

① 일기
② 편지
③ 감상문
④ 문자메시지

이 글은 감상문이다. 감상문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읽을 때와는 초점이 다르다. 정서적인 글로 필자의 느낌, 감정, 관점 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설명문처럼 정보를 파악하며 읽거나 논설문처럼 필자의 생각과 주장 등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읽기 평가에 필요한 전략이다.

〈표114〉 글의 종류와 읽기 방법

종류		읽기 방법
정보	설명문	설명하려는 사실이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는다. 두 가지 이상을 비교하는 글일 때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는다.
	기사문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목과 부제목을 읽은 후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며 읽는다. 사진, 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함께 보며 이해를 돕는다.
	보고문	어떠한 주제에 대해 관찰하고 쓴 것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전기문	인물이 살고/살았던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인물의 업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인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설득	논설문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적절한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광고	무엇에 대해 광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상품의 정보(가격, 장단점, 용도 등)를 파악하며 읽는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곡된 점이 없는지 파악하며 읽는다.
정서	편지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다.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시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읽는다. 함축되어 있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소설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을 파악하며 읽는다.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는다.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는다.

②-12. 주장의 근거 고르기

이 유형은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적 이해의 ③-4 필자의 주장 고르기와 함께 출제된다. 즉, 하나의 텍스트에서 두 개의 질문을 하는 세트 문항으로 출제된다. 평가적 이해 문항과 함께 출제되므로 중·고급 단계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135〉 주장의 근거 고르기의 예

※ 여자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금지 표지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명동과 강남 일대에 부착된 금지와 경고 표지 수를 조사한 것을 봤는데 13km 거리 안에서 금지 혹은 경고 표지가 약 2천 개에 달했다고 한다. 7m에 한 개꼴, 성인의 보폭을 기준으로 아홉 걸음마다 한 번씩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되면 나도 모르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① 지역 홍보 자료

② 사례 조사 결과

③ 자신의 실제 경험

④ 화제가 되었던 기사

②-13.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

전달하는 상황과 목적, 성격에 따라 글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글을 쓰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이다. 즉, 글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쓰였는가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글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동태적 방법과 그렇지 않은 정태적 방법으로 나뉜다.

〈표115〉 글의 전개 방법

방법		설명
동태	서사	행동이나 사건의 움직임과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쓰는 방법임.
	인과	어떠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방법임.
	과정	어떠한 일의 절차와 순서에 따라 글을 쓰는 방법임.
정태	정의	어떠한 개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설명하는 방법임.
	분류	어떠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임.
	분석	어떠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임. (각 부분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없으면 대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는 방법임.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는 방법임.
	예시	설명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방법임.
	묘사	어떠한 대상을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임.

읽기 평가에서는 동태적 방법과 정태적인 방법으로 기술된 글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은 정태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이 유형은 글의 전체 구성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으로 고급 단계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136〉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의 예

※ 글의 전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목조 건물이다. 이때 ‘최고’는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도 되지만 가장 오래되었다는 의미도 된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봉정사의 극락전과 함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꼽힌다. 현재의 무량수전은 신라 시대에 지어졌던 것이 불에 타 없어진 뒤 1376년 고려 우왕 때 다시 지어진 것이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배흘림기둥과 팔작지붕은 우아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배흘림기둥은 신라 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 전기까지 이어진 건축 양식이다. 기둥의 배 부분이 두껍고 위아래로 갈수록 완만하게 얇아지는 이 배흘림기둥은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처마를 위로 향하고 있는 팔작지붕은 기둥의 우아함을 완성시킨다. 특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하늘을 향해 살짝 들어 올려진 지붕의 끝부분에서는 한국의 멋이 느껴진다.

- 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②-14. 필자가 한 행동 고르기

이 유형은 필자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으로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필자의 행동에 대해 질문한다. 이 유형은 필자가 한 행동이나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글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이나 말에 어울리는 적절한 행동을 고르는 형태로 출제된다.

듣기와 읽기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었으나 듣기에서는 ‘이어질 행동’으로 읽기에서는 ‘이미 한 행동’, ‘생각이나 말에 적절한 행동’으로 영역별로 국한돼 출제되고 있었다.

이어질 행동의 경우 마지막 사람의 지시나 조언 등을 통해 다음 행동을 추

측할 수 있지만 필자가 한 행동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행동은 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난이도 면에서 읽기의 유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한 행동 고르기 유형은 중급에서 출제되고 있었다⁶⁸⁾.

②-15~16. 앞에 올 내용 고르기, 이어질 내용 고르기

이 유형은 글의 앞과 뒤에 올 내용을 추론하는 것으로 글의 전체 내용, 세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유형은 앞뒤에 나올 내용을 암시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나올 이야기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첫 문장의 지시어나 핵심 어휘를 파악하는 능력이, 이어질 내용을 파악할 때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료137〉 앞에 올 내용 고르기의 예

※ 이 글의 앞에 있었을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찾아야 한다. 운동을 할 때는 부상을 당하지 않게 반드시 준비운동을 꼭 하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하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은 과식을 하지 않고 식단을 조절 하면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① 다이어트 열풍 이유

②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

③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④ 다이어트 부작용 증상

68) 이 유형은 1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출제된 문항에 오류가 있어 예로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138〉 이어질 내용 고르기의 예

※ 이 글의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한국 문화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의 문학 작품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한국어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꿈, 희망, 사랑, 감정이 스며 있는 설화를 통하여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학습 효과는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설화를 통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의의와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 설화를 통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교육적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① 설화를 통한 한국어 학습의 의의
- ②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차이점
- ③ 한국어 학습 시 설화 교육의 어려움
- ④ 교육에 사용할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

등급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두 유형 모두 중급부터 평가되고 있었으며 문항 수는 앞에 올 내용 고르기가 이어질 내용 고르기보다 약 5배 가량 많았다.

〈표116〉 앞과 뒤에 올 내용 고르기의 문항 수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총합
앞에 올 내용 고르기	·	5	4	9
이어질 내용 고르기	·	·	2	2

③ 평가적 이해

평가적 이해는 주어진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내용이 적절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평가 목표는 읽기 자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이나 필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평가적 이해에서는 필자의 기분이나 심정, 생각, 태도, 주장, 어투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유추하여 파악해야 한다. 읽기는 필자와 독자가 글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글의 밑바탕에 깔린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파악하는 것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필자가 어떠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그 글의 핵심 내용이나 표현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취도 읽기 평가에서 평가적 이해 능력은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었다. 필자의 기분이나 심정,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각각 37.5%, 31.2%로 출제 비율이 높았으며 필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항도 25% 출제되었다.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는 것은 1문항 6.3%에 그쳤다.

〈표117〉 평가적 이해 문항의 유형

문항 유형		문항	비율
1	필자의 기분/심정 고르기	6	37.5
2	필자의 생각 고르기	5	31.2
3	필자의 태도 고르기	4	25
4	필자의 주장 고르기	1	6.3
총합		16	100

평가적 이해 문항은 초급부터 출제되었으나 대부분의 기관⁶⁹⁾이 중급부터 관련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필자의 대한 심정, 생각, 태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초급과 중·고급을 나누는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표118〉 평가적 이해 문항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필자의 기분/심정 고르기	2	2	2	6
	필자의 생각 고르기	·	2	3	5
	필자의 태도 고르기	·	3	1	4
	필자의 주장 고르기	·	·	1	1
출제 비율		12.5	43.75	43.75	100

평가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4개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③-1. 필자의 기분/심정 고르기

이 유형은 필자의 기분이나 심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듣기의 경우 초급에서 화자의 기분만을 물었으나 읽기에서는 초·중·고급 전 단계에서 관련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기분과 함께 심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기분과 심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69) 사 기관은 초급부터 출제하고 있으나 다른 7개 기관은 중급부터 출제하고 있었다.

〈표119〉 어휘의 사전적 의미

어휘	의미
기분	대상, 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심정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사전적 의미와 한국어능력시험의 동일 유형을 참고하여 각각의 어휘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어휘 중에는 기분과 심정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많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표120〉은 질문을 기준으로 보기에 등장한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심정을 나타내는 어휘의 난이도가 기분의 어휘보다 높았다. 기분은 초급에서 감정은 중·고급에서 묻고 있는데 이는 어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20〉 기분과 심정을 나타내는 어휘

어휘	어휘
기분	좋다, 기쁘다, 즐겁다, 반갑다, 행복하다, 나쁘다, 두렵다, 무섭다, 화가 나다, 미안하다
심정	설레다, 안타깝다, 꽤썸하다, 답답하다, 허전하다, 허탈하다, 난처하다, 황당하다, 서먹하다, 안타깝다, 의심스럽다, 억울하다, 후련하다, 짜증나다, 속상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답답하다, 곤란하다, 민망하다, 번거롭다, 감격스럽다, 부담스럽다, 후회스럽다, 당황스럽다, 불만스럽다, 마음이 짝하다, 희열을 느끼다, 기대에 들뜨다, 가슴이 먹먹하다, 마음이 홀가분하다

필자의 기분이나 심정을 고르는 문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출

제되었다.

하나는 글에 대한 필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현의 일부에 밑줄을 긋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전체 글에 대한 필자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은 2급에서, 밑줄에 대한 필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3급부터 6급까지 평가되어 두 유형의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전자는 글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 필자의 기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때 중요 사건, 핵심 어휘, 필자 어투 등 필자의 감정을 파악할 여러 정보가 글 전반에 깔려 있다. 반면에 특정 표현에 밑줄을 그은 것은 표현의 1차적인 의미만으로는 필자의 감정을 알 수 없으며 중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밑줄의 표현이 쓰인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므로 더 많은 능력을 요한다. 즉, 밑줄에 대한 필자의 기분과 심정을 파악하는 문항이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139〉 필자의 기분 고르기의 예

※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016 년 12 월 25 일 (일)	날씨: 눈
오늘 로빈 씨와 약속이 있었다. 버스를 탔는데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었다. 집에 전화기를 놓고 나와서 로빈 씨에게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로빈 씨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화를 내서 나도 기분이 나빠졌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로빈 씨의 마음을 알 것 같다. 눈이 와서 많이 춥고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을 했을 것이다. 내일 로빈 씨를 만나면 꼭 사과를 해야겠다.	

- | | |
|--------|--------|
| ① 즐겁다 | ② 무섭다 |
| ③ 미안하다 | ④ 행복하다 |

다음의 〈자료140〉은 특정한 표현에 밑줄을 긋고 필자의 심정을 묻고 있다. 밑줄 그은 ‘눈물이 핑 돌았다’는 기쁘다, 슬프다, 서운하다, 감동적이다, 화가

나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밑줄의 표현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글에 전체 내용인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눈물이 났던 상황인 ‘딸의 출산을 기억한’ 부분을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사랑’으로 연결해야 필자의 정확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여러 단계의 이해 과정을 거쳐 필자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140〉 필자의 심정 고르기의 예

※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두 개를 들고 동네를 서성였다. 나는 다가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할머니는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라는 말을 앵무새 처럼 반복할 뿐 자신의 이름조차 몰랐다.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웃을 수소문했고 결국 6시간 만에야 병원에 있는 할머니의 딸을 찾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병원에 도착해 딸을 보자마자 끝까지 놓지 않던 보따리를 풀었다. 거기에는 하얀 쌀밥과 미역국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병으로 많은 기억을 잊어버렸지만 딸의 출산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모습에 눈물이 펴 돌았다. 차갑게 식은 밥과 미역국을 먹는 딸의 볼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① 희열을 느끼다

② 가슴이 먹먹하다

③ 기대에 들뜨다

④ 마음이 홀가분하다

위와 같이 필자의 감정을 묻는 유형은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통 서사적인 내용 전개가 있는 수필이나 소설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③-2. 필자의 생각 고르기

글쓴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듣기의 ③-3과 같은 유형이나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듣기는 글 전체

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질문하였으나 읽기는 특정한 어느 하나의 주제나 상황에 대해 물었다. 따라서 질문도 ‘결혼에 대한 필자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글쓴이의 철학에 대한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141〉 필자의 생각 고르기의 예

※ 결혼에 대한 ‘소녀 시대’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결혼 고민 Q&A〉 ID ‘여자 친구’: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세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남자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도 많아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남자 친구는 차분해서 제가 놓치는 것을 많이 챙겨주는 편이고요. 그런데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저보다 8살이나 많거든요. 나이 때문인지 가끔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까요?

ㄴ <Re> ID ‘소녀 시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된 주부예요. 저도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전 10살이나 나거든요. 저도 결혼 전에 나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남편과 내가 생활했던 시간이 달라 노래며 드라마며 공감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결혼을 결심했냐고요?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만나는 거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나와 같을 수는 없어요.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만나도 같은 문제일 테니까요. 저는 결혼 전에 나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남편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 비슷한 점을 무엇인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는 뭐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제일 가까운 제 친구인걸요.

- ① 나이 차이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 ②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 ③ 자란 환경이 다르면 가까워지기 어렵다.
- ④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3. 필자의 태도 고르기

이 유형은 화제나 대상에 대해 보이는 글쓴이의 태도를 찾는 것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요한다. 이 유형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설명문, 논설문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또 답은 동의, 비판 등의 어휘가 아닌 특정 화제나 대상을 태도의 표현과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글의 화제는 ‘법 시행’이고 필자가 걱정하는 대상은 ‘시행의 부작용’이다. 따라서 답을 화제, 대상, 필자의 태도를 결합하여 ‘법 시행의 부작용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로 제시하였다.

〈자료142〉 필자의 태도 고르기의 예

※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 삭제에 관한 법안 제정이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간 피해 사례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인지 찬성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이 법안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자. 삭제된 정보가 범죄자에 관한 것이라면 법 시행 결과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나쁜 기록을 삭제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도 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의도가 사회에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① 제정 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법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
- ③ 이 법이 실패했던 사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④ 법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이 유형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중급부터 출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를 정리하였다. 〈표121〉은 8개 기관의 문항과

체제 개편 이후의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을 분석하여 얻은 것이다.

〈표121〉 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

긍정적	부정적	기타
감싸다	경계하다	평가하다
편들다	회의적이다	요구하다
공감하다	고민하다	제안하다
인정하다	걱정하다	주장하다
감탄하다	염려하다	예측하다
동의하다	우려하다	가정하다
지지하다	지적하다	강조하다
지원하다	반대하다	
옹호하다	비판하다	

③-4. 필자의 주장 고르기

이 유형은 필자의 주장을 고르는 것으로 필자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에서 평가된다. 수험자는 논리적인 글 안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유형은 필자의 생각, 어투, 태도, 입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유형으로 고급에서 평가되고 있었다.

〈자료143〉 필자의 주장 고르기의 예

※ 필자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얼마 전 발표된 연령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50대가 60.3%, 40대가 47.9%, 30대가 35% 순으로 조사되었다. 20대는 22%에 그쳐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어떤 이유와 사정도 20대의 선거 무관심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 20대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없는 한 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내가 선거를 한들 얼마나 바뀌겠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선거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투표를 해야 사회가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생각을 나누고 전달하려는 노력이

- ① 투표율을 높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 ②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는 선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 ③ 정부와 국민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④ 투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나) 진위형

진위형은 전체 문항에서 0.5%, 선택형 문항에서 0.5%의 적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문항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문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해 실제로는 평가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진위형 문항은 사실적 이해를 측정하는 ①-1의 내용과 같은 것이나 다른 것 고르기와 같다. 그러나 제시하는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선다형은 제시된 보기 4개에서 답을 고르는 것이나 진위형은 하나의 보기를 제시하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한다. 즉, 이 둘은 동일한 평가 목적을 가진 다른 형태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진위형은 〈자료144〉와 같이 주어진 하나의 문장의 진위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사실적 이해 문항의 ①-1의 유형보다 난이도가 낮으며, 출제자 입장

에서도 하나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3개의 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출제의 부담이 적다.

〈자료144〉 진위형의 예

※ 다음을 읽고 내용과 같으면 ○, 틀리면 X 하십시오.

제 고향은 부산이에요. 부산은 서울에서 조금 멀어요. 그렇지만 바다가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사람들이 여행하러 많이 와요.

부산은 봄에 날씨가 따뜻해서 꽃이 일찍 피어요. 여름에는 날씨가 아주 덥지만 바다에서 수영하면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보다 바다에 더 많이 놀러 와요. 가을에는 날씨가 시원하고 산에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에 단풍 구경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산책도 자주 해요. 부산의 바다는 가을에도 정말 아름다워요. 겨울에는 눈이 별로 안 와요. 그렇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추워요.

1) 여름에는 바다보다 산에 사람이 더 많아요.

☐ ○

☐ X

2) 사계절 모두 사람들이 부산에서 많이 여행해요.

☐ ○

☐ X

(다) 배열형

배열형 문항은 글을 읽고 글의 순서에 따라 주어진 것을 배열하는 것이다. 이것은 ②-4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의 다른 형태이다. 글의 순서를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선다형이나 배열형이나를 나눌 수 있다. 선다형은 출제자가 글의 순서를 정해 보기로 제시하지만 배열형은 다음과 같이 수험자가 직접 글을 읽고 순서에 맞게 나열한다.

〈자료145〉 배열형의 예

※ 글을 읽고 김치 만드는 순서대로 맞게 쓰십시오.

1. 배추를 소금물에 넣고 20분쯤 기다립니다. 그 후에 배추에 소금을 뿌립니다.
2. 4시간쯤 지나면 배추를 씻습니다.
3. 무와 파를 가늘게 썰니다.
4. 무와 파에 마늘, 다진 생강, 새우젓, 고춧가루를 섞습니다.
5. 배추 사이사이에 5번의 재료를 넣습니다.
6. 2 ~ 3일 정도 기다린 후에 김치가 익으면 드십시오.



㉠



㉡



㉢



㉣



㉤



㉥

(㉠ ⇒ ⇒ ⇒ ⇒ ⇒ ㉥)

(라) 연결형

연결형은 선택형 1156문항 중 0.2%에 해당하는 2문항이 출제되었다. 기관별 연습 교재, 부교재, 활동지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결형의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3〉 교재의 연결형 연습 문항①⁷⁰⁾

연습 2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each picture with the correct word.

1) 

•

① 입

2) 

•

② 코

3) 

•

③ 눈

4) 

•

④ 귀

5) 

•

⑤ 목

(Note: In the original image, a dashed line connects picture 1 to word 3.)

70) 서울대 한국어 1A workbook.

〈그림4〉 교재의 연결형 연습 문항②⁷¹⁾

<연습해 보세요>

1. 맞는 것과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가: 어디에 가요?
나: 휴게실에 가요.
가: 휴게실에서 무엇을 해요?
나: 김밥을 먹어요.

	[보기]	휴게실			
			•		• 쇼핑을 하다
1)		강의실	•		• 김밥을 먹다
2)		공원	•		• 한국어를 배우다
3)		약국	•		• 산책을 하다
4)		백화점	•		• 운동하다
5)		운동장	•		• 일하다

〈그림5〉 교재의 연결형 연습 문항③⁷²⁾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1) 비가 오다	•		•	① 우산을 챙겨 왔다
(2) 시험을 못 보다	•		•	② 밤을 새워 공부했다
(3) 기차가 벌써 출발했다	•		•	③ 회식 때 술을 조금만 마셨다
(4) 상사들 앞에서 실수하다	•		•	④ 걱정을 하면서 기차역까지 뛰어 갔다

유형①은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에 맞는 어휘를 연결하도록 한 것이고 유형②는 어휘의 의미 및 사용과 문장 구성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연습이다. 마지막으로 유형③은 특정 연결 어미 사용을 연습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찾고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것

71) 세종대 한국어 1.

72) 이화 한국어 3-1 workbook.

이다. 이렇듯 연결형은 교재 및 부교재에서 다양한 연습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출제 비율이 매우 적었다.

읽기 평가에서 연결형은 다음과 같이 세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실적 이해 문항과 문맥을 파악해 알맞은 어휘 및 표현을 고르는 추론적 이해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다.

〈자료146〉 사실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연결형의 예

※ 다음을 읽고 가족의 직업을 연결하십시오.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십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다니십니다.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동생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후에 대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 | | | |
|-------|---|---------|
| ① 아버지 | • | • ㉠ 학생 |
| ② 어머니 | • | • ㉡ 회사원 |
| ③ 동생 | • | • ㉢ 선생님 |

〈자료147〉 추론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연결형의 예

※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연결하십시오.

- 주말은 (㉠) 집안일을 하면서 보낼 때가 많다.
- 이 빵은 빵집에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 만든 것이다.
- 나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 지갑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 찾았는데 지갑 안의 모든 것이 (㉣) 있었다.

- | | | |
|-----|---|-------|
| ① ㉠ | • | • 직집 |
| ② ㉡ | • | • 그대로 |
| ③ ㉢ | • | • 대체로 |
| ④ ㉣ | • | • 마침내 |

2) 서답형

읽기 평가에서 선택형과 서답형의 비율은 97.9 : 2.1이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8개 기관 중 3개 기관에서 서답형을 출제하고 있었으며 그 형태는 단답형과 완결형이었다. 단답형과 완결형의 비율은 96:4였다.

〈표122〉 읽기의 서답형 문항 형태

단위: 개(%)

문항 형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총합
단답형	.	13 (100)	10 (90.9)	.	.	.	1 (100)	.	24 (96)
완결형	.	.	1 (9.1)	.	.	.	.	.	1 (4)
논술형	.	.	.	.	.	.	.	.	.
총합	.	13 (100)	11 (100)	.	.	.	1 (100)	.	25 (100)

(가) 단답형

서답형의 96%가 단답형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단답형은 다음과 같이 초·중·고급 모두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초급에서 41.7%이던 비율은 고급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어휘·문법의 수가 많아 채점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123〉 단답형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

내용	초급	중급	고급	총합
문항 수	10	9	5	24
출제 비율	41.7	37.5	20.8	100

읽기의 단답형은 정답을 글 안에서 찾아 쓰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자료148>과 같이 답을 쓸 수 있는 밑줄이나 빈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마다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다양한 형태의 답이 나올 수 있다.

<자료148> 단답형의 예①

저는 두 달 전에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학교에서 일본,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미국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춤을 배웁니다.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갈 겁니다.

※ 이 사람은 왜 한국에 왔습니까?

위 문항의 답은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한국어를 배우러’이다. 이는 완성된 문장의 형태인 ‘한국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등으로 써도 된다. 그러나 핵심 어휘인 ‘한국어 공부’나 ‘한국어’만을 쓰거나 문법의 결합 없이 ‘한국어를 공부하다’ ‘한국어를 배우다’ 등의 답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답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글자 수를 제시하거나 답을 쓸 수 있는 원고지를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사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원고지를 제시하였다. 수험자는 주어진 답안지의 형식에 따라 제목은 4자로 써야 한다. 이는 단답형의 열린 답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자료149〉 단답형의 예②

〈 ㉠ 〉

사상 의학은 사람마다 기질과 성품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질병도 다르다는 이론이다. 조선 후기의 의학자 ‘이제마’는 사람을 네 가지로 체질로 나누어 그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확립하였다.

태양인은 대개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목덜미가 굽고 머리가 크다. 성격이 사교적 이어서 사람을 잘 사귄다. 음식은 자극성이 적고 담백하며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소양인은 양 체질이므로 가슴이 튼튼한 반면 허리 아래로는 약하다. 성격은 급하면서도 쾌활한 편이다. 소화기가 튼튼해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며 싱싱하고 찬 음식이나 채소류, 해물류가 좋다. 태음인은 허리 부위가 아주 건장 하고 튼튼하여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게 보이는 반면 목덜미 부위가 빈약해 보인다. 성격은 꾸준하고 침착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성취해 낸다.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방질이 많은 식품이나 자극성 있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해롭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하체에 비해 상체가 약한 편이다. 성격은 부드럽고 순하며 침착하다. 찬 음식이 맞지 않아서 찬 음식은 피해야 한다.

※ ㉠에 들어갈 제목을 쓰십시오.

--	--

--	--

(나) 완결형

완결형은 전체의 0.1%, 서답형 내에서는 4%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출제된 문항을 살펴보면 문장의 일부를 비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추론적 이해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는 ②-1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유형과 같다. 즉, 선다형을 서답형으로 바꾼 형태이다. 〈자료150〉에서 문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답형에 속한다.

〈자료150〉 완결형의 예

여행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 여행을 통해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일 똑같은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이나 먼 곳 어디를 가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여행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여행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 ㉠ 들어갈 관용 표현을 쓰십시오.

여행을 통해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와 같이 글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문항으로 제시한 것은 수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답의 범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V.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의 실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취도 평가 연구는 기관별로 상이한 목표와 문항의 비공개로 인한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요 대학의 목표 기술 시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의 기준을 참고하였다는 점, 기관에서 교사의 경험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통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기술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할 것이다. 또한 문항은 교육과 출제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만든 것으로 출제 이후 오랜 시간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인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으로 출제된 기관의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지필 평가 문항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먼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영역별 문항 유형을 정리하였다. 4장의 분석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 가능한 유형을 자세히 나누었다. 예를 들어 4장에서는 평가 목적이 같을 시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하였으나 5장에서는 같은 목적이더라도 ‘같다, 다르다’, ‘맞다, 틀리다’ 등의 어휘를 달리하여 묻는 경우 이를 각각의 유형으로 보았다. 또한 답의 범위를 좁혀 항목별 세분화, 내용별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다음은 그 유형이 어떠한 등급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것의 근거는 4장에서 분석한 각 유형의 등급별 출제 비율이다.

5.1. 어휘·문법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어휘·문법 평가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선택형은 선다형 형태로 어휘 5개, 문법 3개, 기타 6개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서답형은 완결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문법 영역에서 평가 가능한 유형을 정리하였다.

먼저 선택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결형은 분석 결과에는 없었으나 어휘와 문법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군과 답지군에서 관계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으로 구성은 그림, 어휘, 어구, 문장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때 문제군과 답지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어휘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어휘와 문법의 통합 평가가 될 수도 있다. <자료151>의 경우 어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사를 고르는 것으로 어휘의 기본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어휘 능력만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반면에 <자료152>는 문제군과 두 개의 답지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답지군에서는 조사를, 두 번째 답지군에서는 시제를 결합하여 묻고 있다. 따라서 이는 어휘와 문법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다. 또 문제군과 답지군을 모두 문장으로 구성하여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도 구성할 수 있다.

<자료151> 연결형의 예①

※ 알맞은 것을 연결하십시오.

- | | | |
|---------|---|---------|
| 1. 밥 | • | • ① 보다 |
| 2. 음료수 | • | • ② 먹다 |
| 3. 라디오 | • | • ③ 듣다 |
| 4. 텔레비전 | • | • ④ 마시다 |

<자료152> 연결형의 예②

※ 알맞은 것을 연결하십시오.

- | | | | |
|---------|---|-------|------------|
| 1. 밥 | • | • ① 을 | • ㉠ 먹습니다 |
| 2. 음료수 | • | • ② 를 | • ㉡ 들었습니다 |
| 3. 라디오 | • | | • ㉢ 보겠습니다 |
| 4. 텔레비전 | • | | • ㉣ 마실 겁니다 |

출제계획표 작성을 위한 연결형의 문항 유형, 내용, 평가 목표 및 출제 의

도 등을 정리하면 <표124>와 같다. 본 장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문항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정리하였다.

<표124> 연결형 유형의 세부 내용

평가 목표	출제 의도	문항 유형	내용
그림과 어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과 어휘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그림과 어휘 연결하기	문제군과 답지군의 그림과 어휘의 관계를 파악하여 연결한다.
어휘와 어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어휘와 어휘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어휘와 어휘 연결하기	문제군과 답지군의 어휘 관계를 파악하여 연결한다.
어휘와 문법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어휘와 문법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어휘와 문법 연결하기	문제군과 답지군의 어휘와 문법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장과 문장 연결하기	문제군과 답지군의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연결한다.

다음은 선다형 유형에 대한 것이다.

우선 분석과 달라진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에 같이 평가 목적이 같아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에 포함시켰던 내용을 세분화하였다. 또 ‘같다, 다르다’, ‘맞다, 틀리다’를 나눠 제시하였다.

어휘의 경우 어휘, 관용 표현, 속담으로 나누고 사자성어를 추가하였다. 사자성어는 고급에서 평가 항목으로 자주 등장한다. 4장에서도 듣기의 추론적 이해의 여러 유형에서 평가 항목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어휘에서도 이를 평가했다. 이에 사자성어를 평가 가능한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사자성어의 경우 고급에서 배워 학습 내용이 많지 않으며 난이도가 높아 ‘알맞은 것 고르기’로만 한정하였다.

문법의 경우 조사, 문법, 연결 어미로 나누었다. 또 다의어 고르기 유형에서 다의어와 동음어를 함께 평가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반영하여 다의어와 동음어의 평가를 나누었다.

다음으로 어휘와 문법 영역 중 교차가 가능한 유형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문법의 맞는 문장 고르기, 틀린 문장 고르기는 어휘 영역에서도 평가 가능하다. 문법의 경우 문장 내 조사, 문법, 연결 어미 등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고 어휘의 경우 <자료153>과 같이 문장 내 어휘의 사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153〉 틀린 문장 고르기의 예

※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십시오.

- ①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십니다.
- ② 동생의 나이는 스무 살입니다.
- ③ 어머니의 생신은 3월 26일입니다.
- ④ 친구의 맥은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시 평가 목적에 맞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었던 6개 유형은 어휘·문법 영역에서 삭제하였다. 6개 유형은 평가 목적에 맞게 쓰기 영역에 4개, 듣기와 읽기 영역에 각 1개씩을 이동 시켰다⁷³⁾.

이렇게 정리된 어휘·문법의 선다형 유형은 다음과 같이 28개이다. 함께 제시한 평가 내용을 통해 각 유형의 출제 방법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는 평가 내용의 뒷부분을 ‘~ 할 수 있다’로 출제 의도는 ‘~ 능력을 측정한다’로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73) 기타로 분류된 6개 유형의 영역 이동은 다음과 같다.

문항 유형	해당 영역
대화 완성하기	쓰기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	쓰기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	쓰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	쓰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쌍 고르기	듣기
속담의 의미 고르기	읽기

〈표125〉 어휘의 선다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그림을 보고 알맞은 어휘(명사, 동사, 형용사)를 고른다.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고른다.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고른다.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고른다.
문맥에 알맞지 않은 관용 표현 고르기	문맥에 알맞지 않은 관용 표현을 고른다.
문맥에 알맞은 속담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속담을 고른다.
문맥에 알맞지 않은 속담 고르기	문맥에 알맞지 않은 속담을 고른다.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를 고른다.
유의어 고르기	밑줄 친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고른다.
반의어 고르기	밑줄 친 것과 반대 의미를 가진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고른다.
다의어 고르기	제시한 2~3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명사, 동사, 형용사)를 고른다.
동음어 고르기	제시한 2~3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명사, 동사, 형용사)를 고른다.
맞는 문장 고르기	문장에서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의 사용이 맞는 것을 고른다.
틀린 문장 고르기	문장에서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의 사용이 잘못된 문장을 고른다.

〈표126〉 문법의 선다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문맥에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조사를 고른다.
문맥에 알맞지 않은 조사 고르기	문맥에 알맞지 않은 조사를 골라 고른다.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문법을 고른다.
문맥에 알맞지 않은 문법 고르기	문맥에 알맞지 않은 문법을 고른다.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를 고른다.
문맥에 알맞지 않은 연결 어미 고르기	문맥에 알맞지 않은 연결 어미를 고른다.
밑줄 친 조사의 의미와 같은 것 고르기	밑줄 친 조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고른다.
밑줄 친 조사의 의미와 다른 것 고르기	밑줄 친 조사와 다른 의미를 가진 조사를 고른다.
밑줄 친 문법의 의미와 같은 것 고르기	밑줄 친 문법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문법을 고른다.
밑줄 친 문법의 의미와 다른 것 고르기	밑줄 친 문법과 다른 의미를 가진 문법을 고른다.
밑줄 친 연결 어미의 의미와 같은 것 고르기	밑줄 친 연결 어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연결 어미를 고른다.
밑줄 친 연결 어미의 의미와 다른 것 고르기	밑줄 친 연결 어미와 다른 의미를 가진 연결 어미를 고른다.
맞는 문장 고르기	문장에서 조사, 연결 어미, 문법의 사용이 맞는 문장을 고른다.
틀린 문장 고르기	문장에서 조사, 연결 어미, 문법의 사용이 잘못된 문장을 고른다.

서답형은 선다형 유형에서 보기를 제외하고 수험자가 직접 답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28개 선다형 유형 중 서답형 유형으로 출제 가능한 것을 수정·보완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22개 유형이 나온다. 이것은 제시 방법에 따라 단답형과 완결형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 다음의 ‘평가 내용’은 단답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완결형의 경우 ‘쓴다’를 ‘써 문장을 완성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선다형 유형을 서답형으로 수정·보완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답형에서는 ‘다르다, 틀리다’ 등을 삭제하고 ‘같다, 맞다’만을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는 어휘와 문법의 올바른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잘못된 어휘나 문법 등을 사용해 수험자가 직접 글로 쓰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다른 것, 틀린 것’의 유형은 삭제하였다. 이것은 쓰기, 듣기, 읽기의 서답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것을 찾는 유형은 조사, 문법, 연결 어미 등으로 내용을 세분화하지 않았다. <자료154>와 같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조사, 문법, 연결 어미의 사용을 함께 묻는 것으로 이를 나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료154> 사용이 틀린 것을 고르고 맞게 고쳐 쓰기의 예

※ 틀린 것을 골라 번호를 쓰고 맞게 고쳐 쓰십시오.

민수 씨는 지난 주말에 서울에 가서 친구를 만날 겁니다.

①

②

③

④

새롭게 추가된 유형은 어휘의 ‘숫자를 한글로 쓰기’와 문법의 ‘불규칙 활용해 쓰기’이다. 숫자를 ‘한글로 쓰기’는 숫자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숫자만 제시하거나 숫자와 단위 명사를 함께 제시하여 읽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한다. 이 유형은 단답형에 속한다. ‘불규칙 활용해 쓰기’는 불규칙 동사와 형용사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바꿔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표155>와 같이 맥락 없이 불규칙 동사나 형용사를 연결 어

미나 문법과 제시해 평가할 수도 있고 <표156>과 같이 맥락을 제시하여 물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단답형, 후자의 경우 완결형에 속한다. 완결형의 경우 <자료156>과 같이 불규칙 동사나 형용사를 빈칸 아래에 제시할 수도 있다. <자료156>에서 1번 문항은 어휘 능력과 불규칙 활용 능력을 함께 평가하나 2번 문항은 어휘 능력을 배제하고 불규칙 활용 능력만을 평가한다. 즉,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유형을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155> 주어진 것과 결합하여 불규칙 활용해 쓰기의 예

※ 다음을 바꾸십시오.

출다 → ()아/어/여요.

<자료156> 맥락에 맞게 불규칙 활용해 쓰기의 예

※ 다음을 바꾸십시오.

1. 날씨가 ()아/어/여서 옷을 많이 입었어요.
2. 날씨가 ()아/어/여서 옷을 많이 입었어요.

출다

이렇게 정리된 어휘·문법의 서답형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기타에는 그 유형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표127〉 어휘·문법의 서답형 문항 유형

영역	문항 유형	내용	기타
어휘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그림을 보고 알맞은 어휘(명사, 동사, 형용사)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어휘 쓰기	문맥에 알맞은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쓰기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속담 쓰기	문맥에 알맞은 속담을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 쓰기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유의어 쓰기	밑줄 친 어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쓴다.	단답형
	반의어 쓰기	밑줄 친 어휘와 반대 의미를 가진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쓴다.	단답형
	다의어 쓰기	제시한 2~3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명사, 동사, 형용사)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동음어 쓰기	제시한 2~3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명사, 동사, 형용사)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어휘 찾아 맞게 고쳐 쓰기	문장에서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의 사용이 틀린 것을 수험자가 직접 찾아 맞게 고쳐 쓴다.	단답형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어휘의 번호를 고르고 맞게 고쳐 쓰기	문장의 밑줄 친 어휘(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중에서 사용이 틀린 것의 번호를 골라 맞게 고쳐 쓴다.	선다형 단답형
	숫자를 한글로 쓰기	제시한 숫자를 읽고 한글로 쓴다.	단답형

문법	문맥에 알맞은 조사 쓰기	문맥에 알맞은 조사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문법 쓰기	문맥에 알맞은 문법을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 쓰기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밑줄 친 조사의 의미와 같은 것 쓰기	밑줄 친 조사의 의미와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쓴다.	단답형, 완결형 74)
	밑줄 친 문법의 의미와 같은 것 쓰기	밑줄 친 문법의 의미와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쓴다.	단답형, 완결형
	밑줄 친 연결 어미의 의미와 같은 것 쓰기	밑줄 친 연결 어미의 의미와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것을 고르고 맞게 고쳐 쓰기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것(조사, 문법, 연결 어미)을 고르고 맞게 고쳐 쓴다.	단답형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것의 번호를 고르고 맞게 고쳐 쓰기	문장의 밑줄 친 것(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중에서 사용이 틀린 것의 번호를 골라 맞게 고쳐 쓴다.	선다형 단답형
	주어진 것과 결합하여 불규칙 활용해 쓰기	불규칙 동사나 형용사를 주어진 연결 어미나 문법과 결합하여 쓴다.	단답형
	맥락에 맞게 불규칙 활용해 쓰기	문장 안에서 불규칙 동사나 형용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쓴다.	완결형

〈표127〉을 살펴보면 기타에서 단답형과 완결형을 함께 제시한 유형이 많다. 이는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묻는 방법, 답을 쓰는 위치에 따라 다른 유

74) 밑줄 친 조사, 문법, 연결 어미와 같은 것 고르기를 서답형으로 바꿀 때는 <보기>를 제시한 선다형 완결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므로 답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형이 되기 때문이다. 단답형은 <자료157>과 같이 답을 쓸 수 있는 칸을 따로 제시하나 완결형은 <자료158>과 같이 문장의 여백에 직접 답을 쓰도록 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자료157>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의 예①

 이것은 ()입니다.
※ ()에 알맞은 어휘는 무엇입니까? _____

<자료158>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의 예②

※ 그림을 보고 ()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이것은 ()입니다.
--

지금까지 정리한 어휘·문법의 선택형 34개, 서답형 22개 유형이 어떠한 등급에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표128>, <표129>와 같다.

〈표128〉 어휘의 등급별 문항 유형

문항 형태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선택형	연결형	그림과 어휘 연결하기	○		
		어휘와 어휘 연결하기	○		
		어휘와 문법 연결하기	○		
		문장과 문장 연결하기	○		
	선다형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고르기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관용 표현 고르기		○	○
		문맥에 알맞은 속담 고르기			○
		문맥에 알맞지 않은 속담 고르기			○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 고르기			○
		유의어 고르기	○	○	○
		반의어 고르기	○	○	○
		다의어 고르기		○	○
		동음어 고르기			○
		맞는 문장 고르기	○	○	○
		틀린 문장 고르기	○	○	○
서답형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		
		문맥에 알맞은 어휘 쓰기	○	○	○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쓰기		○	○
		문맥에 알맞은 속담 쓰기			○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 쓰기			○
		유의어 쓰기	○	○	○
		반의어 쓰기	○	○	○
		다의어 쓰기		○	○
		동음어 쓰기			○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어휘를 찾아 맞게 고쳐 쓰기	○	○	○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어휘를 고르고 맞게 고쳐 쓰기	○	○	○
		숫자 한글로 쓰기	○		

〈표129〉 문법의 등급별 문항 유형

문항 형태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선택형	연결형	어휘와 문법 연결하기	○		
		문장과 문장 연결하기	○		
	선다형	문맥에 알맞은 조사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조사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문법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연결 어미 고르기	○	○	○
		밑줄 친 조사의 의미와 같은 것 고르기	○	○	○
		밑줄 친 조사의 의미와 다른 것 고르기	○	○	○
		밑줄 친 문법의 의미와 같은 것 고르기	○	○	○
		밑줄 친 문법의 의미와 다른 것 고르기	○	○	○
		밑줄 친 연결 어미의 의미와 같은 것 고르기	○	○	○
		밑줄 친 연결 어미의 의미와 다른 것 고르기	○	○	○
		맞는 문장 고르기	○	○	○
		틀린 문장 고르기	○	○	○
서답형		문맥에 알맞은 조사 쓰기	○	○	○
		문맥에 알맞은 문법 쓰기	○	○	○
		문맥에 알맞은 연결 어미 쓰기	○	○	○
		밑줄 친 조사의 의미와 같은 것 쓰기	○	○	○
		밑줄 친 문법의 의미와 같은 것 쓰기	○	○	○
		밑줄 친 연결 어미의 의미와 같은 것 쓰기	○	○	○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것을 찾아 맞게 고쳐 쓰기	○	○	○
		(문장에서) 사용이 틀린 것을 고르고 맞게 고쳐 쓰기	○	○	○
		주어진 것과 결합해 불규칙 활용해 쓰기	○		
		맥락에 맞게 불규칙 활용해 쓰기	○		

위의 유형으로 급별 평가 문항을 만들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두 영역의 출제 비율이다. 어휘와 문법은 하나의 시험지에서 함께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영역의 출제 비율의 지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의 영역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취도 평가는 초급 49:51, 중급 47:53, 고급 54:46로 숙달도 평가⁷⁵⁾는 초급과 중급이 50:50, 고급이 56:44로 나타나 초·중급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급에서는 두 평가 모두 어휘가 문법보다 8~12% 더 높았다. 이를 반영하여 어휘와 문법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면 ‘두 영역을 50:50의 비율로 출제하되 등급이 올라갈수록 어휘의 비중을 높인다.’이다.

〈표130〉 어휘·문법의 출제 비율

평가 종류	초급	중급	고급
성취도 평가	49:51	47:53	54:46
숙달도 평가	50:50	50:50	56:44
평균	49.5:50.5	48.5:51.5	55:45

정리하면 어휘와 문법을 분리 평가할 때는 하나의 시험지에서 평가하되 어느 하나의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50:50의 비중으로 출제한다. 그러나 등급이 올라갈수록 어휘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그 비중은 10%⁷⁶⁾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문항은 어떠한 형태로 평가할지를 결정하고 등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급은 44개, 중급은 38개, 고급은 45개 유형 안에서 선택해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75) 어휘·문법 영역이 시행되었던 33회 이전의 문항을 분석한 수치이다.

76) 〈표130〉에서 고급의 출제 비율의 평균은 55:45이다. 이것은 등급별 평균의 차이 중 가장 큰 것이다. 이에 10%라는 수치를 설정하였다.

5.2. 쓰기

쓰기는 글쓰기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어휘와 문법, 문장 구성, 단락 구성, 글 구성 능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서답형이 적절하나 선택형으로도 출제되고 있다.

선택형 중에서 출제 가능한 형태는 선다형이며 이러한 선다형은 쓰기의 간접 평가로서 본격적인 글쓰기의 전 단계로 활용된다. 이것은 글쓰기에 필요한 개별 능력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다.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구성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일정한 선택을 하게 하므로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쓰기 채점의 문제로 꼽는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결해 준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쓰기의 선택형은 선다형의 6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 내용을 세분화하여 17개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대화 완성하기 유형의 경우 4.2.2.2.에서 제시하였던 표77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질문 고르기, 대답 고르기, 질문의 표현 고르기, 대답의 표현 고르기 유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체제 개편 이전의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선다형 유형을 분석하여 평가 가능한 유형을 추가하였다. 5장의 목적이 교사들이 출제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기타 항목에는 각 유형이 어떠한 텍스트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77) 대화 완성하기 유형의 답 구성 방법



〈표131〉 쓰기 선다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질문 고르기	대답에 대한 질문을 고른다.	대화
대답 고르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른다.	대화
질문의 표현 고르기	대답에 대한 질문의 일부에 들어갈 표현을 고른다.	대화
대답의 표현 고르기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에 들어갈 표현을 고른다.	대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	제시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른다.	문장
문맥에서 관련 없는 문장 고르기	제시한 네 문장에서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른다.	글
문맥에서 잘못된 문장 고르기	제시한 네 문장에서 어휘나 문법의 사용이 잘못된 문장을 고른다.	글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	밑줄과 비슷한 표현을 고른다.	글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	문맥에 알맞은 표현을 고른다.	글
안내문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안내문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른다.	안내문
안내문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안내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른다.	안내문
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른다.	표
표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른다.	표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른다.	그래프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른다.	그래프
표와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표와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른다.	표, 그래프
표와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표와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른다.	표, 그래프

그러나 성태제(1996), 박영목(2008)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수험자의 쓰기 능력은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여 글을 쓰게 하여 얻은 결과라고 하였다. 직접 평가를 통한 쓰기 능력의 확인을 강조한 것이다. 앞에서 전술하였다시피 한국어능력시험도 체제 개편을 통해 선택형을 없애고 서답형 4문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석 시 세운 기준에 따라 내용을 세분화하여 서답형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 작문형 논술형은 문제 제시를 그림으로 하느냐 표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였다.

〈표132〉 쓰기의 서답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단 답 형	단답형		질문의 답을 어휘나 어절, 문장으로 쓴다.		문장
	선다형 단답형		질문의 답을 ①,②,③,④ 중에서 고르고 쓴다.		문장
완 결 형	선다형 완결형	옮겨 쓰기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그대로 옮겨 쓴다.		문장, 대화
		바꿔 쓰기	일부 쓰기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맥락에 맞게 빈칸에 바꿔 쓴다.	문장, 대화
			전체 쓰기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질문이나 대답에 맞게 문장을 만든다.	대화
	논술형 완결형	일부 쓰기	맥락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쓴다.		대화, 글
		전체 쓰기	질문이나 대답에 맞게 문장을 만든다.		대화, 글
	선다형 완결형 논술형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질문이나 대답에 알맞은 문장을 만든다.		대화

형	완결형 논술형	주어진 표현을 사용해 주제에 맞게 문장을 만든다.	어휘, 표현
	작문형 논술형	주어진 주제로 글을 쓴다.	문장
		주어진 글을 읽고 지시에 따라 글을 쓴다.	글
		그림을 보고 지시에 따라 글을 쓴다.	그림
		표를 보고 지시에 따라 글을 쓴다.	표
		그래프를 보고 지시에 따라 글을 쓴다.	그래프
		표와 그래프 보고 지시에 따라 글을 쓴다.	표, 그래프

〈표133〉은 이 유형이 어떠한 등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서답형은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명칭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큰 형태 안에 포함된 유형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명칭에서 ‘~쓰기’와 ‘~문장 만들기’는 글의 일부를 쓰느냐, 전체를 쓰느냐의 차이이다. 즉, ‘~쓰기’는 글의 일부를 쓰는 것을 의미하고 ‘~문장 만들기’는 글의 전체를 완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133〉 쓰기의 등급별 문항 유형

문항 형태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선택형	선다형	질문 고르기	○	○	○
		대답 고르기	○	○	○
		질문의 표현 고르기	○	○	○
		대답의 표현 고르기	○	○	○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 고르기	○		
		문맥에서 관련 없는 문장 고르기	○		
		문맥에서 잘못된 문장 고르기	○		
		밑줄과 비슷한 표현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	○	○	○
		안내문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	○
		안내문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	○
		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
		표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
		표와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표와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서답형	단답형	질문에 답 쓰기	○	○	○
		틀린 것을 고르고 맞게 고쳐 쓰기	○		
	완결형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옮겨 쓰기	○	○	
		알맞은 것을 골라 맥락에 맞게 바꿔 쓰기	○	○	○
		알맞은 것을 골라 맥락에 맞게 문장 만들기	○	○	○
		맥락에 맞게 쓰기	○	○	○
		맥락에 맞게 문장 만들기	○	○	○
	논술형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 만들기	○	○	○
		주어진 표현으로 주제에 맞는 문장 만들기	○	○	○
		주어진 주제로 글쓰기	○	○	○
		글을 읽고 지시에 따라 글쓰기		○	○
		그림을 보고 지시에 따라 글쓰기	○	○	○
		표를 보고 지시에 따라 글쓰기		○	○
		그래프를 보고 지시에 따라 글쓰기		○	○
		표와 그래프를 보고 지시에 따라 글쓰기		○	○

정리하면 쓰기 평가는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가 가능하며 직접 평가는 선

택형의 선다형으로 직접 평가는 서답형으로 할 수 있다. 간접 평가의 선다형은 17개의 유형이 있으며 이 중 11개는 초급에서 12개는 중급에서 14개는 고급에서 출제 가능하다.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는 서답형은 단답형과 완결형, 논술형이 있으며 단답형은 질문의 답을 직접 쓰느냐 〈보기〉에서 골라 바꿔 쓰느냐의 2개 유형으로, 완결형은 사용할 수 있는 어휘나 문법이 〈보기〉로 제시되느냐 이때 〈보기〉의 것을 그대로 옮겨 쓰느냐 바꿔 쓰느냐 또 이것으로 문장의 일부를 완성하느냐 전체를 완성하느냐에 따라 5개 유형으로 출제된다. 마지막으로 논술형은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및 문법이 〈보기〉로 주어지느냐 문제가 주제, 글, 그림, 표, 그래프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8개 유형으로 출제 가능하다. 이러한 서답형은 단답형과 논술형의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등급에 상관없이 전 영역에서 출제 가능하므로 등급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면 된다. 이때 난이도에 맞는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3. 듣기

성취도 듣기 평가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우선 선택형은 진위형, 배열형, 연결형, 선다형이 있다.

첫째, 진위형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문항 유형은 2개이다. 하나는 문장 옆에 ○, ×를 제시하여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 옆에 괄호를 두고 수험자가 직접 ○, ×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둘을 구분하여 연구자는 전자를 선택형 진위형으로 후자를 서답형 진위형이라고 칭하였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표134〉에서 유형과 평가 내용을 제시하여 유형별 평가의 목표 및 출제 의도 등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기타에는 쓰는 방식을 구분하여 유형의 명칭을 달리하여 넣었다.

〈표134〉 듣기의 진위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O, X 고르기	내용을 듣고 문장 옆에 있는 O, X에 표시한다.	선택형 진위형
O, X로 쓰기	내용을 듣고 문장 옆에 있는 괄호에 O, X를 쓴다.	서답형 진위형

둘째, 배열형은 내용을 듣고 질문에 맞게 제시된 어휘나 문장, 그림을 배열하는 것이다. 배열 방법은 부여된 숫자나 기호로 하는 것과 어휘나 문장을 수험자가 그대로 옮겨 써야 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구분하여 선택형 배열형과 서답형 배열형이라고 칭하였다.

〈표135〉는 배열형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기타에는 제시 방법과 배열 방법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순서대로 숫자나 기호로 쓰기’는 내용을 듣고 순서대로 그림을 배열하고 부여된 숫자나 기호로 답을 쓰는 것이다. 즉, 제시는 그림이며 배열은 선택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135〉 듣기의 배열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순서대로 숫자나 기호로 쓰기	내용을 듣고 순서대로 그림에 부여된 숫자나 기호를 배열한다.	그림, 선택형 진위형
순서대로 어휘나 문장 쓰기	내용을 듣고 순서대로 제시된 어휘나 문장을 배열한다.	어휘, 문장, 서답형 진위형

셋째, 연결형은 4장의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듣기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 이에 어휘·문법의 연결형 유형을 참고하여 듣기에서 가능한 유형을 정리하였다.

어휘·문법은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군과 답지군을 모두 그림으

로 구성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어휘나 문장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듣기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군과 답지군을 모두 그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문제군과 답지군을 그림으로 구성하여 묻는 ‘그림과 그림 연결하기’를 추가하였다. 또 기존의 ‘어휘와 문법 연결하기’는 듣기의 평가 목적에 맞게 ‘어휘와 표현 연결하기’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듣기의 연결형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이 5개이다.

〈표136〉 듣기의 연결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그림과 그림 연결하기	내용을 듣고 관계있는 그림과 그림을 연결한다.
그림과 어휘 연결하기	내용을 듣고 관계있는 그림과 어휘를 연결한다.
어휘와 어휘 연결하기	내용을 듣고 관계있는 어휘와 어휘를 연결한다.
어휘와 표현 연결하기	내용을 듣고 관계있는 어휘와 표현을 연결한다.
문장과 문장 연결하기	내용을 듣고 관계있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선다형의 26개 유형은 내용과 질문 등을 세분화하였다.

다른 유형의 경우 ‘같다, 다르다’, ‘맞다, 틀리다’를 나누었으나 내용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고르는 유형은 ‘다르다, 틀리다’ 등으로 나누지 않았다. 이 유형은 들은 내용을 시각 자료로 표현하는 것으로 반대 유형을 만들기가 어렵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1~2회 듣기를 통해 보기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관용 표현, 속담, 사자성어 등은 중급 이상 특히 고급에서 배우는 것이 많아 학습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같은 것 고르기’로만 평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유형은 ‘주제 고르기’와 ‘주장 고르기’이다. 또 어휘·문법에서 기타로 분류되었던 ‘잘못된 대화쌍 고르기’는 ‘잘못된 대화 고르기’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유형은 평가 내용과 함께 기타 항목을 두어 담화 유형을 제시하였

다. 담화의 구분은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와 혼자 이야기하는 독백으로 구분하였다. 독백의 사전적 의미는 ‘혼자서 중얼거림’,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이나 본 논문에서는 대화와 구분하여 혼자 말하는 것을 독백이라 정의하였다.

담화의 유형으로 제시한 대화와 독백의 등급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에서 제시할 대화, 독백은 등급별로 이와 같은 담화 종류로 출제될 수 있다.

〈표137〉 듣기의 담화 종류

등급	대화	독백
초급	개인적인 대화(일상생활), 사회적인 대화(소개, 주문, 이용, 문의, 요청 등)	안내, 광고, 보도(일기예보), 생활 정보 프로그램 등
중급	개인적인 대화(일상생활), 사회적인 대화(소개, 주문, 이용, 문의, 요청, 회의, 토의, 토론 등), 인터뷰	안내, 광고, 보도(일기예보, 뉴스, 사건, 사건 등), 생활정보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등
고급	사회적 대화(설명, 토의, 토론, 대답 등), 인터뷰	보도(뉴스, 사건, 사고, 사회 제도 등), 공식적인 독백(축사, 기념사 등), 교양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강연, 강의, 연설, 설교, 등

이렇게 정리된 듣기의 37개 선다형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138〉 듣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맞는 음운 고르기	음운을 듣고 같은 것을 고른다.	음운, 한 문장
맞는 어휘 고르기	어휘를 듣고 같은 것을 고른다.	어휘, 한 문장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내용을 듣고 같은 것을 고른다.	대화, 독백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내용을 듣고 다른 것을 고른다.	대화, 독백
정보 고르기	내용을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른다.	대화, 독백
소재/화제 고르기	내용을 듣고 화자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고른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고른다.	두 문장, 대화
의미가 비슷한 문장 고르기	내용을 듣고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른다.	한 문장
의미가 다른 문장 고르기	내용을 듣고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른다.	한 문장
자연스러운 대화 고르기	내용을 듣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고른다.	대화
잘못된 대화 고르기	내용을 듣고 잘못된 대화를 고른다.	대화
알맞은 대답 고르기	질문을 듣고 맞는 대답을 고른다.	대화
알맞지 않은 대답 고르기	질문을 듣고 알맞지 않은 대답을 고른다.	대화
장소 고르기	내용을 듣고 설명하는 장소를 고른다.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른다.	두 문장, 대화
내용과 같은 그림 고르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그림을 고른다.	대화, 독백
내용과 같은 도표 고르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도표를 고른다.	대화, 독백
내용과 같은 그래프 고르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그래프를 고른다.	대화, 독백
그림 보고 맞는 대화 고르기	내용을 듣고 제시한 그림과 관련 있는 대화를 고른다.	대화
대화 참여자 고르기	내용을 듣고 대화 참여자가 누구인지 고른다.	대화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고르기	내용을 듣고 대화 참여자의 관계를 고른다.	대화
대화의 종류 고르기	내용을 듣고 대화의 종류를 고른다.	대화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	내용을 듣고 예상되는 청자의 말을 고른다.	독백
이어질 말 고르기	내용을 듣고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할 말을 고른다.	대화
이어질 내용 고르기	내용을 듣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고른다.	독백
이어질 행동 고르기	내용을 듣고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른다.	대화
앞에 나올 내용 고르기	내용을 듣고 이야기의 앞에 나올 내용을 고른다.	독백
중심 생각 고르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의 중심 생각을 고른다. 내용을 듣고 화자의 중심 생각을 고른다.	대화, 독백
제목 고르기	내용을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른다.	독백
대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 고르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관용 표현을 고른다.	대화
대화와 관련된 속담 고르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속담을 고른다.	대화
대화와 관련된 사자성어 고르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사자성어를 고른다.	대화
주장의 근거 고르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이 주장을 위해 사용한 근거를 고른다. 내용을 듣고 화자가 주장을 위해 사용한 근거를 고른다.	대화, 독백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	내용을 듣고 화자가 말하는 목적을 고른다.	독백
주제 고르기	내용을 듣고 주제를 고른다.	독백
화자의 기분 고르기	내용을 듣고 화자의 기분을 고른다.	대화, 독백
화자의 태도 고르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의 태도를 고른다. 내용을 듣고 화자의 태도를 고른다.	대화, 독백
화자의 생각 고르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의 생각을 고른다. 내용을 듣고 화자의 생각을 고른다.	대화, 독백
화자의 주장 고르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의 주장을 고른다. 내용을 듣고 화자의 주장을 고른다.	대화, 독백

다음은 서답형 문항에 대한 것이다.

서답형은 평가 시 문항과 문항 사이의 시간을 고려하여 논술형을 제외한 단답형과 완결형 형태로 문항을 제작해야 한다. 단답형의 답은 어휘나 어절 단위로 하며 완성된 문장으로 써야 하는 경우 한 문장 내외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에서 제시한 선다형 유형 중 서답형으로 출제 가능한 것을 선별하였다. 선별한 문항은 서답형으로 바꾸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 듣고 주어진 그림, 표, 그래프를 고르는 유형은 서답형에서 여러 장의 그림을 제시하고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문항의 형태는 배열형에 가깝다. 따라서 이를 배열형에 포함시켜 선택형 배열형이라 불렀다.

〈표139〉 듣기의 서답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음운 받아쓰기	음운을 듣고 받아쓴다.	단답형
어휘 받아쓰기	어휘를 듣고 받아쓴다.	단답형
질문에 대한 정보 쓰기	내용을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쓴다.	단답형, 완결형
소재/화제 쓰기	내용을 듣고 화자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쓴다. 내용을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쓴다.	단답형, 완결형
대화 장소 쓰기	내용을 듣고 설명하는 장소를 쓴다. 내용을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대화 참여자 쓰기	내용을 듣고 대화 참여자가 누구인지 쓴다.	단답형, 완결형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쓰기	내용을 듣고 대화 참여자의 관계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대화의 종류 쓰기	내용을 듣고 대화의 종류를 쓴다.	단답형
예상되는 청자의 말 쓰기	내용을 듣고 예상되는 청자의 말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이어질 말 쓰기	내용을 듣고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할 말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이어질 내용 쓰기	내용을 듣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이어질 행동 쓰기	내용을 듣고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할 행동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앞에 올 내용 쓰기	내용을 듣고 앞에 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중심 생각 쓰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쓴다. 내용을 듣고 화자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제목 쓰기	내용을 듣고 제목을 쓴다.	단답형
대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 쓰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관용 표현을 쓴다.	단답형
대화와 관련한 속담 쓰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속담을 쓴다.	단답형
대화와 관련한 사자성어 쓰기	내용을 듣고 관련 있는 사자성어를 쓴다.	단답형
주장의 근거 쓰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이 주장을 위해 사용한 근거를 쓴다. 내용을 듣고 화자가 주장을 위해 사용한 근거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말하기의 목적 쓰기	내용을 듣고 화자가 말하는 목적을 쓴다.	단답형
주제 쓰기	내용을 듣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화자의 기분 쓰기	내용을 듣고 화자의 기분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화자의 태도 쓰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쓴다. 내용을 듣고 화자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화자의 생각 쓰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쓴다. 내용을 듣고 화자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화자의 주장 쓰기	내용을 듣고 특정 인물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쓴다. 내용을 듣고 화자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이렇게 정리된 46개의 선택형과 25개의 서답형 유형은 모든 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가 목표 및 내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140>은 각 유형이 어떠한 등급에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140〉 듣기의 등급별 문항 유형

행동 영역	문항 형태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사실적 이해	선택형	진위형	○, X 고르기	○	○	○
			○, X로 쓰기	○	○	○
		연결형	그림과 그림 연결하기	○		
			그림과 어휘 연결하기	○		
			어휘와 어휘 연결하기	○		
			어휘와 표현 연결하기	○		
			문장과 문장 연결하기	○		
		선다형	맞는 음운 고르기	○		
			맞는 어휘 고르기	○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	○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	○
			정보 고르기	○	○	○
			소재/화제 고르기	○	○	
			의미가 비슷한 문장 고르기	○	○	
			의미가 다른 문장 고르기	○	○	
			자연스러운 대화 고르기			○
			잘못된 대화 고르기			○
		서답형	음운 받아쓰기	○		
			어휘 받아쓰기	○		
			질문에 대한 정보 쓰기	○	○	○
			소재/화제 쓰기	○		
추론적 이해	선택형	배열형	순서대로 숫자나 기호로 쓰기	○	○	○
			순서대로 어휘나 문장 쓰기	○	○	○
		선다형	알맞은 대답 고르기	○	○	○
			알맞지 않은 대답 고르기	○	○	○
			장소 고르기	○		
			내용과 같은 그림 고르기	○	○	○
			내용과 같은 도표 고르기		○	○
			내용과 같은 그래프 고르기		○	○

			그림 보고 맞는 대화 고르기		○	○
			대화 참여자 고르기		○	○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고르기		○	○
			대화의 종류 고르기		○	○
			예상되는 청자의 말 고르기			○
			이어질 말 고르기	○	○	○
			이어질 내용 고르기		○	○
			이어질 행동 고르기	○	○	○
			앞에 올 내용 고르기			○
			중심 생각 고르기		○	○
			제목 고르기		○	○
			대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 고르기		○	○
			대화와 관련된 속담 고르기			○
			대화와 관련된 사자성어 고르기			○
			주장의 근거 고르기		○	○
			말하기의 목적 고르기		○	○
			주제 고르기			○
	서답형		대화 장소 쓰기	○		
			대화 참여자 쓰기		○	○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쓰기		○	○
			대화의 종류 쓰기		○	○
			예상되는 청자의 말 쓰기			○
			이어질 말 쓰기	○	○	○
			이어질 내용 쓰기			○
			이어질 행동 쓰기	○	○	○
			앞에 올 내용 쓰기		○	○
			중심 생각 쓰기		○	○
			제목 쓰기		○	○
			대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 쓰기		○	○
			대화와 관련한 속담 쓰기			○
			대화와 관련한 사자성어 쓰기			○

평가적 이해		주장의 근거 쓰기		○	○
		말하기의 목적 쓰기		○	○
		주제 쓰기			○
	선다형	화자의 기분 고르기	○		
		화자의 태도 고르기		○	○
		화자의 생각 고르기		○	○
		화자의 주장 고르기		○	○
	서답형	화자의 기분 쓰기	○		
		화자의 태도 쓰기		○	○
		화자의 생각 쓰기		○	○
		화자의 주장 쓰기		○	○

4장에서는 문항을 듣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분하여 그 하위에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등급별로 출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등급별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출제 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장에서 추론적 이해 문항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체 지침을 제시하였다.

〈표141〉 성취도와 숙달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평가 종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성취도 평가	610문항 (52.7%)	446문항 (38.6%)	101문항 (8.7%)	1157문항 (100%)
숙달도 평가	44문항 (55%)	31문항 (38.7%)	5문항 (6.3%)	80문항 (100%)
평균	53.85%	38.65%	7.5%	100%

이러한 전체 지침과 함께 초·중·고급의 등급별 세부 지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4장의 분석 결과와 숙달도 평가의 문항 분석을 통해 등급별 출제 비율을 알아보았다. 숙달도 평가는 초급의 TOPIK I 과 중·고급의 TOPIK II 의 1회분을 분석하였으며 TOPIK II 의 경우 문항의 난이도를 분석하여 중급과 고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의 비율을 정리하였다.

〈표142〉 성취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등급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초급	333문항 (72.4%)	126문항 (27.4%)	1문항 (0.2%)
중급	135문항 (36.9%)	196문항 (53.5%)	35문항 (9.6%)
고급	142문항 (42.9%)	124문항 (37.5%)	65문항 (19.6%)

〈표143〉 숙달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등급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초급	24문항 (80%)	6문항 (20%)	.
중급	8문항 (32%)	17문항 (72%)	.
고급	12문항 (48%)	8문항 (32%)	5문항 (20%)

이 두 자료를 합산하여 평균치를 계산하여 〈표144〉와 같이 성취도 듣기 평가의 등급별 출제 비율을 산출해 내었다. 초급과 중급에서 평가적 이해 문항을 평균 2.5%의 비율로 출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숙달도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였다. 이것은 평가 내용, 범위, 해당 학기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하며 그 범위는 5% 내외로 한다. 등급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전체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인 5%를 허용 범위로 정한 것이다.

〈표144〉 성취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지침

등급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초급	76.2	23.7	0.1	100
중급	34.5	62.2	4.8	100
고급	45.5	34.7	19.8	100

듣기의 문항을 출제할 때는 위에서 정리한 선택형 46개, 서답형 25개 총 71개의 유형을 초급, 중급, 고급의 평가 목적에 맞게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문항의 출제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전체 및 등급별 출제 비율의 변동은 5% 내외로 해야 한다.

5.4. 읽기

읽기는 지필 평가 영역 중 가장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었다. 선택형과 서답형 형태 중 논술형을 제외한 7개 형태로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읽기를 통해 다양한 언어 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읽기 평가의 실재를 위해 분석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문항 유형을 정리하였다.

읽기의 진위형과 배열형은 듣기의 유형과 동일하였다.

〈표145〉와 〈표146〉은 진위형과 배열형 유형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타 항목에서는 진위형은 제시 방법을, 배열형은 제시 자료와 배열 방법을 각각 제시하였다.

〈표145〉 읽기의 진위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O, X 고르기	내용을 읽고 문장 옆에 있는 O, X에 표시한다.	선택형 진위형
O, X로 쓰기	내용을 읽고 문장 옆에 있는 괄호에 O, X를 쓴다.	서답형 진위형

〈표146〉 읽기의 배열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순서대로 숫자나 기호로 쓰기	내용을 읽고 순서대로 그림에 부여된 숫자나 기호를 배열한다.	그림 선택형 진위형
순서대로 어휘나 문장 쓰기	내용을 읽고 순서대로 제시된 어휘나 문장을 배열한다.	어휘, 문장 서답형 진위형

읽기의 연결형은 ‘어휘와 어휘 연결하기’, ‘빈칸에 들어갈 어휘 연결하기’로 출제되고 있었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 연결하기’의 경우 읽기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유형으로 텍스트의 일부를 비워 놓고 문장 내,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듣기 유형을 참고하여 읽기에서 평가 가능한 연결형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6개로 나타난다.

〈표147〉 읽기의 연결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그림과 그림 연결하기	내용을 읽고 관계있는 그림과 그림을 연결한다.
그림과 어휘 연결하기	내용을 읽고 관계있는 그림과 어휘를 연결한다.
어휘와 어휘 연결하기	내용을 읽고 관계있는 어휘와 어휘를 연결한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 연결하기	내용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연결한다.
어휘와 표현 연결하기	내용을 읽고 관계있는 어휘와 표현을 연결한다.
문장과 문장 연결하기	내용을 듣고 관계있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선다형 유형은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세분화하였다. 읽기의 경우 글을 읽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듣기보다 내용을 더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자료를 고르는 유형의 경우 듣기에서는 1~2회 듣기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어려워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로만 평가하였다. 그러나 읽기에서는 같거나 다른 것을 모두 평가할 수 있다. ‘문맥에 알맞은 것 고르기’, ‘필자의 행동 고르기’ 등의 유형도 세분화되었다. 또 ‘필자의 기분이나 심정 고르기’는 등급을 고려하여 ‘필자의 기분 고르기’와 ‘필자의 심정 고르기’로 나누었다. 기분은 초급에서 핵심 어휘, 어투 등을 통해 파악하는 문항으로, 심정은 중·고급에서 특정 표현의 의미를 글의 전체 분위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관용 표현, 속담, 사자성어는 듣기와 마찬가지로 학습 단계, 학습량을 고려하여 반대 유형을 두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휘·문법에서 잘못 평가되고 있었던 ‘속담의 의미 고르기’는 ‘밑줄의 속담의 의미 고르기’에 포함 시켰다.

이렇게 정리된 유형은 〈표149〉에서 세부 내용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기타

항목을 두어 각 유형이 어떠한 텍스트에서 평가 가능한지 정리하였다. 텍스트 유형은 속달도 평가의 문항을 분석하여 정보의 글, 감정의 글, 친교의 글, 비판 및 평가의 글로 나누었다. 같은 목적을 가진 글이라도 등급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므로 다음의 텍스트 유형에서 제시한 목적별, 등급별 세부 내용을 출제 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표148〉 읽기의 텍스트 유형

등급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초급	광고, 안내문, 설명문(요리법, 사용 및 제품 등), 짧은 서술문	수필(일상생활)	생활문(메모, 읽기, 초대 등) 매체 담화	
중급	광고, 안내문, 설명문(요리법, 사용 및 제품, 해설 등), 짧은 서술문, 도표, 그래프, 신문 기사(생활)	수필(특별한 경험), 감상문	생활문, 매체 담화	논설문
고급	광고, 설명문(상식), 신문 기사 (사회, 정치, 문화, 과학, 환경 등)	감상문, 시, 소설	매체 담화, 공식적 독백 (축사, 기념사 등)	논설문, 평론, 투고문, 계획서, 연설문, 보고서

이렇게 정리된 읽기의 선다형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149〉 읽기의 선다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글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글을 읽고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정보 고르기	글을 읽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	기사 제목을 읽고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른다.	정보
알맞은 그림 고르기	글을 읽고 관계있는 그림을 고른다.	정보
알맞지 않은 그림 고르기	글을 읽고 관계없는 그림을 고른다.	정보
알맞은 도표 고르기	글을 읽고 관계있는 도표를 고른다.	정보
알맞지 않은 도표 고르기	글을 읽고 관계없는 도표를 고른다.	정보
알맞은 그래프 고르기	글을 읽고 관계있는 그래프를 고른다.	정보
알맞지 않은 그래프 고르기	글을 읽고 관계없는 그래프를 고른다.	정보
그림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그림을 보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른다.	정보
그림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그림을 보고 내용과 다른 것 고른다.	정보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도표를 보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른다.	정보
도표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도표를 보고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른다.	정보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그래프를 보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른다.	정보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그래프를 보고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른다.	정보
지시어 내용 고르기	글을 읽고 지시어의 내용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지시어의 내용이 아닌 것 고르기	글을 읽고 지시어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소재/화제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고른다.	정보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문맥에 알맞지 않은 접속사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지 않은 접속사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표현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문맥에 알맞지 않은 표현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지 않은 표현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문맥에 알맞은 속담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속담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 고르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 친 어휘의 의미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 친 문장의 의미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 친 문장의 의미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 친 속담의 의미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 친 속담의 의미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 친 사자성어의 의미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 친 사자성어의 의미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어휘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어휘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없는 어휘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없는 어휘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접속사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접속사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없는 접속사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없는 접속사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표현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표현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없는 표현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없는 표현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관용 표현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속담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속담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사자성어 고르기	글을 읽고 밑줄과 바뀐 쓸 수 있는 사자성어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	글을 읽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른다.	정보, 감정, 비판, 평가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	글을 읽고 제시한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의 중심 생각을 고른다. 글을 읽고 필자의 중심 생각이 담긴 문장을 고른다.	감정, 친교, 비판, 평가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	네 문장으로 구성된 글을 읽고 글 안에서 주제문을 고른다.	정보, 비판, 평가
요약 문장 고르기	글을 읽고 요약 문장을 고른다.	정보, 비판, 평가
제목 고르기	글을 읽고 제목을 고른다.	정보, 비판, 평가
글을 쓴 목적 고르기	글을 읽고 글을 쓴 목적을 고른다.	정보, 친교, 비판, 평가
글의 종류 고르기	글을 읽고 글의 종류를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주장의 근거 고르기	글을 읽고 주장의 근거를 고른다.	비판, 평가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	글을 읽고 글의 전개 방법을 고른다.	정보, 감정, 친교, 비판, 평가
앞에 올 내용 고르기	글을 읽고 앞에 올 내용을 고른다.	정보, 감정, 비판, 평가
이어질 내용 고르기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고른다.	정보, 감정, 비판, 평가
필자가 한 행동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가 한 행동을 고른다.	감정, 친교, 비판, 평가
필자가 할 행동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가 할 행동을 고른다.	감정, 친교, 비판, 평가
필자의 기분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의 기분을 고른다.	감정, 친교
필자의 심정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을 고른다.	감정, 친교
필자의 생각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의 생각을 고른다.	감정, 비판, 평가

필자의 태도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의 태도를 고른다.	비판, 평가
필자의 주장 고르기	글을 읽고 필자의 주장을 고른다.	비판, 평가

서답형은 위에서 정리한 61개의 선다형 유형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읽기의 서답형은 1문장 내외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답을 길게 작성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의 서답형은 단답형과 완결형 형태로 구성된다. 쓰기 분석 시 논술형은 2문장 이상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논술형은 읽기의 서답형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읽기의 서답형 역시 듣기보다 평가할 수 있는 유형이 많았다. 듣기는 1~2회의 듣기를 통해 답을 써야 하므로 수험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그러나 읽기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선다형에서 평가 가능한 유형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 결과 61개의 선다형 유형 중 31개의 유형이 서답형으로 출제가 가능하였다.

〈표150〉 읽기 서답형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용	기타
정보 찾아 쓰기	글을 읽고 질문에 맞는 정보를 찾아 쓴다.	단답형, 완결형
기사 제목에 대한 설명 쓰기	지사 제목을 읽고 설명을 쓴다.	단답형, 완결형
소재/화제 쓰기	글을 읽고 소재나 화제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어휘 쓰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 쓰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표현 쓰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표현을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쓰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속담 쓰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속담을 쓴다.	단답형, 완결형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 쓰기	글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쓰기	글을 읽고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밑줄 친 문장의 의미 쓰기	글을 읽고 밑줄 친 문장의 의미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 쓰기	글을 읽고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밑줄 친 속담의 의미 쓰기	글을 읽고 밑줄 친 속담의 의미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밑줄 친 사자성어의 의미 쓰기	글을 읽고 밑줄 친 사자성어의 의미를 쓴다.	단답형, 완결형
중심 생각/문장 쓰기	글을 읽고 필자의 중심 생각이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글에서 주제문 골라 쓰기	네 문장으로 구성된 글을 읽고 글 안에서 주제문을 골라 쓴다.	단답형
요약 문장 쓰기	글을 읽고 요약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제목 쓰기	글을 읽고 제목을 쓴다.	단답형
글을 쓴 목적 쓰기	글을 읽고 글을 쓴 목적을 쓴다.	단답형
글의 종류 쓰기	글을 읽고 글의 종류를 쓴다.	단답형
주장의 근거 쓰기	글을 읽고 주장의 근거를 쓴다.	단답형
글의 전개 방법 쓰기	글을 읽고 글의 전개 방법을 쓴다.	단답형
앞에 올 내용 쓰기	글을 읽고 앞에 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이어질 내용 쓰기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필자가 한 행동 쓰기	글을 읽고 필자가 한 행동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필자가 할 행동 쓰기	글을 읽고 필자가 할 행동을 한 문장으로 쓴다.	단답형
필자의 기분 쓰기	글을 읽고 필자의 기분을 쓴다.	단답형
필자의 심정 쓰기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을 쓴다.	단답형
필자의 생각 쓰기	글을 읽고 필자의 생각을 쓴다.	단답형
필자의 태도 쓰기	글을 읽고 필자의 태도를 쓴다.	단답형
필자의 주장 쓰기	글을 읽고 필자의 주장을 쓴다.	단답형

지금까지 살펴본 읽기의 선택형과 서답형의 급별 출제 활용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51〉 읽기의 등급별 문항 유형

행동 영역	문항 형태		문항 유형	초급	중급	고급
사실적 이해	선택형	진위형	O, X로 쓰기	○	○	○
			O, X 고르기	○	○	○
		연결형	그림 연결하기	○		
			그림과 어휘 연결하기	○		
			어휘 연결하기	○		
			어휘와 표현 연결하기	○		
			문장 연결하기	○		
			선다형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	○
		정보 고르기		○	○	○
		기사 제목 설명 고르기			○	○
		알맞은 그림 고르기		○	○	○
		알맞지 않은 그림 고르기		○	○	○
		알맞은 도표 고르기			○	○
		알맞지 않은 도표 고르기			○	○
		알맞은 그래프 고르기				○
		알맞지 않은 그래프 고르기				○
		그림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	○
		그림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	○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
		도표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기				○
		지시어 내용 고르기		○	○	○
		지시어의 내용이 아닌 것 고르기		○	○	○
		소재/화제 고르기		○		
		서답형		정보 찾아 쓰기	○	○
			기사 제목에 대한 설명 쓰기		○	○
			소재/화제 쓰기	○		

추론적 이해	선택형	배열형	순서대로 어휘나 문장 쓰기	○	○	○
			순서대로 기호나 번호 쓰기	○	○	○
		연결형	빈칸에 들어갈 어휘 연결하기	○	○	○
		선다형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접속사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지 않은 표현 고르기	○	○	○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고르기		○	○
			문맥에 알맞은 속담 고르기			○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 고르기			○
			밑줄 친 어휘의 의미 고르기	○	○	○
			밑줄 친 문장의 의미 고르기	○	○	○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 고르기		○	○
			밑줄 친 속담의 의미 고르기			○
			밑줄 친 사자성어의 의미 고르기			○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고르기	○	○	○
			밑줄과 바꿔 쓸 수 없는 어휘 고르기	○	○	○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접속사 고르기	○	○	○
			밑줄과 바꿔 쓸 수 없는 접속사 고르기	○	○	○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고르기	○	○	○
			밑줄과 바꿔 쓸 수 없는 표현 고르기	○	○	○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 고르기		○	○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속담 고르기			○

			밑줄과 바뀔 쓸 수 있는 사자성어 고르기			○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고르기	○	○	○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	○	○	○
			중심 생각/문장 고르기	○	○	○
			글에서 주제문 고르기			○
			요약 문장 고르기			○
			제목 고르기		○	○
			글을 쓴 목적 고르기		○	○
			글의 종류 고르기	○	○	○
			주장의 근거 고르기		○	○
			글의 전개 방법 고르기			○
			앞에 올 내용 고르기		○	○
			이어질 내용 고르기		○	○
			필자가 한 행동 고르기		○	○
			필자가 할 행동 고르기		○	○
	서답형		문맥에 알맞은 어휘 쓰기	○	○	○
			문맥에 알맞은 접속사 쓰기	○	○	○
			문맥에 알맞은 표현 쓰기	○	○	○
			문맥에 알맞은 관용 표현 쓰기		○	○
			문맥에 알맞은 속담 쓰기			○
			문맥에 알맞은 사자성어 쓰기			○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쓰기	○	○	○
			밑줄 친 문장의 의미 쓰기	○	○	○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 쓰기		○	○
			밑줄 친 속담의 의미 쓰기			○
			밑줄 친 사자성어의 의미 쓰기			○
			중심 생각/문장 쓰기	○	○	○
			글에서 주제문 골라 쓰기			○
			요약 문장 쓰기			○
			제목 쓰기		○	○

			글을 쓴 목적 쓰기		○	○
			글의 종류 쓰기	○	○	○
			주장의 근거 쓰기		○	○
			글의 전개 방법 쓰기			○
			앞에 올 내용 쓰기		○	○
			이어질 내용 쓰기		○	○
			필자가 한 행동 쓰기		○	○
			필자가 할 행동 쓰기		○	○
평가적 이해	선택형	선다형	필자의 기분 고르기	○		
			필자의 심정 고르기		○	○
			필자의 생각 고르기		○	○
			필자의 태도 고르기		○	○
			필자의 주장 고르기			○
		서답형	필자의 기분 쓰기	○		
			필자의 심정 쓰기		○	○
			필자의 생각 쓰기		○	○
			필자의 태도 쓰기		○	○
			필자의 주장 쓰기			○

위 내용은 문항 분석 시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나누었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기준으로 선택형과 서답형을 정리한 것이다.

출제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체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의 행동 영역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사실적 이해 53.7%, 추론적 이해 42.8%, 평가적 이해 3.5%의 출제 비율이 산출되었다.

〈표152〉 성취도와 숙달도 읽기 평가의 출제 비율

평가 종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성취도 평가	547문항 (49.6%)	538문항 (48.9%)	16문항 (1.5%)	1101문항 (100%)
숙달도 평가	52문항 (57.8%)	33문항 (36.7%)	5문항 (5.5%)	90문항 (100%)
출제 비율 제시	53.7%	42.8%	3.5%	100%

이와 함께 등급별 출제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표153〉은 전체 지침의 내용을 등급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성취도 평가는 8개 기관의 선다형 1101문항을, 숙달도 평가는 체제 개편 이후 공개된 1회분의 문항을 급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153〉 성취도 읽기 평가 출제 비율

등급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초급	226문항 (62.9%)	131문항 (36.5%)	2문항 (0.6%)	359문항 (100%)
중급	177문항 (47.8)	186문항 (50.3%)	7문항 (1.9%)	370문항 (100%)
고급	144문항 (38.7%)	221문항 (59.4%)	7문항 (1.9%)	372문항 (100%)

〈표154〉 숙달도 읽기 평가 출제 비율

등급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초급	32문항 (80%)	8문항 (20%)	.	40문항 (100%)
중급	12문항 (57.1%)	9문항 (42.9)	.	21문항 (100%)
고급	8문항 (27.6%)	16문항 (55.2%)	5문항 (17.2%)	29문항 (100%)

두 결과를 통합하여 성취도 평가의 등급별 출제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55〉 성취도 읽기 평가의 출제 비율 지침

등급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초급	71.4	28.3	0.3	100
중급	52.5	46.6	0.9	100
고급	33.2	57.3	9.5	100

정리하면 읽기 평가는 초·중·고급의 전체 문항을 사실적 이해 53.7%, 추론적 이해 42.8%, 평가적 이해 3.5% 비율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초급에서는 사실적 이해를 가장 많이 출제하고 중급에서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비슷한 비율로 출제하되 사실적 이해의 비중을 높게 해야 한다. 고급에서는 추론적 이해의 문항을 50% 이상으로 하며 약 10%의 문항을 평가적 이해 문항으로 출제해야 한다. 이것은 위에서 정리한 선택형의 71개, 서답형 31개 유형을 참고하여 등급에 맞는 것을 선별해 사용해야 한다. 이때 난이도에 맞는 텍스트의 유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도 평가’ 중 ‘지필 평가’의 ‘문항’에 대한 것이다. 지필 평가 영역에는 무엇이 있고 영역별로 어떠한 유형이 출제되며 그 유형이 등급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성취도 평가 연구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기관별로 상이(相異)한 교육 목표와 관련 자료의 부족을 본 연구에서는 숙달도 평가의 등급별 평가 기준과 교사의 교육 및 출제의 경험으로 제작된 문항의 분석 결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주요 대학이 기관의 목표 기술 시 숙달도 평가의 기준을 참고하였다는 점, 기관에서 교사의 경험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건으로 인정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기관의 지필 평가 문항은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오랜 시간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관은 교류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 교재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교육 경력이 충분한가? 등급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일 급이 여럿 있어 교사들 간의 의견 교류가 가능한가? 등을 고려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부설 기관으로 자체 교재를 제작하여 10년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은 1급부터 6급까지의 수업이 모두 진행되고 있었으며 한 개 급이 최소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으로 교육 기관을 선정한 것은 본 연구가 문항 분석을 통한 성취도 지필 평가 문항의 실재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취도 평가는 현실적인 이유로 문항 공개가 어려워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의 문항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때 선정된 기관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인 경우 결과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줄이더라도 위와 같이 5개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8개 기관의 6등급 문항을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영역별, 등급별 평가 유형 및 평가 지침을 제시하였다.

어휘와 문법은 하나의 시험지에서 평가한다. 하나의 시험지 안에서 각각 50:50의 비율로 출제하되 등급이 올라갈수록 어휘의 비중을 높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10%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여 선택형의 연결형 6개, 선다형 28개와 서답형의 22개 유형으로 출제한다. 단 이 유형은 영역과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쓰기는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가 가능하다. 간접 평가는 선택형으로 직접 평가는 서답형으로 평가된다. 선택형은 선다형의 17개 유형으로 출제되며 서답형은 단답형, 완결형,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이때 서답형은 〈보기〉의 유무, 답안 작성 방법에 따라 〈표156〉과 같이 10개 유형으로 나뉜다. 또 이것은 제시 방법에 따라 1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156〉 쓰기의 서답형 세부 유형

형태	세부 유형		
단답형	단답형		
	선다형 단답형		
완결형	선다형 완결형	옮겨 쓰기	
		바꿔 쓰기	일부 쓰기
			전체 쓰기
	논술형 완결형	일부 쓰기	
		전체 쓰기	
논술형	선다형 완결형 논술형		
	완결형 논술형		
	작문형 논술형		

쓰기는 선택형을 통해 간접 평가할 수 있으나 모든 문항을 선택형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형의 선다형 문항을 활용하되 반드시 2문항 이상은 서답형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또 서답형 문항 중 하나는 논술형 그 중에서도 작문형 논술형을 출제하여 수험자의 글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듣기 평가는 선택형의 진위형, 배열형, 선다형 형태와 서답형의 단답형, 완

결형 형태로 출제한다. 진위형은 ○, X의 작성 방법에 따라 2개 유형으로, 배열형은 순서의 나열을 글자로 하느냐 숫자나 기호로 하느냐에 따라 서답형 배열형과 선다형 배열형으로 나눠 출제할 수 있다. 또 연결형은 문제군과 답지군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5개 유형으로, 선다형은 37개 유형으로 출제할 수 있다. 서답형은 총 25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이 중 19개는 단답형으로 나머지 6개는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답형과 완결형으로 모두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 71문항은 사실적 이해가 21개, 추론적 이해가 42개, 평가적 이해가 8개이다. 이러한 행동 영역은 급별로 출제 비율이 달라야 한다. 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의 문항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다음의 비율을 참고해 출제해야 한다. 단 기관마다 평가 내용 및 범위 등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각 항목의 비율을 5%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 등급별로 요구하는 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큰 틀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표157〉 성취도 듣기 평가의 출제 비율 지침

등급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초급	76.2	23.7	0.1	100
중급	34.5	62.2	4.8	100
고급	45.5	34.7	19.8	100

읽기에서도 행동 영역의 등급별 출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58〉 성취도 읽기 평가의 출제 비율 지침

등급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총합
초급	71.4	28.3	0.3	100
중급	52.5	46.6	0.9	100
고급	33.2	57.3	9.5	100

이와 같은 읽기는 선택형의 진위형, 연결형, 배열형, 선다형과 서답형의 단답형, 완결형으로 출제할 수 있다. 선택형은 71개, 서답형은 31개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사실적 이해 문항이 29개, 추론적 이해 문항이 63개, 평가적 이해 문항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출제자는 등급별 출제 비율을 고려하여 문항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읽기에서는 등급 및 유형에 따라 텍스트의 종류,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육을 대표하는 주요 대학의 실제 문항을 분석한 것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취도 평가를 계획하고 출제, 시행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현직 교사들에게는 문항의 점검 자료로, 새내기 교사들에게는 출제의 지침서로, 예비 교사들에게는 성취도 평가 및 지필 평가의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유리. (2005).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강소산. (2015).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말하기
평가 효능감. 『화법 연구』, 30, 1-35.
- 강승혜. (2005). 한국어 고급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기초 연구: 고급 말하
기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1-21.
- 강승혜 외. (2006). 『한국어 평가론』. 태학사.
- 교육부. (2005).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 처리 요령 개
정』.
- 구민지. (2014). 한국어 교육 성취도 평가 분석 사례 연구: 특정 대학 기관
중급 성취도 평가의 내용 타당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8,
211-236.
- 권순희. (2014).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우
리말연구』, 39, 5-24.
- 김경선 외. (2010).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의 신뢰도와 오차요인 분석. 『한국어 교육』, 21(4), 51-75.
- 김성숙. (2001). 『일반화가능도 이론』. 교육과학사.
- 김성애. (2014). 『영어 평가의 이해』. 글로벌콘텐츠.
- 김성희·오문경. (2011). 유럽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Can Do 개발
연구: 서강 한국어 사용 독일, 체코 대학에서의 성취도 평가를 목
적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 학술 발표 논문집』, 65-82.
- 김영아. (1996). “외국어로서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
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유정 외. (1998).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9(1), 37-94.

- 김유정. (1999). “한국어 능력 평가: 숙달도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유정. (2006). 한국어능력시험의 난이도 분석 연구: 제6회 ~ 제8회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7(1), 21-46.
- 김정숙 외. (2002).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숙 외. (2005).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부여 방식 및 평가 문항 유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숙. (2010). 한국어 문법 능력의 평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9-88.
- 김하수 외. (1997).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기본 모형 개발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교육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한 연구 과제.
- 남명호 외. (2000).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기준 조정 및 문제 은행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책 연구 과제.
- 노대규. (198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시험과 평가. 『이중언어학』, 1, 139-170.
- 박도순. (2000). 『문항 작성 방법론』. 교육과학사.
- 박성경. (2007). “한국어 듣기·말하기 능력 평가 유형 개발 연구: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성경 · 송향근. (2008). 한국어 듣기, 말하기 성취도 평가에 관한 연구: 초급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0, 299-325.
- 박영목. (2008). 쓰기 평가 연구의 주요 과제. 「작문연구」, 6, 9-37.
- 방성원. (2009). 한국어 문법 평가 연구: 숙달도 평가와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10, 175-203.
- 백봉자. (1998). 한국어 교육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급, 2급 성취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5(1), 141-167.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3). 『서울대 한국어 1A workbook』. 문진미디어.
- 성태제. (1996). 『문항 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신상근. (2010). 『외국어 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세종대 국제교육원. (2016). 『세종대 한국어 1』. 세종대학교 출판부.
- 오선영. (2014). 홍콩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어 성취도 평가의 경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01-310.
- 원해영 외. (2012). 한국어 성취도 평가에서의 교사와 학습자간 난이도 불일치에 대한 연구. 『교육혁신연구』, 22(3), 1-23.
- 윤인아. (2008).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평가 연구: 문제 유형 분석과 난이도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선영. (2013).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에서의 평가 범주의 세분화 문제 연구. 『우리어문연구』, 45, 27-55.
- 이영식. (2004). 한국어 말하기 시험의 유형 및 채점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5(3), 209-230.
- 이완기. (2012). 『영어 평가 방법론』. 문진미디어.
- 이진영. (2009).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의 단계별 유형과 기준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향. (2013). “한국어 말하기 수행 평가의 발음 범주 채점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희경 외. (2002). 한국어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1), 341-416.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1). 『이화 한국어 workbook 3-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임경순. (2005).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4, 5-26.
- 장은아. (2014).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양호도 분석 : 한국어능력시험 제28회 ~ 제32회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5(4), 219-247.
- 전나영 외. (2007).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32, 259-338.

전은주. (2008).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제12회 일반 한국어(S-TOPIK)의 쓰기·듣기·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1, 129-165.

정진옥. (20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읽기 영역 평가 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21회 ~ 25회 중급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조현용. (2007).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박이정.

지현숙. (2005). 인터뷰 시험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구인 연구. 『국어교육연구』, 16, 79-104.

최은규. (2005). 유형별로 본 한국어 능력 평가의 실제와 과제: 배치 평가와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1-115.

한대영 외. (2008). 『한국어 문법 교육』. 태학사.

한재영 · 안경화. (2011). 『한국어교육 용어 해설집』. 신구문화사.

함정식 · 김명광. (2014).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 난이도 설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5회 ~ 제27회 중급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6, 145-185.

허용 외. (2005).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허유경 외. (2016). 말하기 성취도 평가 도구 개발: 역할극의 평가 구인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국방어학원 합동 학술대회 발표집, 61-76.

2011년 제 24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쓰기 시험지. 국립국제교육원.

2012년 제 28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쓰기 시험지. 국립국제교육원.

2012년 제 2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읽기 시험지. 국립국제교육원.

2015년 제 41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쓰기 시험지. 국립국제교육원.

2. 국외 문헌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1991). What does language testing have to offer?. *TESOL Quarterly*, 25(4), 671-704.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Brown, H. D. (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White Plains, NY: Longman.
- Campbell, R. & R. Wales. (1970). The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In J. Lyons(eds). *New Horizons in 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 Canale, M. (1985). *Proficiency-oriented Achievement Testing*. Toronto: Franco-Ontario Centre and Curriculum Department,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Hart, D. (1994). *Authentic assessment*.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Menlo Park, CA.
- Hymes, D. H. (1972). O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 Larsen-Freeman. (2001). *Teaching grammar*. In M. Celce-Murcia(3rd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 MA: Heinle & Heinle.
- McNamara, T. F. (2000).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itko, A. J. (1983). *Educational tests and measurement an introduction*.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 Taylor, S. (1973). *Listening: What Research Says to the Teacher*.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Tschannen–Moran, M & Woolfolk–Hoy, A. (2001). Teacher efficacy: Capturing an elusive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 783–805.
-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 Underhill, N. (1987). *Testing Spoke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lette, Rebecca M. (1997). *Modern Language Testing Second Edition*. USA: Harcourt Brace Jovanovich.
- Wesche, M. B. (1981). Communicative Testing in a Second Languag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7, 551–571.

ABSTRACT

Analysis and actual research of the test items for
evaluation of Korean learning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written test items –

Heo, You-Kyo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achievement evaluation is widely used for th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It includes the quiz, temporary test, summary test, midterm test and final test which are conducted in the educational field. Among them, the midterm test and final test are the most important. They not only take up a lot of weight in the graduation score but also are used as the basic data for promotion, entrance to a college or company. Accordingly, those tests should be conducted in an objective way using highly reliable evaluation tool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achievement evaluation test and the research of the items as evaluation tools. It is because in the written test, the evaluation items or the

evaluation tools are the critical elements directly connected to the result of the test. Now, the items of evaluation test used by the educational institutes are created by the teachers. But, as there are little researches on the related subjects and the data cannot be shared with other institutes, they have difficulty in creating the items of the test. So, if there is any instruction related to the creation of test items, the teacher would get a reduced burden in the creation of test items, thus making the evaluation tool more reliable. In addition, more objective data would be developed. So, the author has suggested an instruction for creating the test items for the evaluation of achievement based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by compiling the matters such as what kind of type can be created for the test by scope, and from what grade the type can be created. At this time, the target for the study was the achievement test items made by educational institutes. The items were created by teachers having a lot of experience in education and the test items they created have been amended and supplemented for improvement to perfection for long time. So, they were used as the objective data for the creation of the instruction for creating the test items by type and grade. For the enhanced objectivity, the analysis targeted the Korean education institutes established by the colleges located in Seoul, which have the experience of teaching Korean for at least 10 years and use the textbooks of their own development. In addition, the subject educational institutes were chosen when they conduct all educations in grades 1 to 6 and have at least 3 classes for each grade. These requirements were decided considering the exchange with other institutes, the quality of test items, professionalism of the creator of the test items, the type and ratio of items for each grade, and the number of creators. Based on these requirements, 8 Korean language educational institutes managed by colleges located in Seoul were finally selected for this study. The test items used by 8 selected

educational institut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items into language & grammar, writing, listening and reading and the actual items of those institutes were used to help understand the types. At this time, the ratio of items for the grade in the type were also suggested. Through this process, the actual achievement evaluation described in Chapter 5 was completed.

In the achievement evaluation, it is hard to disclose the test items of an educational institute to outside due to the nature of the test. This may lead to the lack in the related researches and the concentration of specific research to a few college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been suggested through the actual analysis of the test items though this kind of studies have not been performed before and led to difficulty in the conduct of the achievement evalu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e study would be used as the data for understanding the achievement evaluation and checking the test items for the new teachers and the guide for helping to understand the achievement evaluation and the written evaluation for the potential teachers.

【Key words】 achievement evaluation, written evaluation, evaluation tool, test items, type of test items, evaluation scope, evaluation grade